

**원주시 민속신앙과 지전살풀이 학술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2. 11.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원주시역사박물관장 貴下

본 보고서를 「원주시 민속신앙과 지전살풀이 학술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1.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여연구진

.....

총괄 책임 : 이창식(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김경남(세명대학교 전통문화행정학과 교수)
 최명환(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강사)
 이영식(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연구원)
연구 지원 : 남중현(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강사)

— 목 차 —

제 I 장 민속신앙의 개념과 유형	11
1. 민속신앙의 개념	13
2. 민속신앙의 유형	15
제 II 장 원주시 마을 제의의 유형과 특징	19
1. 마을 제의의 개념과 유형	21
2. 원주시 마을 제의의 형성 배경	22
3.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 유형	28
4. 원주시 마을 제의의 형식적 특징	40
5. 원주시 마을 제의의 내용적 특징	46
제 III 장 원주지역 무속 현황과 과제	49
1. 원주지역과 무속	51
2. 원주지역 무속에 대한 기록	52
3. 원주지역 무속 연구 현황	73
4. 원주지역의 열두거리	77
5. 원주지역 무속의 자료정리 및 연구 과제	88
제 IV 장 지전살풀이의 전개	93
1. 지전	95
2. 지전살풀이	105
3. 지전살풀이의 지속	119
제 V 장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형성 배경과 특징	125
1. 굿에서의 지전살풀이	127
2. 지전춤의 형성 배경	128
3.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생성배경	136
4.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구성	145
5.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특징	150
6.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가치	151
참고문헌	153

부록1 : 지전살풀이 조사 녹취록1 157
부록2 : 지전살풀이 조사 녹취록2 161

— 표 목 차 —

<표1> 원주시 일대 산신과 서낭신이 결합된 형태의 마을 제의 32
<표2> 원주시 일대 이중구조를 보이는 마을 제의 33
<표3> 원주시 관내 장승제를 지내는 마을 35
<표4>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 제일 42
<표5>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가 두 번 이루어지는 마을 현황 43
<표6> 원주지역 무격의 성무 동기 및 수업기간 57
<표7> 경신회 강원도지회 현황 일람표 64
<표8> 원주 허남축 복술의 안택경 구송 절차 75
<표9> 원주 손진춘 복술의 안택경 구송 절차 75
<표10> 횡성 김응삼 복술의 안택경 구송 절차 76
<표11> 횡성 박영식 복술의 안택경 구송 절차 76
<표12> 원주지역 열두거리 80
<표13> 곳에서 사용되는 지역별 무구 133
<표14> 씻김굿 각 거리에서 사용하는 무구 134
<표15> 임은숙의 공연 및 활동경력 142

— 사 진 목 차 —

〈사진1〉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당숲	14
〈사진2〉 원주시 치악산 산신제	22
〈사진3〉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보냄	26
〈사진4〉 원주시 인근 지역의 서낭당 조사	30
〈사진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천제	30
〈사진6〉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서낭제	33
〈사진7〉 원주시 반곡동 유만 서낭당(2008)	34
〈사진8〉 원주시 부론면 정산3리 장승제(2017)	35
〈사진9〉 원주시 부론면 정산2리 장승(2012)	36
〈사진10〉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장승(2012)	37
〈사진11〉 인제군 상남면 대왕각에서의 김부대왕제(2011)	38
〈사진12〉 별신제가 이루어지는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39
〈사진13〉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춘 단오제	40
〈사진14〉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당숲	40
〈사진15〉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춘 당신도	41
〈사진16〉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춘 제물 진설	45
〈사진17〉 강원도민속문화론	53
〈사진18〉 강원도 상황경개	54
〈사진19〉 조선의 무격	56
〈사진20〉 조선의 향토오락	60
〈사진21〉 원주원성 향토지	61
〈사진2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편)	64
〈사진23〉 민속지	65
〈사진24〉 강원도 민속문화론	66
〈사진25〉 원주시사	67
〈사진26〉 강원도 송경 연구2	71
〈사진27〉 강원도사	72
〈사진28〉 강원 영서지역의 안택경 음악 연구	74
〈사진29〉 천존굿을 하는 장면	83
〈사진30〉 칠성굿을 하는 장면	83
〈사진31〉 선녀굿을 하는 장면	84

<사진32> 신장굿을 하는 장면	86
<사진33> 성황굿을 하는 장면	87
<사진34> 임은숙 아버지 임성도	137
<사진35>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 전수증	140
<사진36>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스무살풀이 이수증	140
<사진37> 제2회 전국 전통춤 연희경연대회 대상 상장	141
<사진38> 제2회 전국 전통춤 연희경연대회 공연 장면	141
<사진39> 지전살풀이 복장	147
<사진40> 임인숙류 지전살풀이의 지전	148
<사진41> 종이접기	149
<사진42> 종이 오리기	149
<사진43> 수술 만들기	149
<사진44> 손대 만들기	149
<사진45> 상평통보 쓰기	149

제 1 장 민속신앙의 개념과 유형

1. 민속신앙의 개념
2. 민속신앙의 유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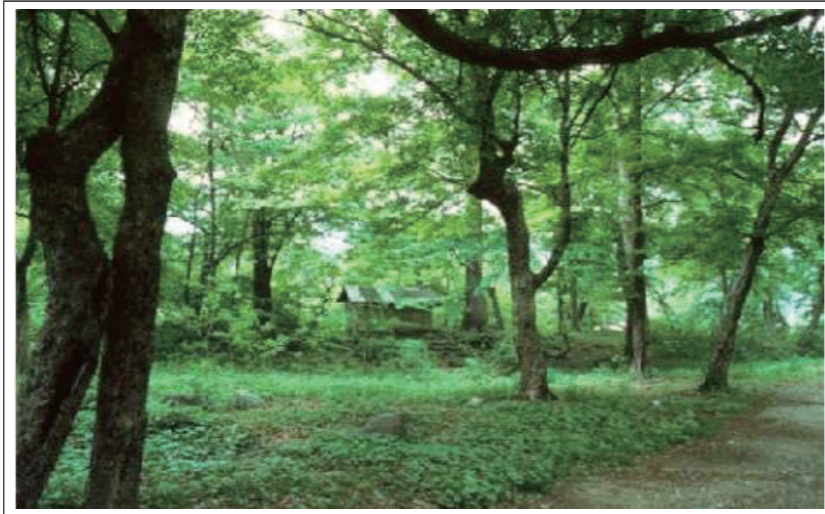
민속신앙의 개념

1.1 문화로서의 민속신앙

- 민속신앙(民俗信仰)은 한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현재에도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화현상이기도 하다. 민속신앙을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 했을 때, 한국인들이 ‘마을의 신격을 위하고, 무당에게 점을 보는 행위’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그러한 행위들이 사회적·문화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와 그 행위를 통해 한국인들이 소망하는 욕구를 파악하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인들의 민속신앙이라는 것은 한반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한국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가며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믿음’과 ‘철학’을 담고 있다. 전통적인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우주관’과 ‘세계관’이 민속신앙에 깊이 있게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속신앙은 한반도에 뿌리내리고 살았던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민속신앙은 일정한 체계를 지니지 않지만,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주술적인 신앙의 한 형태이다. 학계에서 ‘민속신앙’이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은 아니다. 막연한 의미를 지닌 채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속신앙 자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 때문으로부터 유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민속신앙은 누군가 창시했다고 하는 ‘창시자’가 없고, ‘계시적’이지도 않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은 창시자가 있으며 교리를 갖는 ‘종교’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민속신앙은 ‘조직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한국인들이 믿어 왔고 계승하는 신앙이다. 민속신앙에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도 있으나, 외국에서 건너온 종교의 영향을 받고 한반도의 풍토에 맞게 발전된 것도 있다.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연적 신앙과 외래의 신앙이 충돌하면서 재래의 민속신앙이 파괴되어 해체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 또한, 민속신앙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적인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지역별로 독특한 특색을 지니기도 한다. 한국의 민속신앙은 개인 신

앙을 강조하는 외래 신앙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이면서 그것을 계승해온 주체가 지배 계급이 아닌 민중이라는 점에서 서민적인 특성을 보인다.

- 이는 민속신앙이 이성적인 판단이나 제도적인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경험의 반복’에 따른 판단에 그 신앙구조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속신앙을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과 삶의 욕구를 투영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로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진1>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당숲

1.2 변화하는 민속신앙

- 모든 문화현상과 마찬가지로 민속신앙은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민속신앙은 자연을 숭배하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모든 생물이 그렇듯이 원시시대에도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자연을 신성하게 여겼다. 천둥 및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연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조건들이 자연을 숭배하고 신성시하는 신앙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자연숭배는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집단이 필요로 하는 신앙으로 세분화된다.
- 예를 들면, 사냥하는 부족들에게는 동물들이 거주하는 ‘산’을 신성하게 여기고, 정기적인 제사를 거행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부족들은 만선(滿船)과 바닷길의 안전을 위해 바다를 숭배한다. 민속신앙의 초기 단계에 자연숭배 신앙은 모든 자연 속에 신성한 ‘영(靈)’이 있다고 믿는 정령신앙(精靈信仰)으로 발전한다. 곧

산에는 ‘산령(山靈)’, 물에는 ‘수령(水靈)’, 나무에는 ‘수목령(樹木靈)’, 바위에는 ‘암석령(巖石靈)’, 사람에게 ‘인간령(人間靈)’ 등이 있다고 믿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제각각의 정령(精靈)이 실재한다고 믿었다. 눈에 보이는 자연에서부터 출발한 원시 자연숭배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숭배로까지 발전하며, 많은 신앙들이 만들어진다.

- 한국인들의 민속신앙은 보편적인 신앙의 맥과 같이하면서도 독특한 민속신앙을 발전시켜왔다. 외래의 종교가 유입되는 문화적 과정을 통해 민속신앙의 성격과 특징들도 변했고, 외래 종교와 토착 신앙이 혼합되면서 민속신앙이 점점 발전해 오늘날까지 계승하였다.
- 불교의 교리로부터 출발했으나 토착 신앙과 결합되어 많은 서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미래 부처에 대한 믿음인 ‘미륵 신앙’, 귀신과 소통하는 무당에 대한 ‘무속 신앙’,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미리 대비하고 행복을 비는 ‘점복 신앙’,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마을 신앙’, 집안에 여러 신들이 있어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행운을 준다고 믿는 ‘가신 신앙’, 사람을 상대로 장난을 치지만 악의적이지 않은 도깨비에 대한 신앙, 자연경관을 판단하여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하는 ‘풍수지리’ 등 많은 민속신앙들이 현재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2

민속신앙의 유형

2.1 가정신앙

- 한국인들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는 ‘삼신할머니’라든지 화장실에서 출몰하는 ‘귀신’ 이야기 등은 어렸을 때부터 설화를 통해 접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신(家神信仰)’ 또는 ‘가정신앙(家庭信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집안의 여러 장소에는 ‘가신(家神)’ 또는 ‘가택신(家宅神)’ 등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러한 가신들이 각각 분담하여 해당 장소를 지킨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가신을 모시는 사제자는 그 집의 주부가 담당을 한다. 그래서 가정신앙은 여성 중심의 신앙이며,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 가신 가운데 ‘성주신’은 가옥의 본체를 담당하는 신이다. 집안의 모든 운수를 관장하고 있는 신으로 해당 가정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가장격의 상징을 지니

므로 모든 가신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다. ‘삼신’은 아이의 출생을 맡은 신이다. 아이의 점지를 담당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순산과 돌을 넘기기 전까지의 건강과 수명까지 삼신의 영력에 의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조왕신’은 부역의 신으로 아궁이, 밥솥 등을 담당한다. 조왕신은 부역신 뿐만 아니라 ‘불의 신’으로도 믿는다. ‘터주신’은 집터를 관장하는 신으로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이나 개인 집에 있는 우물을 관장하는 ‘우물신’은 용왕신이다. 특히 마을 우물일 경우 우물신은 마을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정 내의 물을 공급하고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신이다. ‘뒷간신’은 화장실에 거한다는 귀신이다. 다만, 다른 가신들과는 달리 신벌(神罰) 기능만 행사하기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신이다. ‘업신’은 집안의 재복을 담당하는 신이며 집안 어느 특정한 곳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신들 중 유일하게 실존 동물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주로 집구렁이, 두꺼비 등을 업신으로 모신다. 그 밖에 소를 관장하는 외양간신, 복두칠성을 섬기는 칠성신, 장독대를 관장하는 장독신 등 집안 곳곳에 신이 있다고 믿어 한국인들은 정성껏 가신들을 섬겼다.

- 가정신앙이 서민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데에는, 고급 종교가 강조하는 정신적이고 내세적 문제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는 더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신앙의 주체였던 여성들은 다른 사회적 공간으로 드나드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집 안 곳곳에 신을 보시고 복을 비는 것으로 생활의 희망을 얻었다.

2.1 마을신앙

- 모든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강한 일체감이 있었고, 마을의 일은 곧 자신의 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 신앙은 한반도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신앙의 주된 요소로는 당신, 장승, 솟대 등이 있다. 당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생업을 관장한다. 지역에 따라 도당, 부군당, 산제당, 당산, 서낭당, 본향당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당신이 위치한 공간 역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산꼭대기나, 마을 한복판, 마을 입구 등 다양하다. 당신을 모시는 신당의 형태는 대체로 신수(神樹:성스런 나무) 형태이거나 신수와 제단이 복합된 형태, 신수와 당집이 복합된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 마을 입구에 세워지는 장승은 마을신의 하위신으로 외부로부터의 잡귀와 흉악

을 막는 신이다. 지역에 따라 장승, 벽수, 법수, 우석목 등 다양하게 불린다. 장승은 나무나 돌로 한 쌍의 부부로 만들어 세우는데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신통함이 크게 발휘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장승은 외부로부터의 흉악을 막아주는 벽사와, 마을의 경계 표시, 그리고 각 마을 간의 거리를 알려주는 이정표 등으로 기능을 하면서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 마을 신앙의 또 하나의 요소인 솟대는 나무나 돌로 만든 새 모양의 조형물을 나무 장대나 돌 위에 얹힌 마을의 신앙 대상물이다. 지역에 따라 솟대 역시 명칭이 다른데 짐대, 짐대서낭, 오릿대, 수살대, 진또배기 등으로 불린다. 다만 액운을 막고 풍농을 기원하는 목적은 일치한다. 솟대는 보통 마을 입구나 논 한 가운데 위치하며 형태상 지면에서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았기 때문에 지상의 소원들을 천계의 신들에게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상징을 가진다.
- 이러한 마을 신앙의 중심에는 ‘동제(洞祭)’가 있다. 동제는 한 마을의 수호신을 숭상하고 마을 주민들의 무병(無病), 장수(長壽) 등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신격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동제의 이름은 각 지역별로 당굿, 당산제, 동신제, 서낭제, 서낭굿 등 다양하게 부른다. 동제의 시기는 마을마다 다르지만 주로 정초에 날을 잡아 지내거나, 정월 14일 밤 자정에 하는 편이다. 동제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무당을 초빙하여 굿으로 제의를 치르는 ‘당굿’ 류와 다른 하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제의를 유교적으로 행하는 ‘당제’ 류가 있다. 당굿은 규모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들기에 점차 간소화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정성껏 동제를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의에 참여한다. 동제가 끝나면 마을 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의에서는 이장선출, 품삯결정, 마을공사 등 1년 동안의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2.3 무속신앙

- 무속신앙(巫俗信仰)은 고대 국가에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천신’에게 제사드리는 ‘제천신앙(祭天信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제례 양식은 현재까지도 각 지역별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무속 신앙의 정의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무속 신앙은 샤머니즘의 한 계통으로 한국이라는 자연과 문화 환경에서 특수하게 발달한 종교현상으로 이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무당이 여자인 경우가 많다.
- 무당의 종류에는 어떻게 무당이 되었느냐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 존재가 일반인에게 찾아가 무당의 숙명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다. 이

숙명의 징표로 갑자기 원인 모르게 앓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병을 ‘무병(巫病)’이라고 한다. 무병을 겪고 내림굿을 한 무당을 ‘강신무(降神巫)’라고 한다. 강신 무들의 특징은 신과 함께 하기에 신당(神堂)을 집에 꾸미며, 굿을 할 때는 신과 관계를 맺고 신들린 상태에서 신의 말을 전해준다.

- 또한, 혈통을 따라 대대로 무당의 역할이 계승되어 인위적으로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무병이나 신들림 등의 초자연적 경험이 없고 단지 무당의 역할을 배워서 ‘무업(巫業)’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당을 ‘세습무(世襲巫)’라고 한다. 세습무는 신에 대한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당이 없고 굿을 할 때도 신의 말을 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습무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 온 가무에 능하기 때문에 신을 위한 가무를 중심으로 굿을 이끌어간다. 그들은 신의 말을 전하는 역할이라기 보다는 신을 위로하고 의식을 진행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한편, 무속에서는 다양한 신을 모시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 기존의 종교인 불교, 도교를 비롯해서 고대의 영웅 전설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신들의 기원을 찾아내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무속신앙에서의 굿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신에게 기원할 목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가무와 의식절차를 통해 행하는 제사의식이다. 사람들은 무당을 통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보통 굿이라고 하면 큰 규모를 뜻하며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의는 치성, 비손, 손비빔 등으로 부른다. 굿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정을 단위로 하는 가제와 생활공동체인 마을을 단위로 하는 동제, 그리고 무속인 자신을 위한 무신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제는 가정의 평안함을 비는 굿이다. 기복을 위한 굿과 치병을 위한 굿, 그리고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비는 굿 등이 있다. 그리고 동제는 마을에서 해가 바뀔 때마다 마을을 수호하는 신격에게 마을의 액을 막고 풍년을 비는 굿이다. 이는 마을신앙과도 연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무신제는 무당 자신에게 국한된 굿으로 처음 무당이 되기 위한 굿과 해마다 신의 영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하는 굿 등이 포함된다.

제 II 장 원주시 마을 제의의 유형과 특징

1. 마을 제의의 개념과 유형
2. 원주시 마을 제의의 형성 배경
3.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 유형
4. 원주시 마을 제의의 형식적 특징
5. 원주시 마을 제의의 내용적 특징

1 마을 제의의 개념과 유형

1.1 마을 제의의 개념

- 마을[洞]은 인간 생활의 기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집들이 모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기초 사회 단위 집단을 가리킨다. 마을은 발생 차원에서 자연촌과 행정촌, 가옥의 밀집도에 따라 집촌(集村)과 산촌(散村), 주민들의 씨족 구성에 따라 동성마을, 각성마을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마을 구성원의 신분 에 따라서 반촌(班村), 민촌(民村), 반상혼거촌(班常混居村), 생업 기반에 따라 농촌, 어촌, 산촌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마을의 기본 입지는 자연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다. 산과 구릉, 강과 바다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산임수(背山臨水)’를 마을 형성의 기본 조건으로 하기에 마을 주변 좌우에 산자락이 있고, 조금 멀리 앞산도 있어 사방에서 산들이 마을을 아늑하게 감싸 주는 자연환경이 있는 곳에 마을이 위치한다. 그리고 마을 옆이나 앞으로 강이나 하천 등이 흐른다. 여기에 배산임수의 뒷산이 북에서 남으로 오는 산줄기라면 자연스럽게 마을의 가옥들은 남향이 되어 더욱 선호하는 장소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 마을의 입지가 처음부터 풍수 논리로 선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바람으로부터의 보호, 편안한 경관, 윤택한 생산 조건, 편리한 일상생활 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마을 입지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삶의 지혜가 결국 풍수 입지 논리와 일치했다고 봐야 한다.

1.2 마을신앙의 유형

- 이렇게 형성된 마을은 가족 단위의 집을 넘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마을은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마을 단위의 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 제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마을에서 신성하면서도 중요한 공간이 된다. 주로 마을 뒷산 아래나 마을 한 가운데 산신당·서낭당 등이 마을 경계 공간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이들 상징물들은 공통으로 마을신[洞神]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마을 제당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마을 비보를 위해 세워진 공간도 있다. 마을의 길과 입구에 세워진 ‘수구택이’와 ‘골택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상징물도 마을을 지켜주는 중요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역시 마을 제의의 대상이 된다. 자연공간을 보완해 주는 상징물이 제의 공간으로 전

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 마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의 공간에서는 마을 구성원들 중심으로 신앙 활동이 이루어진다. 신앙(信仰)은 신(神)과 인간(人間) 간의 관계에서 뒤따르는 종교현상이다. 종교현상으로서의 신앙은 자연숭배나 동물숭배 등에서 그 원초적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신앙 형성기 초창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세계(世界)는 자신들에게 호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영적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들이 호의적인 신령(神靈)과 그렇지 않은 악령(惡靈)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신앙 형성기에는 ‘불사(不死)’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흠(hume)이 언급한 ‘무생명체의 생명체화’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인간들이 지녔던 세계관들은 ‘미신(迷信)’이라는 언어로 그 가치를 상실하였으며, 이는 원주시 관내의 마을도 마찬가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된 마을 단위의 신앙체라 할 수 있는 마을 제의는 우리 삶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에서는 원주시 관내 마을에서 근래까지 있었고, 현재도 일부 남아 있는 마을 제의의 유형과 특징들을 정리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원주시 구성원들의 마을 제의와 신앙 형태를 조금이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2 원주시 마을 제의 형성 배경



<사진2> 원주시 치악산 산신제

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 참조.

2.1 치악산 산신제

- 『신증동국여지승람』 원주목 산천 조에 “치악산은 고을에서 동쪽으로 25리에 있는 진산(鎭山)”²⁾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치악산은 고려시대 진화(陳渾)와 관련한 설화를 통해 도(道)를 닦는 은자와 스님들뿐만 아니라, 숨은 인재들이 찾아와 은거(隱居)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국가 차원에서 ‘치악산신(雉嶽山神)’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치악산사(雉嶽山祠)를 건립하고,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 봄과 가을로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조선시대 전통은 2000년대까지 원주시 대표 축제였던 치악제(雉嶽祭)와 치악산 산신제 등으로 이어져 왔다. 지역축제였던 치악제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 항목이기도 하였다.
-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 등으로 나누어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와 같은 전통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물론 고려 말 원천석 등이 “치악산에 단(壇)을 쌓고 매년 봄과 가을에 단군(檀君)·기자(箕子)를 비롯해서 고려시대 역대 왕, 성인과 군자 등을 제사 지냈다.”³⁾라고 해서 치악산에 단을 설치하고 제사 지내는 풍습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치악산은 조선시대 이래 국가 제사의 제장(祭場)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조에서 산천(山川)의 사전(祀典) 제도를 올렸다. ... 강원도의 치악산(雉嶽山)·의관령(義館嶺)·덕진 명소(德津溟所) ... 모두 소사(小祀)이니,⁴⁾

내시 별감(內侍別監)을 보내어 원주(原州) 치악산(雉岳山)의 신(神)에게 제사지내고, 호종(扈從)한 신하와 군사(軍士)들에게 3일 양식(糧食)을 주었다.⁵⁾

내시 별감을 보내어 치악산의 신에게 제사하다.⁶⁾

... 이제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오니, 다시 오악과 강에서부터 시작하여 처음과 같이 기우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⁷⁾

... 산천의 단묘(壇廟)와 신패(神牌)의 제도를 상정하기를, ... 원주의 치악산은 소사이고, 사묘의 위판은 치악지신(雉嶽之神)이라 쓰며 ...⁸⁾

2) 『신증동국여지승람』 원주목 산천조, “雉嶽山在州東二十五里鎭山”
 3) 전석만, 『원운곡거의』, 원주문화원, 1990, 12~45쪽, 김성찬, 「치악산사에 대한 고찰」, 『원주월』 13호, 원주문화원부설원주월심기협의회, 2004, 149~151쪽 재인용.
 4)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8월 21일, “禮曹上山川祀典之制... 江原道 雉嶽山、義館嶺、德津 溟所, ... 皆小祀.”
 5) 『태종실록』 28권, 태종14년 윤9월 14일, “遣內侍別監, 祭雉岳之神.”
 6) 『태종실록』 30권, 태종15년 9월 28일, “遣內侍別監, 祭雉岳之神”
 7) 『세종실록』 8권, 세종2년 4월 27일, “至今不雨. 請還從嶽瀆如初.”
 8) 『세종실록』 76권, 세종19년 3월 13일, “... 山川壇廟及神牌制度, ... 原州 雉嶽山, 小祀, 祠廟位版, 書雉嶽之神”

소사(小祀), 영성(靈星)·명산 대천(名山大川)과 【치악산(雉嶽山)은 강원도 원주(原州)의 동쪽에 있고, ...⁹⁾

주(州)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제사 지내기를 소사(小祀)로 한다.¹⁰⁾

예조에서 치악산(雉岳山)과 계룡산(鷄龍山)의 제례(祭例)와 축문식에 따라 정월·2월·7월에 설행할 것을 청하자, 윤허하였다.¹¹⁾

- 이상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치악산은 조선시대 소사(小祀)로서 정기적인 국가 제사가 이루어진 곳이다.¹²⁾ 치악산사에서는 매년 음력 2월과 음력 8월 두 차례에 걸쳐 날을 받아 국가 차원의 제의가 이루어졌다. 치악산사의 신위(神位)는 ‘치악지신(雉嶽之神)’이었으며, 제단과 폐백(幣帛), 제물과 진설은 영성단(靈星壇)¹³⁾에 준해서 하도록 하였다. 희생제물로는 돼지를 사용하였으며, 헌관은 주현의 수령이 하게 하였다. 한편 축관은 소나무로 만들고 “국왕 감소고”라고 일컬었다.

높은 저 웅대한 진산이	節彼雄鎮
우리의 동쪽 지경을 비호하고 있도다	庇我東陲
가뭄을 닫고 비를 내림이	閉陽從陰
밝은 신께서 맑은 바이로다	明神所司
미약한 내가 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眇予失職
한발이 혹독하도다	旱魃肆虐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蒼生何罪
날마다 구렁에 빠집니다.	日填溝壑
정성 다해 밝게 고하오니	竭誠昭告
굽어 흠향하옵소서	庶紆歆格
진실로 현묘한 기틀 운전하시어	儼運玄機

9) 『세종실록』 128권, 오례, “小祀, 靈星、名山、大川 【雉岳山, 江原道 原州東 ...”
 10)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名山曰雉岳, 【在州東, 春秋降香祝致祭, 小祀.】”
 11) 『숙종실록』 38권, 숙종29년 7월 29일, “禮曹請遵雉岳、鷄龍等山祭例及祝文式, 以正月、二月、七月設行, 允之.”
 12) 치악산사에서의 제례의식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오례(五禮)에 기록하고 있으며, 김성찬, 「치악산사에 대한 고찰」, 『원주열』 13호(원주문화원부설원주열심기협의회, 2004)에서 설명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13) 영성단(靈星壇)은 새해 농사가 잘되도록 곡식을 맑은 별과 농사를 맑은 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제단이다. 영성단의 설치는 고려 때 처음 시작된 것이며, 조선에서도 고려의 유제(遺制)에 따라 한양 천도 후에 남교에 설치하고 입추 후에 진일(辰日)을 정일로 하여 제사를 지냈다. 또한, 태조가 발신(發身)한 함흥에 조선의 창립을 감사한다는 뜻에서 영성단을 설치하고 해마다 제관을 파견해 제사를 지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빨리 기름진 은택 베푸소서

亟施膏澤

- 이이, 율곡전집¹⁴⁾

- 국가에서 정한 정기적인 치제(致祭)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수재(水災), 한재(旱災) 등의 천재지변 등에도 치악산에서 국가 차원의 제의가 있었다. 특히 치악산 산신제와 관련해서는 가뭄에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와 연계된 기록들이 많이 보인다. 1502년(연산군 8년) 5월 4일에는 “향(香)과 축문(祝文)을 강원도 치악산(雉岳山) 등 여러 곳에 보내어 비를 빌게 하였다.”¹⁵⁾라고 해서 나라에 비가 오지 않자 치악산에서 기우제를 지냈음이 확인된다. 치악산에서의 기우제는 1455년(세조1) 7월 3일과 1461년(세조7) 7월 19일 등에도 있었다. 한편, 1494년(성종25) 12월 23일에 당시 성종이 병이 있자, 종묘와 사직은 물론 소격서와 경기 근처의 제장에서 기도를 마치고, “... 외방(外方)의 명산대천(名山大川)에도 겸하여 기도하도록 하소서. ... 사의(司議) 박인(朴訥)을 치악산(雉岳山)·동해(東海)에, ...”¹⁶⁾라고 해서 외곽의 명산대천에도 사신을 보내 쾌차를 기도하게 하였는데, 여기에 치악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 이상과 같이 원주시의 진산(鎭山)이라 할 수 있는 치악산에서 오랫동안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마을 제의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제의가 이루어졌다. 곧 치악산은 마을 제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국가 단위의 신격(神格)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전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2.2 원주시 반곡동 「입춘단」에서의 토우 내기

- 원주시 반곡동에 ‘입춘내(立春內)’라는 마을이 있다. 입춘내 마을은 반곡동 북서쪽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며, 원주천, 번재천, 오리현천 등이 합류하는 곳에 발달한 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는 ‘입춘내(立春內)’로 『한국지명총람』에는 ‘입춘천’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입춘내’라는 지명은 입춘단(立春壇)이 있었기에 생긴 지명이라고 한다. 입춘내 남쪽 들을 입춘들, 입춘내 마을 북서쪽으로 난 들을 입춘앞들, 뱅이두둑의 뱅이둑천과 뒷골의 내가 합해 북서쪽으로 흐르며 서리실과 입춘내를 지나 원주천에 합류하는 하천인 ‘입춘천’ 등의 지명도 모두 입춘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전한다.¹⁷⁾ 현대에 와서는 ‘입춘로’라는 길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입춘단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전한다.

14) 김교희, 「원주 지방의 한시」, 『원주열』 8호, 원주문화원부설원주열심기협의회, 2004, 48~49쪽.
 15) 『연산군일기』 44권, 연산8년 5월 4일, “送香祝于江原道 雉岳山等處祈.”
 16) 『성종실록』 297권, 성종25년 12월 23일, “... 外方名山大川, 司議朴訥于雉岳山.東海, ...”
 17) 김은철, 『원주지명총람』 (상), 원주시, 2019, 174~175쪽.

입춘단은 고을에서 동쪽으로 4리 거리인 영랑촌에 있다. 원주지방의 특유한 풍속으로 입춘날에 흙으로 빚은 소를 만들어 이곳에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했다. 지금은 없어져 거행하지 않는다.

- 위의 인용문은 『여지도서』(18세기), 『조선환여승람』(20세기) 등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1940년에 편찬한 『강원도지』에도 기록하고 있다. 곧 원주시 반곡동 일대에 ‘입춘단’이 있었다. 입춘단은 “5칸의 기와집으로 사방에 흙돌담을 치고 동쪽으로 문을 낸” 형태라고 한다. 입춘단에서 매년 입춘에 지방 수령이 제주가 되어 풍농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언제 시작되고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이미 18세기 이전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3>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보냄

- 입춘단과 관련한 기록에서 특이한 것은 토우(土牛)를 만들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한국 민속에 있어서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토우를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제의는 오래된 전통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제의가 원주시에서도 있었고, 지명으로 현재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입춘은 24절기 중 첫째 절기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절기이다. 보통 양력 2월 4일경에 해당한다. 입춘은 새해에 드는 첫 절후이므로 궁중과 지방에서 여러 의례를 베풀었는데 그 가운데 한가지가 ‘토우를 내는 일(出土牛事)’이었다. ‘토우 내기’는 고려시대 때에도 있었으며,¹⁸⁾ 원주시 ‘토우 내기’에 대해서는 운곡 원천석의 시에서도 확인된다.

1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2004 참조.

十二月二十六日立春。12월 26일 입춘.

即事。 생각나는 대로 읊음.

東陌迎春祀事明	동쪽 거리에서 봄맞이 제사가 한창이고
土牛乘曉起初耕	토우(土牛)도 새벽에 일어나 첫 밭 갈기를 시작하네.
句芒不見監農使	구망(句芒)은 감농사(監農使)를 보지 못하고
應笑時人浪竊名	사람들이 이름만 훔친다고 비웃으리라.
治本於農政所先	근본을 다스리려면 농정(農政)부터 먼저 해야 하니
聖君躬秉耒耕田	거룩한 임금도 쟁기 잡고 몸소 밭에서 갈았네.
誰憂國命兼民命	그 누가 나라 운명과 백성 목숨을 걱정하랴
雖復難欺是上天	저 하늘만은 속이기 어려우리라. ¹⁹⁾

- 원천석의 시를 통해서 원주에서 입춘에 제의와 토우를 이용한 모의(模擬) 농경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곧 봄을 맞이하는 ‘입춘제’와 토우를 이용한 모의 농경이 결합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한편, 입춘에 ‘토우 내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기(禮記)』에 “계동(季冬)에 궁중의 역귀를 쫓는 행사인 대나의(大儺儀) 때 토우를 만들어 문밖에 내놓아 겨울의 추운 기운을 보낸다(出土牛以送寒氣).”라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원주시는 아니지만, 강원도 삼척에서 입춘에 있었던 마을 제의 형태를 허목의 『척주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진산 서쪽의 작은 산은 초농산(初農山)이라고 하는데, ... 입춘에 선농씨에 제사를 지낸다. 이때 오곡을 내고 토우를 만들었다가 제사가 끝나면 밭 갈고 김매고 추수하는 놀이를 하고는 창고에 가지고 가 보관하는데 농악대가 선악(先樂: 선농제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을 연주하며 인도하였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섭제(攝提: 천신)가 계절을 다스려 생육의 왕성한 원기가 목위(木位: 동쪽)에 있습니다. 이에 삼가 제수를 갖추어 백곡이 풍년들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였다.²⁰⁾

- 또한, 함경도에서는 목우(木牛)를 관청으로부터 민가까지 끌고 나와 돌아다니는 의례가 있었으며, 제주도에서도 입춘 전날 무당들이 주사(州司)에 모여 나무로 만든 소에게 제사를 지내고, 호장(戶長)이 나무 소에 농기구를 갖추어 나와 무당들과 함께 행진하는 민속이 ‘입춘탈굿놀이’다. 곧 입춘에 토우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래된 풍습으로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를 거쳐 이어지며, 원주시 입춘내에서도 그 전승을 확인할 수 있다. 입춘에 행하는 ‘토우 내기’ 행사

19) 『운곡원천석시사』, 원주원씨종친회, 1977, 511쪽.
20) 허목, 『국역 척주지』, 삼척시립박물관, 2001, 114쪽.

는 추위를 물리고 풍농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의와 놀이가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는 본격적인 농경을 앞두고 소에 쟁기를 매어 시험 삼아 밭을 갈아보는 민속이 있다. 이를 흔히 ‘보냄’ 또는 ‘보내미’ 등으로 부르는데, 이 보냄은 입춘에 ‘겨울’이나 ‘추위’를 ‘보내는’ 상징적 제의가 실생활에 고착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 유형

- 원주시는 물론 우리나라 전통 마을은 마을 제의를 거행하는 ‘제단(祭壇)’이나 ‘제당(祭堂)’ 등이 마을 내부에 위치한다. 마을 제의를 앞두고는 외부 사람들은 물론 같은 마을 사람들이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을 제의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 제의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당에서부터 신격, 제일, 제물, 제의 절차, 제의 공동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현지 조사를 통한 종합 조사보고서가 요구된다. 그러나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조사하고 조사보고서가 없다. 다만,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를 대상으로 한 기존 보고서와 단행본, 논문 등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원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한 마을 제의 관련 조사와 연구는 대부분 1990년대에 오면서부터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원주시 일대의 마을 제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 글에서는 이들 자료와 필자의 현지 조사를 통해 원주시 관내 마을에서 마을 제의가 이루어졌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들의 마을 제의 유형을 분석해 보았다.
- 경수현, 「신림면 당제에 대한 일고찰」, 『원주월』 제5호, 원주문화원부설열심기협의회, 1994.
 -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원도 세시풍속』, 2001.
 - 국립민속박물관, 『강원지방 장승·솟대신앙』, 1988.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강원도편, 1997.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2007.
 - 김정남 외, 「성황림 마을제의 연구」, 세명대산학협력단, 2021.
 - 김은철, 『원주지명총람』, 원주시, 2019.
 - 김인선, 「마을숲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 『중앙민속학』 16집, 중앙대학교 한

국문화유산연구소, 2011.

- 김인선, 「원주 성황림의 상징성과 공간성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1.
 - 김태곤 외, 『한국의 산촌민속』 1, 교문사, 199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산간신앙 - 강원·경기·충북·충남 편』, 1993.
 - 신경철, 「지명에 나타난 원주의 토속신앙」, 『원주월』 6호, 원주문화원, 1996.
 - 신종원의 「치악산 석남사지의 추정과 현존민속」, 『한국학』 17,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
 -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 오창현 외, 「강원도 원주 남부 백운치악산신제와 계문서」, 『장서각』 38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윤덕인, 「강원도 민속제의의 제물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이소래, 「원주시 신림면의 마을신앙 연구」, 연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이종우, 「강원도 영서 지역 마을의례의 유지와 변화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6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 이창식, 「원주지역의 동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 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이한길, 「원주시 매지리 회촌마을 단오제에 있어서 신격의 정체」, 『한국무속학』 17집, 한국무속학회, 2008.
 - 원주시,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7.
 - 원주시, 『원주시사』, 2000.
 - 원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원주시, 2004.
- 우리나라 전통 마을에서 마을 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마을 제의의 대상이 되는 신격과 마을 제의 명칭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제의에서의 신격은 산신(山神)과 서낭신[城隍神], 토지신(土地神), 용신(龍神), 천신(天神) 등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단종, 태조대왕신(이성계) 등과 같은 왕신(王神), 김유신(金庾信), 임경업(林慶業), 남이(南怡) 등과 같은 장군신을 모시기도 하며, 영남의 동해안지역에서는 골매기신[防谷神], 제주도에서는 도깨비신 등도 마을 제의의 대상이 된다. 마을 제의의 명칭도 ‘동제’ 또는 ‘동신제’를 비롯해서 지역에 따라 마을 신격의 구체적인 명칭을 들어 ‘산신제’, ‘서낭제’, ‘용신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호남지방에서는 ‘당산제’, ‘당제’라고도 하는가 하면, 중부지방에서는 ‘도당굿’, 제주지방에서는 ‘당굿’ 등이라고 한다.
 - 원주시 마을 제의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산신제, 서낭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승제, 천제 및 대왕제, 기우제 등도 확인된다. 다만, 기우제 유형의 마을

제의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의이기에 여기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사진4> 원주시 인근 지역의 서낭당 조사

3.1 천제사



<사진5> 황성군 우천면 하궁리 천제

... 여기가 저. 왕건이 하구 궁에 하구, 거 싸움하며 지내간 그런 자리가 때문에, 그 여기 천제사 지내는 게 있어요. 그건, 천제사라구 해서 우리 동네만 위헌게 아니구, 국민안을 비는, 인제 그런 행사거든요. 근데 뭐 뚜렷하게 자리는 없는데, 마을 뒷산에 가면은, 산 정상에, 이 고, 고인돌, 고인돌 형태로 해서, 이 바위가, 둘레가 한 팔 메다, 그 정도되는 바위가 아주, 우뚝 늘어슨게, 한, 아마, 바위 높이가 한 칠 메다 정돈 돼요. 칠 메다 정돈 되는데, 그런 바위가 있는데, 그 왕건이가 궁예를 쫓다가, 이리 쫓다가, 지나, 그걸 보니까. 거기에 그, 큰 바위가, 그 범상치 않으니까, 고 밑

에, 그, 좀 이렇게, 절벽같은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지구, 어. “내가 천하통일을 좀 할 수 있게. 거, 좀 도와달라구.” 그래 빌구 갔는데, 그게 유래에 따라 가지구, 여기, 그, 인제, 그, 천제사 지냈대는 그런 인제 전설을...

황루시 외 조사, 『한국구비문학대계』 원주시편, 2010.12.16 채록.

- 치악산 주변에서 전승하던 마을 제의 가운데 특이한 성격의 제의가 있었다. 원주시 소초면 둔둔2리에서 1970년대까지 ‘천제사’라 부르는 천제(天祭)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왕건이 천하통일을 빌었다.”라는 전설을 토대로 천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전승한다. 둔둔2리 천제는 ‘고경(高京)’이라는 분이 870여 년 전에 정착하면서 시작하였으며, “황성·소초 독립만세운동 때 천제를 먼저 올리고 독립 만세를 불렀다.”라고도 전한다. 둔둔2리 천제를 거행할 때는 4명의 제주를 선정하였으며, 철저한 금기를 지켜 제의를 진행하였고, 선정한 4명이 배례가 끝난 후 마을 대표 순으로 배례하였다고 한다. 천제를 지낼 때는 인근 마을 주민들은 물론 미군 부대에서도 성금을 보내기도 하였을 정도로 규모가 컸었다. 소초면 둔둔2리에서는 천제를 통해 국민안과 마을의 안녕,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였으며, 원주시에서는 1995년 둔둔리 천제를 각색해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²¹⁾ 한편 둔둔리 천제는 산신제, 수부제와 이어지는 다중적 구조를 지닌다.

3.2 산신제와 서낭제

-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의 대표적인 유형은 ‘산신제’와 ‘서낭제’일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서낭제’가 보편적으로 원주시 마을 제의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마을 제의는 산신제와 서낭제, 장승제, 솟대제, 돌탑제, 우물제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마을에 따라서 상당과 하당 등의 이중 구조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마을 제의도 많다. 상당에는 신앙 대상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으로 ‘산신제’를 지내며, 하당에서는 ‘서낭제’, ‘장승제’, ‘솟대제’, ‘선돌제’ 등을 지낸다. 또한 한 곳의 상당에 2~5곳의 하당이 존재하는 마을들도 있다.
- 그러나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는 대체로 산신당이나 서낭당[성황당]에 ‘수부’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또한 ‘서낭당’이나 ‘산신당’을 중심으로 단일한 구조를 보인다. 원주시 관내 마을에서 마을 신을 모시는 제당은 신격에 따라서 ‘서낭당[성황당]’과 ‘산신당’이라 부른다. 신림면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의 경우 ‘천지당’이라는 제당 명칭이 보이나, 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살펴보면 산신

21) 원주시,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참조』, 1997, 558~559쪽.

당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편, 소초면 교항1리 텃골 마을 제당의 위패에 “雉岳山城皇之神位”라고 한 것 같이 마을에서 모시는 신격이 ‘산신’과 ‘서낭신’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마을 제의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마을	위패
소초면 교항1리 텃골	雉岳山城皇之神位
소초면 학곡1리 칠송	雉岳城隍之神 神位
소초면 홍양4리 살여울	雉岳山城隍神位
소초면 홍양2리 직산동	雉岳山城隍之神
소초면 홍양1리 유사동	雉岳山城隍之神
소초면 수암2리 수골	雉岳山城隍之神
행구동 살구독	雉岳城隍神位
행구동 유암	雉岳山城隍神位
반곡동 봉대	雉岳城隍山神之神位
관설동 십재	雉岳城隍神位
홍업면 매지리	白雲山檜村城皇之神位
관부면 서곡1리 내남송	白雲山山神靈 誠煌堂
관부면 서곡2리 서평동	白雲山城隍神位乾 白雲山城隍神位坤乾
관부면 신촌리 새말	白雲山城隍神位
부론면 손곡3리 알쌍골	白雲山城隍神位
귀래면 운계2리 대동	白雲山城隍之神位
귀래면 운계2리 가치락골	白雲山城隍之神位
신림면 금창리 가리과	白雲山城隍神位
신림면 금창리 예창이	白雲山城隍之位
신림면 금창리 둔창	白雲山城隍神位
신림면 성남리 싸리치	雉岳山城隍 神位
신림면 구학리 선학동	白雲山城隍靈神 神位
신림면 구학리 방학동	白雲城隍神位
신림면 구학리 석동	白雲城隍神位
신림면 황둔리 평촌	雉岳山城隍神位

<표1> 원주시 일대 산신과 서낭신이 결합된 형태의 마을 제의

- 마을에서 모시는 신격을 통해 마을 제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상과 같이 원주시 일대에는 산신제와 서낭제가 결합된 형태의 마을 제의가 분포한다. 기존에 조사된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 91곳 가운데 25개 마을로 약 27%를 차지한다. 특히 산신제와 서낭제가 결합된 형태의 마을 제의는 원주시 소초면, 행구동, 반곡동, 관설동, 홍업면, 관부면, 신림면과 부론면과 귀래면 등의 일부 마

을에서 확인된다. 이들 마을은 대부분 치악산과 백운산 언저리에 위치한 산촌으로 ‘치악산신’과 ‘백운산신’을 ‘서낭신’과 동일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신제와 서낭제를 명확히 구분해서 이중구조의 마을 제의를 보이는 마을들은 아래와 같다.

마을	제의 유형
호전면 주산2리 중방	산신제+ 서낭제
호저면 용곡리 하용곡	산신제+ 서낭제
소초면 둔둔2리	천제+ 산신제+ 수부제
소초면 평장리 윗섬배	산신제(대왕제)+ 서낭제
소초면 홍양3리 황골	대왕제(산신제)+ 종사제+ 서낭제
봉산동 살대울	산신제+ 서낭제
문막읍 취병2리 진밭골	산신제+ 서낭제+ 장승제
부론면 노립2리 밤계	어장군제(산신제)+ 서낭제
신림면 금창리 예창이	산신제+ 서낭제
신림면 신림리 역골	산신제+ 서낭제
신림면 용암리 갈밭골	산신제+ 서낭제
신림면 황둔리 창촌	산신제+ 서낭제
신림면 황둔리 물안동	산신제+ 서낭제

<표2> 원주시 일대 이중구조를 보이는 마을 제의



<사진6>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서낭제

- 원주시 관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제의 가운데 ‘산신제’와 ‘서낭제’가 결합한 이중구조 곧 산신당과 서낭당, 상당과 하당 등의 형태를 보이는 마을 제

의도 확인할 수 있다. 호저면의 주산2리 중방과 용곡리의 하용곡, 소초면 둔둔 2리, 평장1리 윗섬배, 홍양3리 황골, 봉산동 살대울, 부론면 노림2리 밤계, 신림면 금창리 예찬이, 신림리 역골, 용암리 갈밭골, 황둔리 창촌, 물안동 등의 경우 산신제와 서낭제의 이중구조로 마을 제의가 이루어진다. 이들 마을에서는 ‘산신’과 ‘서낭신’을 명확하고 구분해서 이루어지는 마을 제의 형태를 보인다. 기존에 조사된 마을 제의 가운데 약 14%에 해당한다. 소초면 둔둔2리의 경우 천제와 소초면 평장1리 윗섬배와 홍양3리 황골에서는 ‘대왕제’와 ‘서낭제’가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문막읍 취병2리 진밭골에서는 ‘산신제’, ‘서낭제’, ‘장승제’가 결합된 마을 제의가 이루어진다.



<사진7> 원주시 반곡동 유만 서낭당(2008)

3.3 장승제

○ 원주시 관내의 마을 제의에서도 장승제가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장승’과 ‘숫대’가 같이 세워져 있으며, ‘장승제’, 또는 ‘수살제’ 등으로 부른다. 다만 ‘숫대제’만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승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지역의 장성, 벽수, 벽시, 법수, 법시, 당산할아버지 등으로 부르고, 충청도에서는 장신, 수살막이, 수살이, 수살목 등으로 부르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당승, 돌미륵,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 우석목(偶石木), 거오기, 거액(去厄) 등으로 부른다. 특히 원주시에서는 장승을 ‘수살’로 많이 부르기에 ‘살방(殺防)’, ‘수살방(水殺防)’, ‘수살목(水殺木)’ 등의 뜻을 지닌 풍수지리적 비보(裨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충청도 지역과 동일하다. 한편, 문막읍 취병2리 진밭골 장승은 ‘천하대장군’ 아래에 원주 50리, ‘지하여장군’ 아

래에는 여주 50리로 표기하고 있어 장승이 지나는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사진8> 원주시 부론면 정산3리 장승제(2017)

○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 공간에 세워진 장승의 재료는 주로 ‘나무’였으며, 특히 마을의 침입하는 잡귀 잡신과 나쁜 기운을 막는 것이 장승을 세우는 목적이기 에 장승의 겉모습을 “무섭게 만들고, 얼굴에 황토 칠을 하여 축귀(逐鬼)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잡귀와 재액을 쫓고 마을을 보호하는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 또는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따위를 묵서(墨書)한 형태이다. 특히 마을 입구에 남녀 한 쌍을 모시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1990년대 이후에 와서 나무로 장승을 깎는 것이 어려워 ‘돌’로 깎은 돌장승 형태로 바뀌었다. 원주시 관내 마을에서 장승제를 지냈거나 현재도 지내는 마을은 아래와 같다.

마을	제의 유형
지정면 월송2리 송호동	서낭제+ 장승제
문막읍 취병2리 진밭골	산신제+ 서낭제+ 장승제
문막읍 반계3리 골무대기	서낭제+ 장승제
관부면 서곡2리 서평동	서낭제+ 장승제
귀래면 귀래2리 양안치	산신제+ 수살제(장승제)
귀래면 운계1리 아홉사리	서낭제+ 수살제(장승제)
흥업면 대안1리 돼니	장승제

부론면 손곡1리 별말	장승제
부론면 정산3리 중간말	장승제
부론면 정산2리 거론	장승제

<표3> 원주시 관내 장승제를 지내는 마을

○ 원주시 관내에서 마을 제의로서 장승제가 확인되는 마을은 지정면 월송2리 송호동, 문막읍 취병2리 진밭골, 반계3리 골무내기, 판부면 서곡2리 서평동, 귀래면 귀래2리 양안치, 운계1리 아홉사리, 흥업면 대안1리 돼니, 부론면 정산3리 별말, 정산2리 거론 등이다. 이는 원주시 관내 전체 마을 제의 가운데 10%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장승제만 지내는 마을은 4곳이며, 6개 마을은 하당제로서 ‘산신제’ 또는 ‘서낭제’와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장승과 관련한 마을 제의는 장승으로 세울 나무를 벨 때, 그것을 다듬어 장승으로 세워 영력(靈力)을 불어넣을 때, 해마다 마을 제의와 함께 장승에 제사를 지낼 때 등으로 구분되는데, 원주에서는 산신제와 서낭제와 함께 장승에 제사를 지내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4개 마을에서는 서낭제와 결합된 하당제로 지내며, 산신제와 결합된 하당제로서 장승제를 지내는 마을은 1개 마을이다. 문막읍 취병2리 진밭골에서는 산신제 및 서낭제와 모두 결합된 형태로 마을 제의가 이루어진다.



<사진9> 원주시 부론면 정산2리 장승(2012)

○ 원주시 관내의 장승제는 대체로 음력 정월 열나흘날에 지내는 곳이 많으며, 제일 아침에 마을에서 정인(淨人)으로 선정된 남자들이 장승으로 세울 나무를 베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온다. 장승으로 사용할 나무로는 주로 소나무를 많이 쓴다. 한편, 남장승은 양지, 여장승은 음지에서 각각 자란 나무로 쓰기도 한다. 남장승을 먼저, 여장승을 뒤에 세운다. 이때 남녀 장승이 서로 바라

보기도 하고 나란히 있기도 하다. 특히 산신제 및 서낭제 등의 마을 제의와 함께 지내는 마을에서의 장승제는 산신제 및 서낭제가 끝난 후 간소한 제물을 차리고 지낸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장승은 ‘산신’ 및 ‘서낭신’에 비하여 하위의 신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산신제나 서낭제를 지내기 위해 장만한 제물 가운데 흔히 “주과포”를 조금 나누어서 사용한다.



<사진10>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장승(2012)

3.4 대왕당과 대왕제

○ 원주시 관내의 마을 제의 가운데 ‘대왕제’ 또는 ‘대왕 신앙’이 확인되는 곳이 있다. 대왕제는 주로 위대한 힘을 발휘했거나 억울하게 죽은 왕으로 액운을 물리치고 재복을 주거나 마을의 수호 역할을 하는 대왕을 신격으로 모시는 제의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신라의 경순왕 곧 김부대왕을 비롯해서 조선시대 단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왕신(王神)들이 마을 제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마을 제의의 대상이 되는 신격은 크게 자연신과 인신(人神)의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인신 중에는 탁월한 인물인 장군이나 국왕과 같은 인물의 영혼을 신으로 신앙하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죽어 원한에 찬 인물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전자의 왕신으로는 단군이나 조선시대의 태조대왕,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라의 경순왕, 고려의 공민왕과 조선의 단종대왕·사도세자 등이 대표적이다. 원주에서는 이들 왕신이 액운을 물리치고 재복(財福)을 주는 신으로서의 직능을 가지면서, 마을을 수호해 주는 동신(洞神)으로 신당에 모시는 마을이 있다.



<사진11> 인제군 상남면 대왕각에서의 김부대왕제(2011)

- 원주에서 왕신을 모시는 마을 제의는 소초면 일대에 주로 분포한다. 소초면 평장1리 윗섬배와 소초면 홍양3리 황골 등이다. 그리고 지명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곳이 태장동 ‘가매기마을’이다. 소초면 평장1리 윗섬배 마을과 홍양3리 황골마을은 대왕제와 서낭제가 결합한 형태의 이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홍양3리 황골마을은 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太宗)’과 관련한 설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 소초면 주변에는 “고갈바위[弁岩], 태종대, 입석대, 대왕제, 원통제” 등 태종 및 원천석 관련한 지명유래와 증거물들이 남아 있다. 그렇기에 “대왕제를 지내는 제장이 태종이 쉬었던 자리라고 하며, 수부는 태종의 마부가 있던 자리”로 전승한다. 특히 황골 대왕제에는 참나무, 소천엽, 홍합 등을 제물로 올리는데, 이 또한 “태종이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한다. 대왕제가 끝난 이후 수부제와 서낭제로 이어진다. 한편 『조선지리지』에 태장동에 “大王堂谷:딩딩이골”이 기록되어 있다. 후대에 마을 제의 형태가 서낭제로 바뀌었지만 왕신을 모셔던 마을 제장이 있었던 곳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대왕이” 또한 한자로 표현하면 ‘대왕’이라 할 수 있다.²²⁾
- 원주시 마을 제의에서 보이는 대왕제는 태종과 관련한 설화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특출한 한 업적을 달성한 국왕이나 억울한 삶을 산 국왕을 신으로 모심으로써 국왕의 위력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신앙으로 보여진다. 왕신을 모심으로써 액운을 물리치고 재복을 받게 된다고 믿으며, 반대로 억울하게 죽은 왕의 외로운 원혼을 위무(慰撫)함으로써 재액초복(除厄招福)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22)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67~85쪽.

3.5 별신굿



<사진12> 별신제가 이루어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 원주시 마을 제의 가운데 다른 제의가 포함되거나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원주시 관내의 마을 제의는 마을 회의에서 선정한 제관의 독축(讀祝)으로 엄숙하게 지내는 정숙형(靜肅型) 제의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귀래면 운계3리 다둔마을에서는 “2~3년에 한 번씩 지당굿을 했다.”라고 하며, 홍업면 매지리 회촌에서도 단오에 굿판이 펼쳐졌다고 한다. 곧 마을 제의에 무속이 결합된 것이다.

... 1910년 회촌의 단오제가 절정기였을 때는 단오굿을 3일간 계속했고 교통이 불편했는데도 20km밖의 원주시내 사람들이 이 마을 단오굿을 구경왔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심한 단속과 70년대의 미신타파운동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단오굿은 쇠퇴하여 ... 단오 전날인 5월 4일, 해뜨기 전에 마을 입구에 있는 성황당에서 성황굿을 한다. 1910년대에 만해도 이름난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고 한다. 성황맞이 굿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앞세우고 산신당을 올라가서 다시 강신(降神)굿을 한다. ...²³⁾

- 위의 자료를 통해 회촌에서는 3일 동안 ‘단오굿’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황굿’과 ‘산신굿’이 주요 굿이었다. 현재 회촌에서 단오굿을 하지 않고 5월 단오에 서낭제만 지낸다. 엄숙형 동제와 무속이 결합된 형태의 다둔마을과 회촌의 마을 제의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별신제로서의 무당굿형 마을 제의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 보인다. 곧 두 마을의 제의는 제관들이 진행하는 제의도 있지만, 제의에 이어 무당의 굿놀이 곧 별신굿이 있었을 가능성이

23) 원주시, 『원주시사』, 2000, 139~140쪽.

있다. 별신굿형 마을 제의는 마을 공동으로 마을의 수호신을 제사하는 점에서 동제(洞祭)와 유사하나, 동제는 동민 중에서 뽑은 제관이 제사를 주관하는 데 비해 별신제는 무당이 주재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진13>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촌 단오제

4

원주시 마을 제의의 형식적 특징



<사진14>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당숲

- 원주시 마을 제의 명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고사’라 부른다. 일부 ‘당제사’라고도 하지만, 당고사라 부르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 가

운데 제의 명칭을 ‘당고사’라 부르는 마을은 전체의 50%가 넘는다. 그리고 서낭제나 성황제, 산신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당고사도 당제, 서낭제, 성황제, 서낭고사, 산신고사 등으로 불리며,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는다. 당고사는 ‘당(堂)’에서 이루어지는 ‘고사(告祀)’를 가리키는 말이다. 곧 마을제의의 대상을 모셔 놓은 곳에서 ‘말로 신(神)에게 알리고 제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 마을 제의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로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관(祭官)으로 뽑힌 제주(祭主), 헌관(獻官), 축관(祝官) 등이다. 마을 회의를 통해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마을 제의에 앞서 며칠 동안 목욕재계하고, 마을에서는 사람은 물론 짐승도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금기를 철저히 지킨다. 심지어 마을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사망도 부정(不淨)에 포함시킨다. 만일, 마을 구성원 가운데 산고(産故)나 사망이 발생하면 제일을 변경하거나 심한 경우 지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15>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촌 당신도

- 마을 제의를 며칠 앞두고 금줄[禁繩]을 치며,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고 선정한 제주[祭主, 유사]를 맡은 집이나, 제당 근처에서 제물을 만들어 자정 가까울 무렵 제단에 진설하고 제의를 진행한다. 제관이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강신(降神)한 다음, 헌관의 헌작(獻爵)과 천찬(薦饌) 및 축관의 고축(告祝) 등의 순으로 제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유교식 제의’라고 한다. 축관이 축원을 하는 내용은 대개 일 년 동안 마을 전체의 안녕과 천재지변, 수해, 질병 등으로부터 마을 구성원, 가축, 곡식 등을 보호하고, 다산(多産)의 효과 또는 풍요(豐饒)를 비는 것이다. 축관이 축을 읽는 것이 끝나면, 마을 내의 구성원이나 계원들을 위해 고사(告辭)를 외우며, 흰 종이에 불을 붙여서 태우는 소지(燒紙)를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것은 마을 내의 거주하는 구성원과 그들의 가정마다

축원을 신에게 알리는 것이다. 소지가 올라가는 것으로 한 해 동안의 운수를 점치기도 한다. 아울러 신이 마을 제의를 잘 받았는지의 여부까지 확인하게 된다.

- 소지 올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을 제의는 끝이 나고, 마을 제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제의에 사용한 제물과 술로 음복(飲福)을 한다. 음복에는 차례가 있으며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크게 회식(會食)과 분배 등이 있다. 곧 제관들이 마을 제의를 거행하면서 음복을 하고, 마을 제의가 끝난 뒤에 그 나머지는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준비한 제물의 양이 많으면 회식과 분배를 하지만, 적을 때에는 분배를 하지 않고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만 회식하는 것으로 마을 제의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음복은 신에 의해 성화(聖化)된 신찬(神饌)과 신주(神酒)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도 똑같이 신의 은총을 받아 건강, 장수, 행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4.1 제일(祭日)

- 우리나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기에 농경과 관련한 시간을 제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일은 마을에서 전승되어온 관념에 따라서 그 대로 전승하는 경우도 있고, 농사력이나 태음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마을 제의 제일이 일 년에 한 번인 경우는 ‘정월 대보름’이 가장 많다. 또한 우리나라 마을 제의 제일이 거의 음력 정월에 집중한다. 『한국의 마을제당』(국립민속박물관, 2004·2007)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음력 정월에 마을 제의가 있는 마을이 50% 이상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41.7% 가까이 되는 마을에서 음력 정월에 마을 제의를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⁴⁾ 이는 원주시도 마찬가지다. 원주시 마을 제의의 제일이 일 년에 한 번인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월	1월							3월	5월	9월	10월		11월			
	택일	1일	2일	3일	5일	14일	15일				택일	7일	택일	1일	3일	
마을	12	1	2	2	2	8	10	10	1	4	3	3	1	4	1	1

<표4> 원주시 관내 마을제의 제일

- 원주시 관내 마을 가운데 마을 제의가 일 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마을의 제일

24) 전국적으로 마을 제의를 음력 정월에 지내는 곳은 충청북도(86.3%), 전라남도(84.5%), 경상북도(80%), 전라북도(79%), 충청남도(64.3%), 부산(63.9%), 제주(50.2%), 강원(41.7%), 경기(16.5%) 등이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음력 정월에 마을 제의를 지내는 곳이 많으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음력 정월에서 벗어나는 날에 마을 제의를 지낸다.

은 음력 1월, 3월, 5월, 9월, 10월, 11월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1월 중에 마을 제의가 이루어지는 마을은 전체 가운데 56%를 차지하며, 3월 15%, 5월 1%, 9월 10%, 10월 6%, 11월 9% 등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1월에 집중하고 있으며, 1월 가운데서도 정초에 택일을 하거나 정월 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마을 제의가 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에 마을 제의의 72%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25%가 이루어져 주로 상반기에 마을 제의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일	마을
3월 3일, 9월 9일	10
3월 3일, 11월 택일	1
4월 8일, 9월 9일	4
3월 15일, 9월 15일	1

<표5>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가 두 번 이루어지는 마을 현황

- 한편, 일 년에 두 번 이상 마을 제의가 이루어지는 마을은 전체의 17%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 년에 두 번 마을 제의가 이루어지는 마을은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3월 3일을 제일로 하는 마을은 전체 20개 마을로 가장 많다. 마을 제의의 제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저면, 소초면, 지정면, 문막읍, 흥업면, 부론면, 귀래면 등에서 1월에 주로 이루어지며, 봉산동, 행구동, 반곡동, 신림면 일대에서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일인 마을들이 주로 분포한다. 특히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 마을 제의의 제일이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 『한국의 마을제당』(국립민속박물관, 2004)에는 강원도내 음력 정월에 제일이 있는 마을은 41.7%이며, 3월이 제일인 마을은 7.5%, 9월이 제일인 마을은 9.6%, 10월이 제일인 마을은 8%로 정도였다. 또한 『산간신앙』(국립문화재연구원, 2000)에는 음력 3월과 9월에 마을제의가 있는 마을이 25%였다. 특히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등 북부지역에서 3월과 9월 두 차례 마을 제의를 지내고, 평창군, 태백시, 양구군, 고성군, 춘천시 등지에서는 3월에, 철원군과 화천군 등지에서는 9월에 마을 제의를 지내는 마을들이 많다. 마을 제의가 음력 3월과 9월인 마을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도 보이는데, 이는 태백산맥이 지나는 마을들에 해당한다. 강원도의 마을 제의는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3월과 9월이 제일이다. 강원도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원주시는 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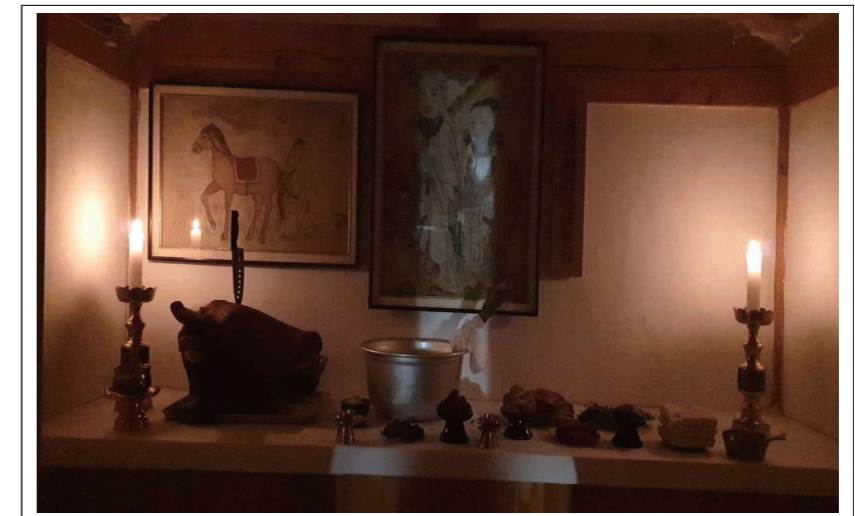
25)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방학동과 석동은 이웃한 당숲을 서로 공유하는데 방학동에서는 음력 3월 3일, 석동은 9월 9일에 동제를 지낸다. 또한 구학리 선학동의 경우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동제를 지냈으나, 제비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3월 3일에만 지낸다.(이소래, 「원주시 치악산 주변의 마을신앙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7, p.66 참조.)

정월에 마을 제의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치악산을 중심으로한 주변 일대에서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마을 제의를 지내는 마을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곧 원주시 일대 마을 제의의 제일은 치악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음력 정월 초와 정월 대보름에 마을 제의가 이루어진다. 원주시에서도 서남쪽에 해당하는 마을들은 대부분 음력 정월 초와 정월 대보름에 마을 제의를 지낸다.

4.2 제당(祭堂)과 제단(祭壇)

- 마을 제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제의를 제장(祭場)인 제당이나 제단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당과 제단이라고 하면 “신이 내리는 곳, 또는 신이 머무르는 곳”이다. 제당과 제단은 마을 제의를 진행하면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마을에서 모시는 신의 축복을 균등하게 받는 곳이다. 따라서 제당과 제단은 제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며,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들의 삶의 공간에서 격리된 곳이다.
- 원주시 관내 마을에서는 ‘서낭당’과 ‘산신당’을 중심으로 ‘당숲’이 형성되어 있다. 당숲을 ‘성황림’, ‘성황숲’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당숲’이라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다. 원주시 관내의 마을 제의가 이루어지는 마을들은 일부 당숲이 소실된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 당숲이 위치해 있다. 울창한 숲 형태의 당숲도 있지만, 몇 그루의 나무만 있어도 당숲이라 부른다. 그리고 당숲을 신성한 곳이라 여긴다. 심지어 당숲 나무는 부러진 가지라도 ‘불쏘시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숲에 있는 나무를 훼손에서 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전설로 전한다.
-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 제장은 크게 자연물, 당집, 그리고 자연물과 당집이 결합된 형태 등으로 존재한다. 기존에는 목조 건물 형태의 ‘당집’이 소재해 있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슬레이트 및 시멘트로 제당을 보수한 곳이 대부분이다. 원주시 관내 마을의 당집은 4~5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당집의 형태는 맞배지붕이며, 당집 옆으로는 나무와 바위 등 일명 ‘수부’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당집 내부에는 신격을 상징하는 위패가 놓여 있다. 또한 자연물과 당집의 복합형태인 곳도 있으며, 자연물과 당집의 복합형태는 다시 당목(堂木)과 당집이 결합된 형태와 자연석과 당집이 결합된 형태로 구분된다. 제장의 위치는 하천이나 계곡 옆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마을 제의를 진행하기 위해 제당 옆에 흐르는 계곡에서 목욕재계를 하기도 했으며, 계곡물로 신주를 담그고, 제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 또한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 제장에는 일반적으로 ‘수부’라고 부르는 제단이 따

로 위치해 있다. ‘수부’는 잡신을 막고, 주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수부는 나무, 바위, 서낭당 내부 별도 제단 등 다양하며, 마을에서 모시는 주신의 하위 신격으로 여긴다. 그리고 당집 내부에서의 제의가 모두 끝나면 수부 앞에 당집 안에 진설되었던 일부 제물을 옮겨와 ‘수부제사’를 지낸다. 수부단에서의 제사에는 별도의 제물을 준비하지 않는다. 제주도 단 잔만 올리고, 배례도 한 번만 하는 형태다.



<사진16>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회춘 제물 진설

4.3 제물(祭物)

- 마을 제의 제물(祭物)은 마을신의 신격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르고 조리하는 방법도 다르다. 일반적인 마을 제의에서 신찬(神饌)과 신편(神幣)과 향축(香燭) 등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신찬(神饌:제물)에는 술, 고기, 메, 떡, 포(脯), 해(醢), 탕(湯), 건어물, 채소, 과일, 과자 등이 있고, 신편으로는 베, 종이, 돈 등이 있으며, 곡물을 올리기도 한다. 신찬 중에는 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제주(祭酒)라고 한다. 제주는 강신(降神)·헌작(獻酌)·음복 등의 마을 제의 절차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가 이루어지는 마을에서는 제물 준비를 위해 제비(祭費)를 각출한다. 예전에는 콩이나 쌀 등의 현물을 걷기도 하였는데, 제일을 앞두고 정해진 비용을 걷어서 제물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땅을 구입해 한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매년 제물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당하게 하기도 한다. 제물은 원주중앙시장이나, 읍소재지와 면소재지 상가들을 중심으로 구입하며, 일반적으로 돼지머리, 과일, 포, 소지용

한지, 술 등이다. 그 외 제물은 가정용 제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 떡, 탕, 나물 등으로 제물을 준비한다. 마을 제의가 끝나면 마을회관에 모여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남은 고기를 나누어 주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였다. 떡과 메는 수확한 것 중에서 미리 선별한 것을 사용한다. 메는 마을에 따라서 제관들이 제당 앞에서 직접 지어 올리기도 하며, 떡은 '백설기'로 서되서흙을 찌며 시루째로 진설한다. 시루에 북어나 청수 등을 함께 올리기도 한다.

4.4 절차

- 원주시 관내 마을 제의는 별신굿 형태의 마을 제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숙형 유교식 제의다. 무당이나 법사 등의 전문 사제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제의 진행은 치악산 주변 마을이 거의 유사하며, '강신-분향-재배-참신-진찬-독축-헌작-소지-철상-음복'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는 제의 진행에 앞서서 '부정풀이'를 한다. 부정풀이는 당고사를 올리기 전에 있을 수 있는 부정을 소멸한다는 상징적인 절차로, 마을들마다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정풀이의 절차는 '긋은[젓은]부정'과 '맑은부정' 등으로 구성된다.
- 먼저 긋은[젓은]부정에서는 솥을 담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긋은[젓은] 부정입니다."라고 하면서 서낭당 내부와 외부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뿌린다. 긋은[젓은]부정이 끝나고 나서는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담아서 "이번에는 맑은부정입니다."라며 동일한 방식으로 당집 내부와 외부로 돌아가면서 뿌린다. 한편, 신림면 구학리 석동에서는 제관과 축관이 맑은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셔 더욱 정결하게 마을 제의를 준비했다고 한다. 마을 제의가 끝날 무렵에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보통 축관이나 제관이 올리며 주민이 많은 곳에서는 축관과 제관이 같이 올리기도 한다. 소지는 먼저 모시는 신격에 대한 소지를 올리고, 제의의 흠향 여부를 묻고, 마을 주민들의 개인소지를 올린다. 마을에 따라서 수부제사까지 끝나고 소지를 올리기도 한다. 수부제사는 제물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제당에 진설했던 일부 제물을 내와서 진설하며, 헌작과 배례가 한 번씩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부 소지를 올린다.

5

원주시 마을제의의 내용적 특징

- 원주시 마을 제의의 전통은 매우 오래되었다. 문헌을 통해서 최소 고려시대부

터 확인할 수 있으며, 치악산이라는 국가 제장(祭場)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철 추위를 물리고 풍농을 기원하는 '입춘제'가 문헌에서 보이며, 현재도 지명으로 전승하고 있다.

- 원주시 일대에는 '서낭제'를 중심으로 마을 제의가 분포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천제, 산신제, 장승제, 대왕제, 별신굿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 제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마을 제의가 복잡하지 않다. 대체로 산신당이나 서낭당[성황당]에 '수부'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또한 '서낭당'이나 '산신당'을 중심으로 단일한 구조를 보인다. 산신제와 서낭제가 결합된 형태의 마을 제의는 치악산과 백운산 언저리에 위치한 산촌에서 이루어지며, '치악산신'과 '백운산신'을 '서낭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 원주시 관내의 마을 제의에서 천제가 확인된다. 소초면 둔둔2리에서 "왕건이 천하통일을 빌었다."라는 전설을 토대로 형성되었다고 전하며, 산신제, 수부제 등과 이어지는 다중적 구조를 보인다. 장승제는 주로 '남한강'과 '섬강' 주변에 분포한다. '장승'과 '솥대'를 같이 세우며 '장승제' 또는 '수살제' 등으로 부른다. 원주시 관내의 장승제는 '살방(殺防)', '수살방(水殺防)', '수살목(水殺木)' 등의 뜻을 지닌 풍수지리적 비보(裨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막읍 취병2리 진밭골 장승은 이정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원주시 관내의 마을 제의 가운데 '대왕제' 또는 '대왕 신왕'도 보인다. 특히 소초면과 태장동 일대에 주로 분포한다. 서낭제가 결합된 형태의 이중적 구조를 보이며, 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太宗)'과 관련한 설화를 토대로 전승한다. 다만 특출한 업적을 달성한 국왕이나 억울한 삶을 산 국왕을 신으로 모심으로써 국왕의 위력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신앙으로 보여진다. 원주시 관내의 마을 제의는 마을 회의에서 선정한 제관의 독축으로 엄숙하게 지내는 정숙형(靜肅型) 제의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충주 인근인 귀래면 운계3리 다둔마을과 흥업면 매지리 회촌에서는 별신굿 형태의 마을 제의가 확인된다.
- 원주시 마을 제의 명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고사'라 부른다. 일부 '당제사'라고도 하지만, 당고사라 부르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그리고 마을 제의가 일 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마을의 제일은 1월에 집중한다. 그 가운데 정초에 택일을 하거나 정월 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마을 제의가 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일 년에 두 번 이상 마을 제의가 이루어지는 마을 제의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호저면, 소초면, 지정면, 문막읍, 흥업면, 부론면, 귀래면 등에서 1월에 주로 이루어지며, 봉산동, 행구동, 반곡동, 신림면 일대에서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일인 마을들이 주로 분포한다. 특히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 마을 제의의 제일이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원주시 관내 마을에서는 '서낭당'과 '산신당'을 중심으로 '당숲'이 형성되어 있

다. 마을 제의 제장은 크게 자연물, 당집, 그리고 자연물과 당집이 결합된 형태 등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제장에는 일반적으로 ‘수부’라고 부르는 제단이 따로 위치해 있다. 마을 제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성황계’의 조직 보다는 제비(祭費)를 각출하는 형태이며, 별신굿 형태의 마을 제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숙형 유교식 제의다. 무당이나 법사 등의 전문 사제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제 III 장 원주지역 무속 현황과 과제

1. 원주지역과 무속
2. 원주지역 무속에 대한 기록
3. 원주지역 무속 연구 현황
4. 원주지역의 열두거리
5. 원주지역 무속의 자료정리 및 연구 과제

1

원주지역과 무속

- 원주시는 강원도 감영이 있던 곳이다. 익히 알고 있듯이, 강원도는 강릉의 ‘강(江)’자와 원주의 ‘원(原)’자를 하나씩 따서 명명되었다. 이때는 조선이 건국되고 얼마 되지 않은 1395년(태조 4년)으로, 원주는 강원도의 수부로서 행정·치안·사회·문화 등의 중심지가 되었다.
-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들어서기 2년 전인 1895년에 전국이 23부 337군 제도로 개편되면서 원주는 영월·정선·평창 등과 함께 충주부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896년에는 강원도·경기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평안도·함경도·황해도 등 팔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전국을 13도 1목 7부 331군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때 원주에 있던 강원도 감영은 춘천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 이후 원주는 동과 면에 대한 지명이 몇 차례 바뀌었으나 관할구역은 크게 변동이 없다가 1955년 9월 1일 원주군 중 원주읍 일원 및 판부면 단구리·행구리, 호저면 우산리를 편입하여 행구동·단구동·우산동을 증설하여 18개 동으로 원주시로 승격하고 나머지 구역을 원성군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다가 원주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970년에는 학성동·태장동·봉산동을 각각 2개 동으로 분동하였고, 1973년에는 원성군 호저면 가현리를 원주시에 편입하여 가현동, 흥업면 무실리 일원을 편입하여 무실동, 판부면 관설리를 편입하여 관설동, 판부면 반곡리를 편입하여 반곡동이라 하였다.
- 1989년에는 원성군을 원주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5년에는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라 하고 9면 18동인 소초면·호저면·지정면·문막면·부론면·귀래면·흥업면·판부면·신림면, 중앙동·평원동·원동·인동·개운동·명륜동·단구동·일산동·학성동·단계동·우산동·태장동·가현동·봉산·무실동·행구동·관설동·반곡동 등을 관할하였다. 1995년에는 문막면이 문막읍으로 승격하였고, 이후 몇몇 동이 편입 등 구역조정을 거쳐 현재 원주시는 1읍 8면 16동에 36만여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하였다.¹⁾
-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주시는 1955년부터는 원주시와 원성군,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원주시와 원주군 등 행정상 두 개 지역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이들은 도시와 시골 또는 동과 읍·면 그리고 리 등과 같이 행정에 따라 구분된 것에 지니지 않는다. 물론 도시는 시골에 비해 생활이나 교통 등 여러 가지에서 편리한 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한동안 원주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성군 및 원주군은 원주시와 역사·문화적으로 다르지 않다.
- 이러한 사정은 원주문화원에서 1976년에 발행한 『원주·원성향토지』를 통해

1) 이상의 내용은 원주시청 사이트의 연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https://www.wonju.go.kr/www/contents.do?key=231&>)

서도 알 수 있다. 1955년 원주읍이 중심이 되어 원주시로 승격하였으나 ‘향토지’를 만들에 있어 당시 원주시 이야기만 정리하지 않고 원성군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했는데, 이는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임을 밝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 원주지역 답사를 다녀보면 특정한 몇 곳을 제외하고는 다르지 않다.

- 원주시의 무속을 살피려면 지역의 많은 무속인을 만나 강신무 또는 세습무인지, 곳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현재 원주시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은 몇 명이며 무녀와 박수 등의 비율은 어떠한지? 나아가서 지역에서는 경객(經客)·경쟁이(經쟁이)·독경법사(讀經法師)·법사(法師)·복술(卜術)·복술이(卜術이)·송경법사(誦經法師)·심방·판수(判數)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무속인의 호칭 중에 무엇 선호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많은 사항들을 정리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 함에 아쉬움이 있다.
- 무속은 무당의 풍속을 이르는 말인데, 이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여자 무당은 만신, 남자 무당은 박수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요즘은 무당을 무속인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²⁾ 그리고 원주시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은 7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그동안 원주지역 무속에 대한 자료들이 어디에 어떠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서 원주시에서 태어나 무업에 종사하는 무속인과 수십 년 동안 원주시에서 무속활동을 한 무속인 몇 분을 만나 원주지역 무속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원주지역 무속에 대한 기록

- 원주지역 무속을 정리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현존하는 자료 또한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 있으므로 내용의 중복도 존재한다. 이렇듯 자료가 많지 않은 까닭은 그동안 원주지역 무속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속 연구를 위해서는 무속인들이 다루는 악기, 무복, 굿, 그리고 노래 및 사설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정리된 자료는 흔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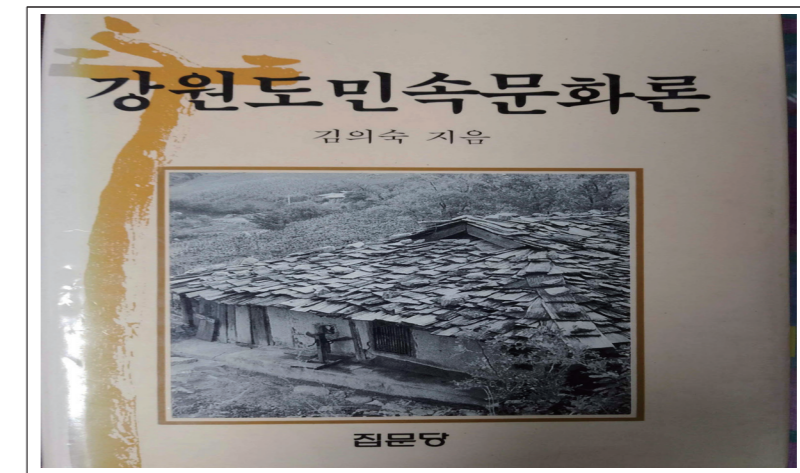
2.1 『명심보감』 편찬자 추적(秋適)의 원주무속에 대한 글

- 고려 충렬왕 때 사람으로 『명심보감』을 편찬한 추적(秋適)의 글을 소개한 내

2) 원주시에서 세 명의 무당을 만났는데 여성 무당의 경우 명함에 ‘무속인 박○○’, 남자 무당의 경우 대화할 때는 ‘법사’라 호칭하면서도 명함에는 ‘무속인 노○○’이라 새겨있다.

용이 있다.

香燈處處皆祈佛 곳곳에 향 피워 부처께 기도하고
 簫鼓家家盡賽神 집집마다 소고 울려 푸닥거리 하건만
 惟有數間夫子廟 오로지 두어칸 공자님 사당엔
 滿庭春草寂無人 봄풀만 가득차 인적이 없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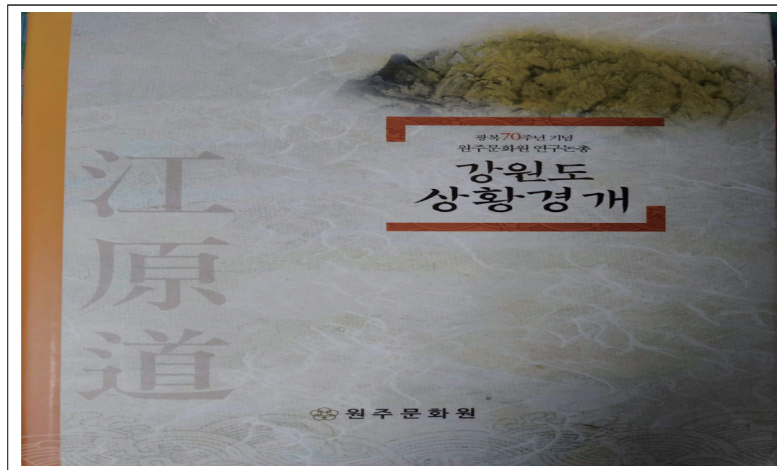
<사진17> 『강원도 민속문화론』

- 고려 제 25대 왕인 충렬왕은 재위기간이 1274년~1308년이니, 이 재위기간에 추적이 『명심보감』을 편찬한 것이다. 추적은 1246년에 용인시에서 태어났으나, 한때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살았으며, 이 글은 당시 원주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 위의 밑줄 친 “집집마다 소고 울려 푸닥거리 하건만”이라는 글을 살피면, ‘소고(簫鼓)’와 ‘푸닥거리’가 등장한다. 푸닥거리는 무당이 음식을 차려놓고 부정풀이, 살풀이 등과 같이 굿하는 것을 이른다. 굿을 할 때면 무반주 진행하지 않고 흥을 돋우기 위한 반주가 따르는데, 이때 사용하는 악기가 당시에는 소고, 곧 피리와 북이다. 굿은 무당의 춤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무당과 더불어 악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무당이 악사의 반주에 맞춰 굿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당시 무당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활동하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원주지역 가정에서는 무당과 악사들이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굿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한다.

3) 김의숙, 「원주지역의 민속문화」, 『강원도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525~526쪽. ; 김의숙,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원주의 민속」, 강원도·원주시·사단법인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557~558.

2.2 『강원도 상황경개』의 강원무속⁴⁾

- 『강원도 상황경개』는 강원도 헌병대 본부에서 1913년에 편찬한 것인데, 이를 2015년에 원주문화원에서 번역을 하였다. 『강원도 상황경개』에는 강원도의 연혁·지리·기상·경찰·위생·민적과 거주·폭도·교통과 통신·종교·교육·산업·금융·재정·풍속과 관습·명승고적·잡(雜) 등 모두 1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에 따라 2절~13절의 주제로 글을 정리하고 있다. 13장 ‘풍속과 관습’의 제2절 ‘조선인의 질병요법과 미신’에서 ‘미신치료’에서 무속으로 치료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때 전염병에 걸렸을 때 무격을 불러 고사를 지냈다는 내용의 글이 있다.



<사진18> 강원도 상황경개

- 내용을 소개함에 있어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강원도에서 이뤄지는 무속은 원주지역의 무속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 책에서는 ‘미신치료’라는 제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무격의 기도>

- ① 병중에 병마 퇴치를 기도할 때 재산이 있는 집은 부근의 사단(社壇)에서 하고, 보통은 자택에서 한다. 그때 무녀는 종자를 데리고 간다. 종자는 가족과 지인을 정해진 자리에 앉히고, 연못과 산에서 나온 음식을 바친다. 종자는 술병 또는 바구니를 가지고 앉는다. 이것이 병마를 들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무녀는 맹렬하게 춤을 추다가 병마에 빙의하여 여러 병마의 이름을 부른다. 이 병마를 향하여 병마를 고쳐줄 것을 부르짖는다. 병마는 무녀의 입을 빌어 병자에게서 병의 기운을 제거할 것을 약속한다. 무녀는 갑자기 미친 상태에서 일변하여 평상의 얼굴로 돌아온다.

- ② 무녀는 환자에게 독경구조(讀經句調)로서 기도한다. 복숭아나무로 만든 두 척 정도의 막대기를 가지고 나는 신장(神將)이라고 크게 소리치고 종과 큰북을 난타하면서 병자의 등을 때린다. 이렇게 하기를 사흘 밤낮으로 하여 병마를 독 속에 쑤셔 넣고 강 속에 버린다.
- ③ 무녀는 거목(巨木)과 기석(奇石) 아래에 공물을 설치하고 종이를 태워서 예배 기도하여 병마를 쫓아낸다.⁵⁾

- 위에서 ①은 무녀가 병을 퇴치하기 위한 곳을 하고, ②는 복숭이 경을 읽으며 귀신을 잡아 가두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③은 무녀가 제물을 진설하고 고사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서는 무녀와 복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무녀’라고 칭하고 있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무당과 복술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무녀는 곳을 하여 귀신을 쫓는다면 복술은 경을 읽어 귀신을 잡아 통에 가두어 땅에 묻어버린다.

2.3 『조선의 무격』의 원주지역 무속⁶⁾

- 『조선의 무격』은 무라야마 지준이 1932년에 발행한 책인데, 각 지방의 경찰서의 지원으로 전국의 무속에 관한 각종 자료를 모아 정리하였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라야마가 직접 지역을 답사하기도 했다. 특히 강원도 및 원주지역을 답사하여 무속인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 먼저 무속인을 가리키는 호칭인 ‘무칭(巫稱) 분포’를 전국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원주지역의 무속인에 대한 호칭도 정리되어 있다. 1930년 8월 현재 전국의 무칭(巫稱)은 지역에 따라 같거나 차이가 있는데, 원주에서는 무당·무당(巫黨)·무당(巫堂)·무당(巫唐)·점장·박수·정정(丁班)·경객(經客) 등 8개의 호칭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강원도에서 철원지역과 함께 가장 많은 호칭수이다.⁷⁾

4) 『강원도 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5) 위의 책, 252~253쪽.

6) 무라야마 지준 지음, 최길성·박호원 옮김, 『조선의 무격』, 민속원, 2014.

7) 위의 책, 78쪽. 이를 통해 당시에도 원주지역에 무속인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무속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한다.



<사진19> 『조선의 무격』

- 이어서 무격이 된 동기인 ‘성무(成巫) 동기’에 대하여 정리하였는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무라야마가 원주에 직접 와서 질문을 하여 정리한 까닭에 다른 지역보다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성무 동기>

원주에서는 신병으로 영감하여 성무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 학습은 대부분 독학으로 익힌다. 두 번째로 생업을 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맹인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수업을 한다. 세 번째로 세습으로 성무를 한 경우인데 가정에서 배운다. 네 번째로 좋아서 하는 경우로 1년 이상 견학한다.⁸⁾

참고로 이웃한 영월은 세습 → 생업(맹), 횡성은 영감 → 생업(맹)이고, 춘천은 영감 → 생업 → 무가 되면 행복해서이고, 홍천은 세습 → 생업(맹), 정선은 세습 → 생업, 평창은 세습 → 영감 → 생업(맹), 강릉은 세습 → 영감, 삼척은 세습 → 생업(맹) → 영감 → 호기심, 고성은 세습 → 생업(맹) → 영감, 양양은 세습 → 생업, 삼척은 세습 → 생업(맹) → 영감 → 호기심, 울진은 세습 → 생업(맹) 등등이다.⁹⁾

- 이상과 같이 무속인이 된 동기와 수업 방식, 수업기간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처럼 무속인이 된 동기를 무속인에게 직접 질문하여 정리하기란 지금도 쉽지 않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들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 각 군에 있는 경찰서의 도움을 받은 결과라 이해한다.
- 여기서 강원도 원주의 무녀 17명, 남무 20명에 대해 실제로 조사된 내용을 통해 성무 동기와 수업 기간의 장단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¹⁰⁾

8) 위의 책, 2014, 110쪽.
9) 위의 책, 109~110쪽.

동기	오래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무당의 기도로 완쾌되고 이때 신이 들어와 무당이 된 자	10명
	자급이나 노력이 들지 않으므로 무당이 된 자	17명
	신을 받아 무당이 된 자	4명
	세습	3명
	취미로 된 자	3명
수업	3년	3명
	2년	7명
	1년	10명
	견학으로	6명
	책으로	6명
	독학으로	5명

<표6> 원주지역 무격의 성무 동기 및 수업기간

- 이것은 단지 무속인이 된 동기와 무속 수업 기간의 한 예를 든 것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무속인이 되는 상황의 일면은 엿볼 수 있을 것이다.¹¹⁾ 물론 당시 원주지역에 무속인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1930년 8월 기준으로 강원도의 무속인은 887명이었고, 전국적으로는 12,380명이 무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¹²⁾
- 여기에서 ‘자급이나 노력이 들지 않으므로 무당이 된 자’가 37명 중에 17명으로 가장 많다. 아울러 ‘취미로 된 자’ 3명을 포함하면 20명이 되는데, 이는 전체의 54%에 해당한다. 물론 돈을 쉽게 벌려고 무속인이 된 것과 취미로 무속인이 된 것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강신무나 세습무가 아닌 학습을 통해서 무속인이 된 경우로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들은 곳을 진행하는 무속인보다 운수나 점을 치는 점쟁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무격의 기도 및 점복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무라야마는 1930년

10) 1930년 경찰 보고 자료에도 강원도 원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원주의 조사 내용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을 무라야마가 직접 조사한 적이 있으므로 이때 조사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경상도와 함께 강원도 해안 지역을 조사한 해는 1927년이고, 이때 주로 이 지역의 별신제를 견문하였다. 원주 조사도 아마 이 기간에 이뤄졌을 것이다. 그리고 원주의 무녀 17명과 남무 20명에 대한 조사는 당시 조사 여건상 무라야마가 이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이뤄졌다고보다는, 행정력을 통해 미리 이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하여 조사한 것일 수 있다.(위의 책, 117쪽 각주2.)
11) 무라야마 지준 지음, 최길성·박호원 옮김, 『조선의 무격』, 민속원, 2014, 117~118쪽.
12) 위의 책, 57~58쪽.

전국 경찰서에서 받은 보고 내용을 그대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원주지역 것만 따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무격이 주로 행하는 기도·점복의 종류>

칠성기도, 서죽(筮竹)기도, 부채점복, 굿, 신기(神奇), 독경¹³⁾

- 서죽은 무속에서 점치는 데 쓰는 댓개비를 이르는데, 댓개비는 대를 쪼개어 잘게 다듬은 개비이다. 그래서 댓개비는 보통 산통에 넣어 점을 치는 산가지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조선 각지에서 행해지는 무격의 기도 및 점복 방법에 대하여 1930년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¹⁴⁾ 여기에서도 원주지역 것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무당이 주로 행하는 방법>¹⁵⁾

- 칠성기도 : 칠성신에게 물·술·백미·떡·금전 등을 바쳐 복을 울리며 독송하면서 환자의 병 낫기를 빈다(단 무당만 한다).
- 점대점복 : 점대를 사용하여 운세·병 등을 판단한다.
- 상[膳]점복 : 상에 백미를 올려 신전에 바쳐 독경하며, 이 쌀을 쥐어 홀수·짝수에 따라 판단한다.
- 신 부림[神寄] : 실내에 금줄을 치고 많은 제물을 차려 여러 신의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면서 기도한다.
- 병마 퇴치 : 기도로 마귀를 구멍을 판 방망이에 넣고 뚜껑을 잘 덮어 깊은 내에 던진다. 그런 후 다시 꺼내 병을 치료한다. 사람의 혼을 건져내는 것이다.¹⁶⁾

- 무당과 박수가 벌이는 굿이 귀신을 물리치어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잡아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기능만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주민들은 굿을 오락으로 향유하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굿을 진행하였다. 정월에 가신을 제사하여 1년의 행운을 비는 안택굿을 했고, 10월에는 대감굿을 하여 행운을 빌었고, 산신제·성황제 등을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이렇듯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굿을

13) 위의 책, 245쪽.

14) 이 보고서는 각 경찰서가 보고한 내용을 도별로 정리하여 보고한 것 같다. 그것은 도별로 정리한 특징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보고에서는 기도와 점복을 a, b로 분류한 데 비해 충청북도에서는 1, 2, 3으로 분류한 것에서 알 수 있다.(위의 책 280쪽.)

15) 이 질문서에서 종(鐘)은 '치다', '두드리다', '울리다'로 한 것으로 보아 징(鉦)으로 번역하였다. 주로 질문지에 기도와 점복을 경찰관이 묻고 제보자가 그에 대답하는 식으로 보고된 것이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굿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의례를 가리킨다.(위의 책 281쪽.)

16) 무라야마 지준 지음, 최길성·박호원 옮김, 『조선의 무격』, 민속원, 2014, 305쪽.

향유하지 않는다면 굿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무라야마는 조선의 무격이 얼마나 민간에 요구됐는지를 1930년 6월에 조사한 전국 각지의 신무(信巫)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주지역 것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⁷⁾

<각지의 신무(信巫)¹⁸⁾ 상황>

일반적으로 하층이 신뢰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한약 등으로 쉽게 낫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전염병 등과 같은 병의 원인이 명백할 때에도 여전히 점복을 구하고 기도에 의하는 등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상당히 유식자들도 이들에게 병의 치료를 맡기거나 괴이한 일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신에 의존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자가 많다.¹⁹⁾

- 현대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약 또한 다양한 치료제가 생산되어 웬만한 병은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된다. 하지만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치료제가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는 없으니, 치료제는 물론 병명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첨단과학 시대에 사는 현대인이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종교에 귀의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무속의 힘을 빌려 굿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속인은 물론 무속 신앙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무속에 너무 의지한 까닭에 병을 더 악화시키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신뢰를 넘어 맹신에 가까운 것이다. 무라야마도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여 ‘무격의 공과(功過)’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무격의 공과(功過)>

- 생활에서의 공(여러 기능을 갖고 민간의 수요에 응하여 그 생활을 도운 공)
- 문화에서의 공(예전부터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를 보유하여 전해온 공)
- 위생에서의 과(위생관의 발달을 저해하고 의료를 멸시하는 폐)
- 경제에서의 과(양재구복²⁰⁾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낭비하여 빈곤에 빠지게 한 폐)
- 사상에서의 과(운명관에 구속되어 퇴보적인 성정을 길들인 폐)²¹⁾

17) 위의 책, 326~338쪽 참조.

18) 信巫 즉 무속을 어느 정도 신앙하는가를 말한다.(위의 책, 338쪽 각주14.)

19) 위의 책, 349쪽.

20) 양재구복(禳災求福)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행위.

21) 위의 책, 371쪽.

- 이와 같이 무라야마는 조선 전역의 무속의 폐단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현재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끔 뉴스에 부정적으로 나오는 무속인이 있다. ‘굿을 해야 집안의 어려움을 없앨 수 있다.’, ‘굿값이 비싸다.’, ‘굿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현혹시켜 굿을 진행케 하는 것이다. 원주지역의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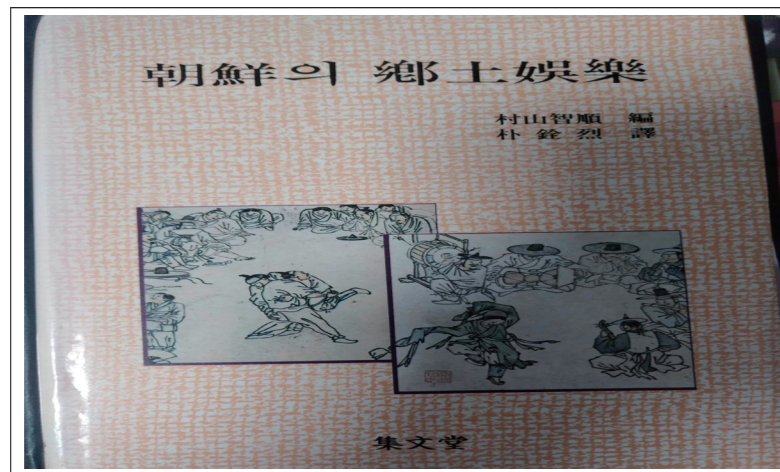
<조선 전역의 무폐(巫弊)>²²⁾

구체적인 사례는 없어도 자주 기도료라 하여 부당한 보수를 받고 전혀 근거 없는 미신적인 언사를 행하므로 의료를 방해하고 위생사상의 발달을 저해하는 일이 있다.²³⁾

- 원주지역의 무속 폐해도 다른 지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울러 이들 내용은 위에서 살폈던 <무격의 공과> 내용과 다르지 않다.

2.4 『조선의 향토오락』의 원주지역 무속²⁴⁾

- 『조선의 향토오락』은 1936년에 각 도지사에게 전국 각지의 향토오락 조사를 의뢰하여 얻은 자료이다. 무라야마는 이를 정리하여 1941년에 출판하였다. 여기에 원주무속 관련 자료가 풍부하지 않지만 별신과 관련된 언급이 있다.



<사진20> 『조선의 향토오락』

- “굿(별신) 7월 무녀”²⁵⁾와 같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7월에 별신을 하는데 무

22) 1930년 6월 현재 각지의 무폐 상황이다.(위의 책, 403쪽.)

23) 위의 책, 4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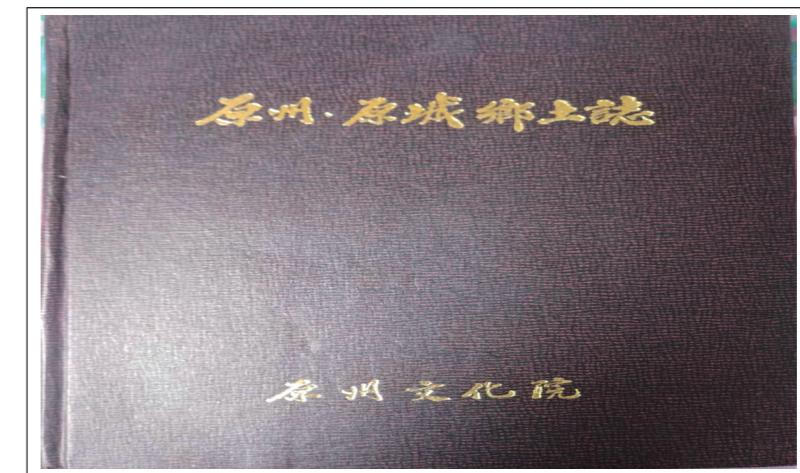
24) 무라야마지준 편, 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녀가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한다.

- 무라야마는 『조선의 향토오락』을 발행하기 전에, 앞에서 살폈던 『조선의 무격』을 먼저 발행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무격』을 정리하기 위하여 원주를 방문하여 무속인을 만났다. 그럼에도 원주지역 계절 풍속의 내용은 초라하다. 이는 『조선의 향토오락』의 경우 무라야마가 개인적으로 얻은 자료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도지사들이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기 때문이라 이해한다.

2.5 『원주·원성 향토지』의 원주지역 무속²⁶⁾

- 원주지역에서 발행한 책이지만 무속에 대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원주·원성 향토지』에서는 ‘무속’에 대한 직접적인 글은 없고 ‘삼재 면하는 법’안택제(安宅祭)를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보름前날부터 각가지 飲食을 차려놓고 巫堂과 소경을 불러 安宅經을 읽으며 家神禁를²⁷⁾ 지내는데 이것은 一年동안의 災厄招福을 비는 것이다.”²⁸⁾고 정리하고 있다.



<사진21> 『원주·원성 향토지』

- 그리고 ‘토속신앙’의 제목으로 무속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무속인 수에 대하여 “193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2,380명에 달하며 그 중에 3할이 박수이고 7할이 무당으로 되어 있으며 1900년에 한국에서 무교 때문에 사용된 연간 비용이 약 250만불에 해당했던 것이다.”와 같은 정리

25) 위의 책, 393쪽.

26) 『원주·원성 향토지』, 원주문화원, 1976, 456~459쪽.

27) ‘家神禁를’는 ‘家神祭를’의 오타로 이해한다.

28) 위의 책, 117쪽.

하였다. 그리고 무당들의 활동으로 종교행위로 본 까닭인지 ‘무교(巫敎)’라 표현하여 이들의 기능을 정리하고 있다. “무교(巫敎)를 기능별로 살펴본다면 양재(禳災)[치병기도·제액기도·무주(巫呪)·금기], 기복(祈福)[기은제(祈恩祭)·기우제·기자제·성황제·안택제], 점복(占卜)” 등으로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다.²⁹⁾ 이들을 설명하면서도 원주지역 무속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것이 원주지역의 무속을 정리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 점복에서 아래와 같이 별신제를 설명하고 있다.

원주에서 행하던 토속신앙의 하나로는 별신제(別神祭)가 있다. 이 별신제는 4월 초파일과(음력) 7월 7일 칠석에 행하였는데 별신제는 원주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고 이것도 巫굿으로 시종(始終)하나 원주의 축제로서 여흥과 오락이 곁들여 있었다. 치악산 정상에도 석탑을 쌓고 기도처(祈禱處)를 만들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원주에서는 산신제를 치악제라고 하는데 원주군수가 제주가 되어 치악산 시루봉에서 10월에 지내고 봉화제(烽火祭)는 원주시장이 제주가 되어 원주시 ‘봉살미’에서 12월 31일과 익년(翌年) 1월 1일 영시(零時)를 기하여 이 제사는 불법(佛法)으로 고축(告祝)하는 일들은 일반제향(一般祭享)과 흡사한 데가 있다. 이상과 같은 토속신앙이나 무속은 현대에 이르러 소멸했거나 변형된 것이 있으나 봉화제와 치악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³⁰⁾

- 별신이라면 동해안 어촌마을에서 3~4년마다 실시하는 곳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원주에서는 위의 내용처럼 해마다 ‘별신제’를 진행했다고 한다. 물론 장이 처음 서는 날을 기해 ‘별신’을 열기도 한다. 장이 처음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마스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서커스, 줄타기, 야바위, 약장사, 음식장사 등등 난장을 펼쳐 색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호객한다. 그리고 별신이 열릴 때면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끌기 위하여 밤에도 영업을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에서 “별신굿이라는 것은 시장이 새로 설 때 또는 예전에 시장에서 몇 년거리로 하던 곳을 별신굿 또는 난장굿 또는 시장굿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10여 년 전까지도 인제군 원통에서도 했는데 예전에는 시장이 설 때 한번 하면 15일씩까지도 했고, 씨름 그네도박판 술장수들이 모여들고 인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와글그렸고, 밤에도 놀음들은 계속되던 것인데, 지금의 강릉단오굿도 본래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했다.”는 강릉시 최경태(48세, 남부) 무속인이 설명을 정리하고 있다.³¹⁾

2.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의 원주지역 무속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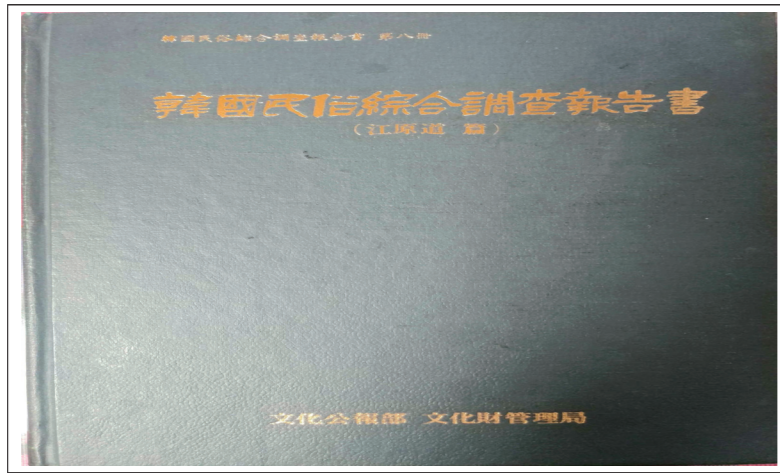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에서는 강원도 영동과 영서지역의 무속을 소개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고성군 도성면 교암리,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사천면 사천지리,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인제군 북면 용대2리, 홍천군 서면 팔봉1리,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등 8개 지역을 표본으로 마을에서 무속인의 활동에 대해 조사·정리하였다. 그리고 무당굿에 ‘마을 공동굿’과 ‘개인 가정굿’으로 나누고, 마을 공동굿은 강릉 단오제 관련 굿에 대해 집중하였다. 나아가서 강원도 지역의 무당 분포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에서 원주지역 무속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된 것은 대한승공경신연합회(경신회) 강원도지회 회장 이종립(남, 47세)으로부터 제공받은 강원도 경신회원 일람표이다. 이 일람표에 의하면, 원주지역에는 소위 철학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운수나 관상 등을 보는 철학이 20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박수무당이 10명으로 이 또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다. 만신도 245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고, 점술도 25명으로 가장 많다.
- 물론 강릉지역은 강릉과 묵호 그리고 주문진을 구분해서 정리하였기에 원주지역이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강릉지역을 모두 합하면 만신이 594명이므로 원주지역과 차이가 많다. 좀 더 자세하게 따지면, 원주지역의 철학은 강릉지역 세 곳을 합한 것보다 1명이 더 많고, 박수는 10명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점술은 강릉지역 세 곳을 합하여 27명으로 원주지역보다 2명이 더 많다.

29) 위의 책, 457쪽.

30) 위의 책, 459쪽.

31) 장주근,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187쪽.

32) 장주근,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172~219쪽. 장주근은 많은 면을 활용하여 무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만, 원주지역에 대한 내용은 일람표에 정리된 것이 전부이다.



<사진2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지부별	종류별 통계					지부별	종류별 통계				
	철학	박수	만신	점술	계		철학	박수	만신	점술	계
춘천	10	5	225	10	250	목호	8	3	224	15	250
홍천	3	4	138	5	150	강릉	10	5	225	10	250
횡성	-	-	47	3	50	주문진	1	2	145	2	150
원주	20	10	245	25	300	속초	4	3	230	13	250
영월	3	5	140	2	150	고성	2	1	142	5	150
정선	2	3	137	8	150	양구	1	2	75	3	80
평창	-	-	45	5	50	인제	2	1	112	5	120
장성	2	4	179	15	200	가평	1	1	80	3	85
삼척	2	3	85	10	100	계	70	52	2,474	139	2,735

<표7> 경신회 강원도지회 현황 일람표³³⁾

○ 일람표에 의하면 2,735명의 90%가 만신(또는 보살)이 되어있다. 이들은 대개가 다 이른바 열두거리 곳을 하는 강신무이다. 속초 해안의 풍속으로는 쾌자(快子) 하나만 걸치고 곳을 하는 예가 많지만 영서지방은 다 열두거리 복색을 갖추며, 신어머니를 찾아서 강신무들이 배우며, 그렇게 사제계승으로 무풍(巫風)을 계승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무속도 기본적으로는 서울지방의 그것과 같다. 다만, 동해안지방에서는 거기에 일부 극소수의 세습성을 띤 비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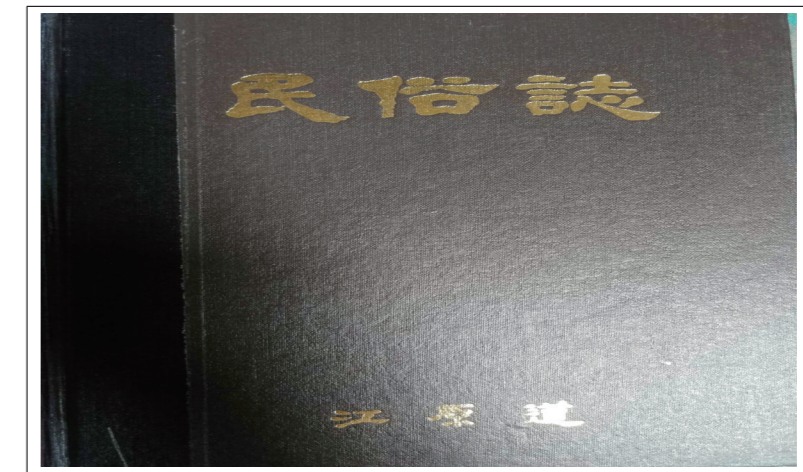
33) 위의 책, 173쪽.

신무(非降神巫)로서 지방말로 이른바 ‘화랭이패’라는 특수한 혈연적인 집단들이 있다 할 것이다.

- 다음에 5%를 차지하는 점술(占術)이라는 종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문(經文)같은 또는 주문(呪文)같은 것을 횡설수설하는 선부른 보살들이다. 이들도 익숙해지면 다 곳을 하게 되는 존재들로서 근본적으로 이들은 보살(또는 萬神)들과 큰 차 있는 것이 아니다. 90%의 만신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런 점술 단계의 존재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 다음에 박수라는 것도 서울지방의 남자무당과 꼭 같은 강신무이며 열두거리의 가무사제무(歌舞司祭巫)이다. 그리고 여기 ‘철학’이라고 한 것은 사주, 관상, 궁합, 택일, 작명, 신수 등을 보는 사람들로서 흔히 민간신앙종사자들이 ‘철학가(哲學家)’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다.³⁴⁾

2.7 『민속지』의 원주지역 무속³⁵⁾

- 『민속지』에서는 ‘무속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무당, 무당의 분류, 무당의 분포, 곳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곳은 다시 개인곳·공동곳·탈곳[탈곳·범곳(호탈곳)]·팔봉산(홍천) 당곳 등으로 구분하여 살피고 있으나³⁶⁾ 원주지역 무속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사진23> 『민속지』

2.8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의 원주지역 무속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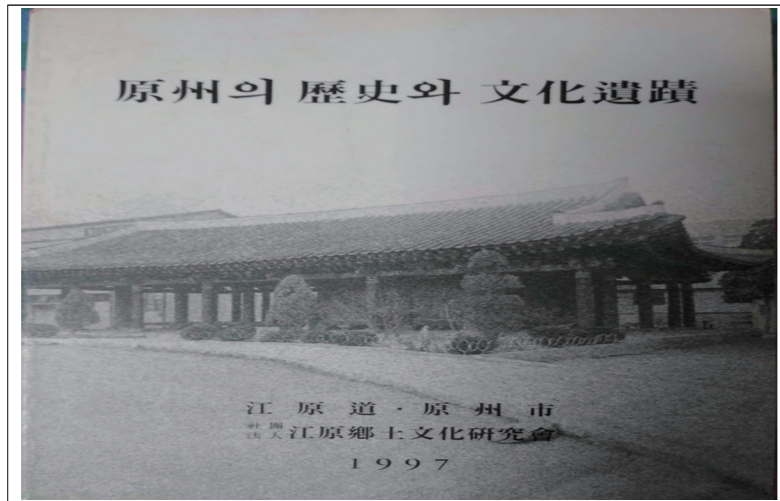
34) 위의 책, 173쪽.

35) 『원주·원성 향토지』, 원주문화원, 1976, 456~459쪽.

36) 위의 책, 321~326쪽.

○ 원주지역의 민속신앙을 정리하면서 ‘무속’의 제목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글의 양도 아주 적고 내용은 『강원도 민속문화론』에 정리한 것과 다르지 않다. 곧 원주지역의 무속 관련 기록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명심보감』을 쓴 추적이 풍속을 읊은 시를 정리한 다음, “신소설인 이인직의 『치악산』 하편 첫머리에는 당시 원주군 단구에 여러 곳의 무당과 판수가 몰려들어 조합을 설립하였다고 하였다. 픽션이라도 사실이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원주의 무속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인용한다.”고 설명하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봄에 꽃맞이, 가을에 단풍맞이, 귀자발원 제수발원 벼슬발원 양주불화살 풀이, 병든 사람 액맥이, 죽는 사람 앞길 열기, 선왕잡기, 악귀쫓기, 대감놀이, 푸닥거리, 무꾸리, 노구메 등으로 무론 사철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며 나며 오고 가는 사람이 길에 연락부절하여……. 그리도 싸고 술하던 무당패·판수패 떼짓고 패지어 강원도 우너주군 단구역말로 꾸역꾸역 모여들어 그 동네에 무당 판수 조합 하나를 설립하였더라³⁸⁾



<사진24> 『강원도 민속문화론』

2.9 『원주시사』의 원주지역 무속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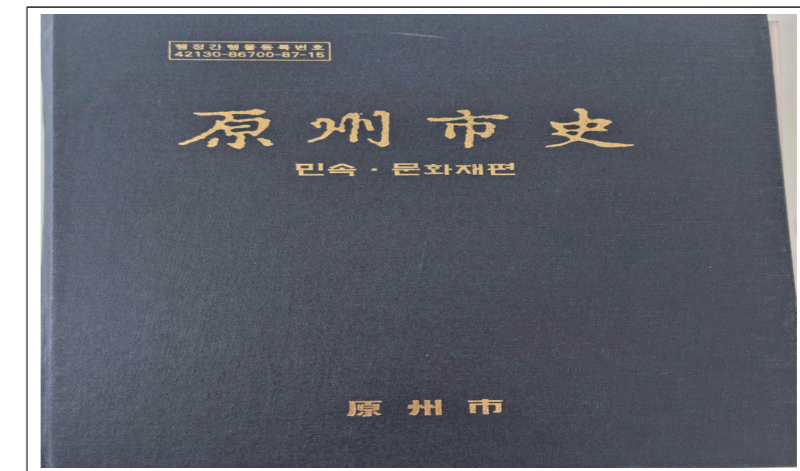
○ 『원주시사』를 편찬하던 2000년을 기준으로 대략 2년 전인 1998년에 『원주시사』 ‘무속’을 글쓴이가 경신회 원주지회(지회장 이승남)에 의뢰하여 회원 수

37) 김의숙, 「원주의 민속문화」,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원주시·사단법인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557~558쪽.

38) 위의 글, 558쪽.

39)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원주시사』, 민속·문화재편, 원주시, 2000, 149~153쪽.

를 파악하였다. 당시 원주지역 무속인 등록회원은 150명으로 이중에 남자 무속인은 20명 안팎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원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은 25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⁴⁰⁾ 이는 1977년에 발행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의 원주지역 등록 무속인 300명보다 적다.



<사진25> 『원주시사』

1) 공동굿

- 현재 원주에서 치러지고 있는 굿들 중에서 대표적인 부락공동체의 굿을 꼽는다면 원주 치악제 행사의 하나로 매년 열리고 있는 <무속제>이다. 이 무속제는 원주 치악제가 시작되는 해부터 시작하여 1998년 현재 17회째를 기록하고 있다.
- 1998년 무속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원주천 둔치에서 열렸는데 보살 26명, 법사라고 불리는 박수 7명이 굿에 참여했다. 풍물은 장구 1, 바라 1, 징 1, 북 1이었는데 재비는 따로 없이 무당과 박수가 번갈아 가면서 풍물을 잡았고 굿도 무당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도 굿에 나섰다. 남자는 도사거리·산신거리·장군거리 등에 주로 나섰다. 장군거리에서는 임진왜란이나 한말 의병을 일으켰을 때 원주지역에서 전사한 장군의 한풀이 굿을 곁들여 열두거리의 굿을 치렀다.⁴¹⁾ 원주 치악제 무속제의 굿거리는 다음과 같다.

- ① 부정거리 ② 감흥거리 ③ 칠성거리 ④ 불사거리 ⑤ 도사거리

40) 위의 책, 149~150쪽.

41) 위의 책, 150~151쪽. 여기의 내용을 발췌·정리하였다.

- ⑥ 선녀거리 ⑦ 산신거리 ⑧ 신장거리 ⑨ 장군거리 ⑩ 대감거리
⑪ 대신거리 ⑫ 동자거리 ⑬ 조상거리

- 10여 거리의 굿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0시간이 넘었다. 이 무속제에서는 무속인들과 인연이 있는 가정에서 등을 달았는데 1개에 5천 원씩 하는 연등이 3천여 개나 됐다. 원주 무속인들의 호칭이 박수를 ‘법사’로, 무당을 ‘보살’로 돼 있는 것도 불교의 영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⁴²⁾

2) 개인굿

- 공동체를 위한 굿은 원주 치악제의 무속제의를 제외하면 현재 이루어지는 굿의 예는 없다. 별신굿이나 성황굿이 그 자취를 이미 감추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굿은 가끔 치러지는데 제일 성행하는 굿은 재수굿과 우환굿이다. 상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축원굿을 재수굿이라 하며, 집안에 병자가 있어 우환이 끊이지 않으며 병을 낫게 해달라는 소망을 무속인을 통해 비는 굿을 우환굿이라고 한다.
- 재수굿을 해달라는 청을 받으면 박수나 무당은 먼저 굿당을 정한다. 전에는 굿을 원하는 사람 집에서 굿을 치렀으나 요즘은 주택가에서 굿을 할 수 없으므로 굿당을 찾는다. 굿을 맡은 무속인이 신당(神堂)을 갖고 있으면 그곳을 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을 찾는다. 판부면 금대리골을 찾기도 하고 멀리는 충청북도 제천의 금수산 굿당을 찾기도 한다. 이승남의 경우는 호저면 용곡리에 신당이 있어서 이곳에서 굿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꼴은 굿을 한다고 한다.
- 굿당에는 먼저 신명상을 차리는데 이것은 굿을 사제하는 무속인의 신을 위한 상이다. 그리고 굿을 의뢰한 재가의 조상상을 차리고 산신상도 차린다. 때로는 성황상도 차린다. 제상에는 돼지머리나 통돼지, 일곱 색의 과일·백설기·콩시루떡·팥시루떡·전·포·나물 등을 진설한다. 조상상에는 피와 갯을 놓는다. 진설이 끝나면 굿에 들어가는데

- ① 부정거리를 한 다음 ② 감홍거리 ③ 칠성거리 ④ 불사거리 ⑤ 도사거리
⑥ 선녀거리 ⑦ 산신거리 ⑧ 신장거리 ⑨ 장군거리 ⑩ 대감거리

- 위의 순서로 열두거리의 굿을 한다.⁴³⁾ 특히 재수굿의 경우는 대감거리를 흡족

할 만큼 하는데 이때 공수를 많이 하게 된다. 대감거리는 집안의 터주를 비롯하여 여러 신의 힘을 빌려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굿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재수굿은 조상거리를 끝으로 마감한다. 열두거리의 굿을 마치는 데는 대개 10~12시간이 걸린다. 이 굿에는 대개 6명 정도의 박수와 무당이 함께 굿을 진행한다. 열두거리의 굿을 하는데 재가에서 받는 상값(굿값)은 2백만 원에서 2백50만 원 정도가 통례이다. 그러나 큰굿의 경우는 3일굿, 5일굿을 하며 상값도 굿의 날수에 따라 달라진다.⁴⁴⁾

3) 내림굿과 가계(家系)

- 특정한 사람에 신이 내려 만신이나 박수가 되기 위해 치루는 굿을 내림굿이라 한다. 강신무(降神巫)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 내림굿인데 내림굿을 주재한 무당이나 박수가 내림굿을 받은 사람이 신어머니나 신아버지가 되는 관계를 맺게 된다. 내림굿을 받은 신생 강신무는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를 통해 굿의 절차와 형식을 배우게 된다.⁴⁵⁾
- 경신연합회 원주·횡성지회장인 이승남(남, 55세)은 강신무인데 6년 전인 49세에 강신하여 무속인이 됐다. 그의 부인 김영선(44세)도 강신무로 남편보다 2년 먼저 강신했다고 한다. 김영선은 내림굿을 해 준 원래의 신어머니와 반년도 못 되어 헤어졌다. 내림굿을 해준 신어머니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굿을 잘 모르는 데서 생기는 갈등 때문이라 한다. 그의 남편인 이승남은 최병렬(62세, 남, 학성1동)과 그의 아내 이은자(47세)가 신아버지이고 신어머니라 한다.
- 이승남은 이들에게서 굿의 절차와 형식을 배웠다고 한다. 강신무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승남도 선굿을 많이 하는데 그는 스스로 강신하자마자 바로 ‘말문이 터졌다’고 한다. 이를테면 신의 소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승남은 전주 이씨로 7대째 원주에서 살아 원주 토박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조상이 한이 많아 무속인이 된 것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이승남은 무속인으로서 ‘자기를 불러주는 신’은 조상신이라고 한다. 굿을 하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이 자기의 몸을 빌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승남의 경우처럼 원주 지역 무격의 대부분은 강신무임으로 무격인들 사이에 내림굿을 매개로 한 일종의 가계(家系)관계가 이루어진다.

43) 위의 공동굿 열두거리와 비교하면 순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굿의 문서도 같은지 알 수가 없다.

44) 위의 책, 151~152쪽.

45) 위의 책, 152쪽.

42) 위의 책, 151쪽.

○ 원주지역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만신을 든다면, 아래와 같다.

- 송명숙(72세, 봉산2동) 이옥례(65세, 개운동)
- 최배자(57세, 학성1동) 정옥교(55세, 봉산1동)

- 송명숙과 이옥례는 서울에서 강신하여 30여년을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원주에서 강신하여 이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최배자와 정옥교이다. 최배자는 24세에 강신하여 30여년을 활동하고 있다. 최배자의 신아버지는 1982년께 작고한 강릉 구정 출신의 무속인 정연호인데 그는 정옥교의 친부이다. 최배자와 정옥교는 이를테면 한 신아버지 밑에서 굿을 배운 사이이다. 정옥교는 26세에 강신했으나 굿을 안하여고 한때 무속계와 인연을 끊었으나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해서 51세에 다시 굿을 시작해 6년째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정옥교의 경우는 세습무라 볼 수 있으나 스스로 내림굿을 받은 강신무라고 한다.
- 원주지방에서 자기를 내세우며 활동하고 있는 무속인들은 대부분 강신무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강신무들이기 때문에 무속인들 선후배 사이에 내림굿을 통하여 신부자, 신모자라는 특수한 관계를 갖게 된다. 원주지방 굿에는 장구·바라·징·북 등 네 가지 악기를 주로 쓰고 있지만 내림굿의 경우에는 쟁과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굿에서의 풍물과 다른 점이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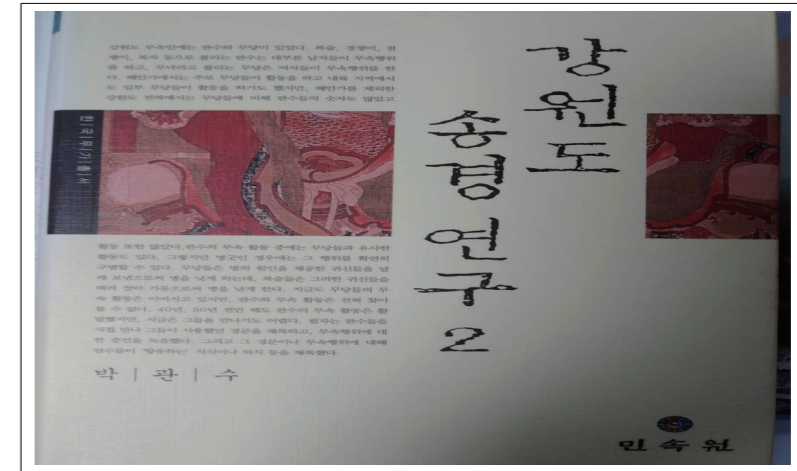
2.10 『강원도 송경 연구2』의 원주지역 무속⁴⁷⁾

- 『강원도 송경 연구2』에서는 태장동 청량사 주지 허남축의 생애사와 경문을 소개하고 있다. 허남축은 2006년 현재 71살로 강원도 홍천군 노천에서 태어나 14살에 자운으로 이사를 갔다. 가난하여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야학에서 18일 정도 국문을 배웠을 뿐이다. 14살에 처음으로 신장대를 잡았다. 마을에서 경 읽는 곳에 구경을 갔는데, 누가 장대를 잡으라고 하여 대를 잡았더니, 바로 대가 실렸다. 17살에 부모상을 당했다.⁴⁸⁾ 24살에 군대를 제대했다. 25살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솔치로 이사 갔다. 28살에 경을 읽기 시작했다. 32살부터 부처님을 모시기 시작했다. 38살에는 황성군 공근면 학담1리로 이사를 와 5년간 경 읽다가 남에게 굽실거리고 하대를 받는 것이 싫어 5년간 막노동을 하며 먹고 살았다. 48살에 원주시 태장동으로 이사와 청량사를 설립했다.

46) 위의 책, 153쪽.

47) 박관수, 『강원도 송경 연구2』, 민속원, 2006. 213~281쪽. 허남축 복술에 대한 조사는 2004년, 2005년에 진행했다.

48) 허남축 아버지는 불구였기에 복술을 해서 먹고살기 위해 문서를 배웠다고 한다.(위의 책, 227쪽 각주 19.)



<사진26> 『강원도 송경 연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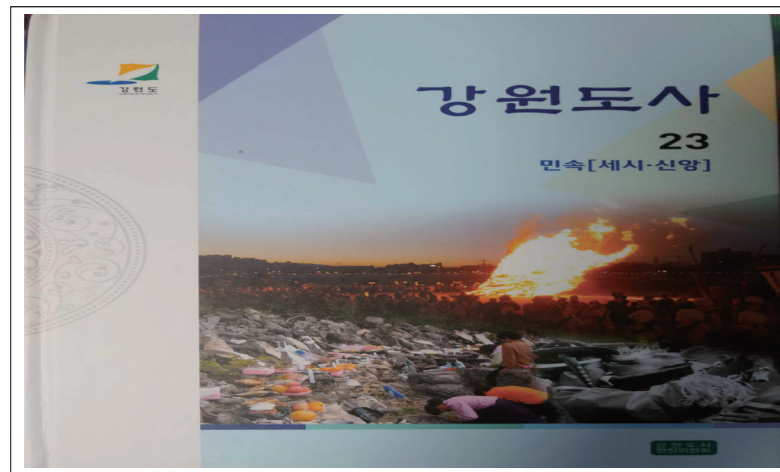
- 원주에 와서는 경신회 회장으로 활동한 최병렬과 함께 치악문화제에서 15년 동안 귀신잡이를 공연했다. 그리고 귀신잡이로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민속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타기도 했다고 한다.⁴⁹⁾ 지금도 귀신을 잡으러 가면, 불경을 독경하지 않고 복술 경문을 읽는다. 불경을 읽으면, 귀신을 잡을 수 없다.⁵⁰⁾
- 여기에는 허남축의 무속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경문은 옥추경에 옥추스문, 정심심주왈, 증구신주왈, 중심신주왈, 안토지신축왈, 증천지해예주왈, 개경현원주왈, 분향주왈, 원천강주문. 옥갑경에 옥갑경은 귀멸망, 천존은 청사, 천존을 청사, 천존을 청사, 천존을 청사, 천존을 청사, 천존을 청사. 신장편. 동신장편. 대철망경. 진철망경. 대세경은 귀멸망. 봉황경. 발원경. 화류경. 보신경. 태을보신경. 구경보신경. 산신경. 가택 고사 축원문. 제석경. 성조지신 축원문. 흠향고축 모든 신위께 잘 바드시라는 뜻. 삼신경은 중생에 경 수명장수경. 병당경은 가정 맑게 달라는 경. 단시점 등 모두 22가지 경문을 소개하고 있다.

49) 최병렬이 강원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한 것은 제5회인 1987년으로 추측되는데, 이때는 홍천공설운동장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따라서 춘천이라는 것은 착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때 <음무현뉘풀이>란 작품으로 출연하였는데, 무인(武人)의 놀이가 행해지던 음무현(音舞峴)이란 고장이 있어 이곳에서 행해지던 굿판 중 일부를 뽑아 구성했다. 1987년 제5회 강원민속경연대회는 홍천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원주시에서는 지도 황주의(원주문화원장), 고증 최병렬, 30명(남15, 여15)이 출연하였다.

50) [041006] 옛날에는 부처님이 첫째이고, 토속신이 둘째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처님은 한국에 파견 나온 신이고, 산신은 대한민국 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산신이 첫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산신각에 먼저 들어가 기도하고, 법당에 들어가 기도한다. 신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렇지만 법당에 먼저 들어가도 제지하지 않는다. 산신각에 가면 '산신경' 읽고, 칠성각에 가면 '칠성경' 읽고, 방생을 하기 위해 용왕에 가면, '물축원'을 해야 한다. 고사에 가면, '고사반'을 해야 한다. 칠성, 산신, 용왕, 신장, 조상은 금, 목, 수, 화, 토 오행으로 이 다섯 신이 없으면 안 된다. [051115] 여래종 중경 스님인 신관석은 칠성은 북두칠성으로 천신이고, 산신은 지신이고, 용왕은 물의 신이고, 천존, 장군 등과 같은 신장은 우주의 신이고, 조상은 조상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오행신 이외에는 잡신이라고 했다.(위의 책, 228쪽 각주 21.)

2.11 『강원도사』의 원주지역 무속⁵¹⁾

- 『강원도사』에 원주무속에 대한 내용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장주근(장주근, 「무속」,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과 무라야마 지준(무라야마 지준 지음, 최길성·박호원 옮김, 『조선의 무격』, 민속원, 2014.)의 글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살폈던 내용과 중복되기도 한다.
- 무속신앙은 사제의 성격에 따라 강신무권과 세습무권으로 나뉜다. 그런데 한강이북, 백두대간 이서지역은 강신무권이고 한강이남, 백두대간 이동지역은 세습무권에 속하는 것이다. 신들림 현상은 전국에서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세습무권에도 신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역시 무업에 종사하였다. 다만 세습무권에 사는 신들린 사람들은 점을 치거나 간단한 푸닥거리에 그쳤을 뿐 무속신앙의 근간이 되는 본격적인 굿은 하지 못했다. 적어도 갑오개혁으로 계급이 타파된 19세기 말까지는 이런 현상이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²⁾



<사진27> 『강원도사』

- 강원도는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영서와 영동으로 나뉜다. 무속문화 역시 두 지역이 판이하게 다르다. 영서는 신들린 무당을 중심으로, 영동 해안지역은 세습무를 중심으로 신앙이 발달했던 것이다. 영서지역의 강신무들은 경기지역의 굿과 유사하지만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굿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역량은 영동지역의 세습무나 가까운 서울·경기지역 강신무에 비해 상당히 떨어

진다.⁵³⁾

- 장주근은 1970년대에 강원도의 무속현장을 조사한 바가 있다. 당시 조사에 의하면 강원도는 대부분 강신무들이 굿을 하고 있었다. 신긋하는 무당 가운데 세습무는 해안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10~20% 정도에 불과했다. 동해안무당들은 주로 쾌자 하나만 걸치고 굿을 하지만 영서지역은 신에 따라 무복을 갈아입으면서 굿을 한다. 이들은 신어머니를 찾아 굿을 배운다면서 강원도 무속은 기본적으로 서울지역의 그것과 같다고 보았다. 강신무에 비해 동해안 세습무들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⁵⁴⁾
- 그러나 지금까지도 영서지역의 굿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영서지역의 무속은 계보가 뚜렷하고 신화나 사설의 내용이 풍부하며 예술성을 갖춘 세습무들의 동해안굿에 밀려 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영서지역 강신무들은 대부분 모시는 신격이나 제차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무당이 자신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몸주나 어릴 때 죽은 동자신이 들어와 공수를 주는 즉흥적인 굿을 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서울·경기지역 굿과의 유사성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독경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무업의 대를 이어왔음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독경은 딱히 영서지역뿐 아니라 백두대간 아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발달했던 무속신앙이다. 그러나 영서지역은 산촌이 아닌 평야지대에서도 독경을 많이 했다. 다행히 최근 독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⁵⁵⁾

3

원주지역 무속 연구 현황

-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무속 연구도 기초조사가 이뤄진 후에야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주지역 무속 조사는 충분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나아가서 아직 원주지역 무속 관련 보고서는 물론 전문 학술지도 발간되지 않았다. 이처럼 원주지역 무속의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연구는 엄두를 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국악 연구자가 원주지역 안택경을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51) 황루시, 「무속신앙」, 『강원도사』 23, 강원도도사편찬위원회, 2018. 603~670쪽.

52) 위의 책, 6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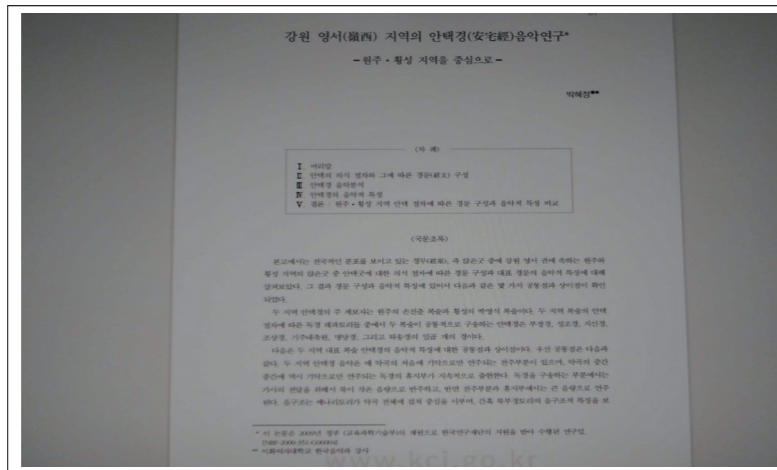
53) 위의 책, 603쪽.

54) 위의 책, 604쪽.

55) 위의 책, 604쪽.

3.1 「강원 영서(嶺西) 지역의 안택경(安宅經)음악연구」 -원주 횡성 지역을 중심으로-56)

- 「강원 영서(嶺西) 지역의 안택경(安宅經)음악연구」는 원주지역 무속과 관련하여 음악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현재까지 원주지역 무속을 논문으로 작성한 것은 이 글이 유일하다. 물론 원주지역 무속 전부가 아닌 안택경 중 부정경·조왕경·성조경·조상경(조상회심곡) 등의 4개의 경문을 중심으로 횡성지역의 복술과 비교한 것이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원주지역 복술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진28> 「강원 영서(嶺西) 지역의 안택경(安宅經)음악연구」

- 안택 의식은 충청도의 경우 곳 연행자인 법사가 처음에 조왕, 즉 부엌에서 경을 읽기 시작하여 장독대인 장광으로, 그리고 안방, 대문 앞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충청도 안택은 청원(請願)→축원(祝願)→안정(安靖)→퇴신(退神)과 같이 크게 네 개의 절차로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원주의 경우는 모든 안택의식을 한 장소(안방이나 대청마루)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식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경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곳을 청한 가정의 법식에 따른다고 한다.⁵⁷⁾
- 원주 손진춘 복술은 안택 시 대부분 한 석(席)에서만 진행되는 강원 지역 다른 복술들과는 다르게 충청 지역의 경우와 같이 조왕에서 시작하여 장광, 안방, 문

56) 박혜정, 「강원 영서(嶺西) 지역의 안택경(安宅經)음악연구」 -원주 횡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48집, 한국국악학회, 2010.
57) 위의 글, 175쪽.

밖의 네 석에서 경문을 구송한다. 물론 곳을 청한 가정의 법식(法式)에 따라서 대청이나 안방의 한 장소에서만 안택경을 구송하기도 한다.⁵⁸⁾

경문 구송 순서	절차에 따른 안택경 레파토리
1	부정경
2	성주경
3	토주지신경
4	조상경
5	삼신경
6	흠양고축경
7	축원
8	명당경
9	퇴송경

<표8> 원주 허남축 복술의 안택경 구송 절차⁵⁹⁾

안택경 구송 순서	안택경 구송 장소	절차에 따른 안택경 레파토리
1	조왕(부엌)	부정경, 보신경, 보소경, 분향축원(신령축원), 조왕경, 명당경
2	장광(장독대)	터주경, 지신경, 당산경, 칠성축원, 산신축원, 용궁축원, 명당경
3	안방	보신경, 보소경, 분향축원, 기주네축원(호구별상경과 삼신경 포함), 성조경, 명당경//첫번째 축 체석경//두번째 축 조상경//세번째 축 성주대가림, 명당경
4	대문 밖(내전)	퇴송경 혹은 향마진언

<표9> 원주 손진춘 복술의 안택경 구송 절차⁶⁰⁾

58) 위의 글, 177쪽.
59) 위의 글, 177쪽.
60) 위의 글, 179쪽.

안택경 구송 순서	안택경 구송 장소	절차에 따른 안택경 레파토리
1	안방	기주네축원, 존신(토주지신경), 조왕경, 조상경, 삼신경, 보신경, 해원경
2	문 밖(내전)	퇴신경

<표10> <횡성 김응삼 복술의 안택경 구송 절차>⁶¹⁾

안택경 구송 순서	절차에 따른 안택경 레파토리
1	고하는경
2	축원(기주네축원)
3	육주문
4	부정풀이(부정경)
5	명당경
6	조상경
7	조왕경
8	지신경(토주지신경)
9	보신경
10	살경
11	성주경
12	삼신경

<표11> <횡성 박영식 복술의 안택경 구송 절차>⁶²⁾

- 안택경의 음조적은 강원 지역 일반 민속음악의 경우와 같이 메나리토리의 음구조가 주를 이루며, 간혹 경기도 한강 이북 지방의 토리인 북부경토리의 특징이 보이고 있다. 다만 성조경에서만 잠깐 남부경토리 음구조의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⁶³⁾
- 원주 허남축 복술과 손진춘 복술의 안택 절차에 따른 독경 레파토리는 허 복술의 경우는 모두 아홉 개, 손 복술은 모두 스물 두 개이다. 이 중 두 복술이 공

61) 위의 글, 180쪽.
62) 위의 글, 182쪽.
63) 위의 글, 209쪽.

통적으로 구송하는 안택경은 부정경, 성조경, 지신경, 조상경, 기주네축원, 명당경, 그리고 퇴송경의 일곱 개의 경이다. 특히 손 복술의 경우에는 네 석으로 옮겨가면서 안택을 구송하였는데, 이는 충청도 법사들의 안택 의식 절차와 동일하다.⁶⁴⁾

4 원주지역의 열두거리

- 원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은 신내림을 통하여 강신무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그리고 원주지역은 “신발이 좋고, 치약산이 여신령이잖아요. 여신령이 샘이 많아서 잘 불러준다. 그래서 손님이 많다.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와요.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⁶⁵⁾와 같이 외지에서 온 무속인이 많음을 설명한다. “누구 말마따나 굿판이 무속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온 사람, 전라도에서 온 사람, 경기도에서 온 사람 근데 각 도의 굿이 틀리잖아요. 강원도굿 틀리고, 경기도굿 틀리고. 이러면 이게 원주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원주굿을 배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열두거리를 다 하는 거는 원주밖에 없어요. 열두거리를 알뜰히 다 하는 거는 원주밖에 없어. 전국을 보면. (얼마나 걸리나요?) 2박 3일 잡아야지.”⁶⁶⁾
- 열두거리 굿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 “영서지역은 다 열두거리 복색을 갖추며, 신어머니를 찾아서 강신무들이 배우고, 그렇게 사제계승으로 무풍(巫風)을 계승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무속도 기본적으로는 서울지방의 그것과 같다.”⁶⁷⁾고 한다. 그리고 무복은 제차(祭次)가 바뀔 때마다 갈아입는데, 열두거리를 준비하려면 20여 벌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 이럴 때마다 옷이 바뀌나요?) 그렇죠. (그러면 옷을 도대체 몇 벌을 준비하셔야 해요?) 옷이 거반 한 20벌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의상이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마련을?) 사는 거야. 그게 지금 비싸지. 서울에서 제자가 처음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백만 원씩, 한 천만 원 이상씩 든다고 하더라고. 옷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⁶⁸⁾

- 이렇듯 원주무속의 열두거리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원주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64) 위의 글, 209쪽.
65) 무속인 박○○(여, 66세. 2022.06.29. 인터뷰)
66) 무속인 박○○(여, 66세. 2022.06.29. 인터뷰)
67) 장주근,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173쪽.
68) 무속인 최○○(남, 73세. 2022.06.29. 인터뷰)

이라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무속인은 강신 무 또는 학습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굿을 하는 무속인은 강신무가 중심을 이룬다.⁶⁹⁾ 원주지역은 강신무가 중심을 이루어 굿을 하지만, 이들 중에는 굿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공수와 접치는 것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도 굿을 배우려고 하는데, 신어머니가 제대로 굿을 지도할 능력이 못되면 “내림굿을 해 준 원래의 신어머니와 반년도 못되어 헤어졌다. 내림굿을 해준 신어머니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굿을 잘 모르는 데서 생기는 갈등 때문이라 한다.”⁷⁰⁾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러한 까닭에 <원주치악제> 때 공동굿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배 무속인 또는 신어머니가 굿 경험이 없는 무속인을 모아서 가르쳤다고 한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한 달씩 가르치다가 그다음에는 20일, 그다음에 보름. 이런 식으로. 그때는 연세들이 다 많으셔서가지고. 그래서 한 달씩 가르쳤고. 또 이제 세월이 가니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20일로 줄었지. 그래가지고 또 좀 젊은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보름으로 줄었어요. 제일 짧게 가르치는 게 보름을 가르쳤어요. 열두거리 뛰는 게 다 다르잖아요.⁷¹⁾

- 경력이 오래고 나이가 있는 무속인이라도 공수와 접치기만 했다면 굿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굿을 할 줄 아는 무당이 나서서 선배 무당을 가르친다. 때로는 선배 무당이 후배에게 배운다는 것이 속상하여 제대로 따라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화가 난 것처럼 자리를 뜨면 선배들이 박○○ 무당의 별명인 뺨순이를 부르며 “뺨순아, 빨리 와서 가르치지 않고 어디 가냐!”고 하면서 자신을 달래기도 했다고 한다.
- 원주지역 무속인들은 이와 같이 <원주치악제>를 통해 공동굿의 경험을 쌓는다. 물론 회사나 돈이 많은 가정에서 굿을 할 때도 여러 무속인을 모아 굿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때도 출신지역 무속인끼리 모여서 굿을 경우가 많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관계는 이제 자기네 분야에서 부르지. 경기도서 이제 이사를 왔으면 경기무당, 안산에서 왔다 그러면 안산 무당을 부르는 거지. 이런 식이 되는 거지.”⁷²⁾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어머니가 누구며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에 따라 굿이 달라진다. 사정이 이리함에도 다행인 것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주지역 무속인들은 <원주치악제> <치악

산 산신제>인 <무속제>를 통해 원주지역의 열두거리를 만들고 다듬었다.

- 원주지역 열두거리에 대한 언급은 앞에서 살폈던 몇몇 문헌에서 밝히고 있지만, 열두거리 제차를 정리한 곳은 『원주시사』가 유일하다. 여기서는 공동굿과 개인굿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열두거리의 진행은 다르지 않다.⁷³⁾ 그리고 무속인 최○○은 열두거리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굿거리 순서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에 그 부정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고 부정이 끝난다면 이제 다른 데하고는 원주가 틀려요. 다른 데는 또 틀려요. 그래서 원래는 부정을 끝나고 나면 원래 천존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원주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칠성을 받아요. 칠성을 놀아요. 그러니까 칠성을 놓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불사를 놓고, 불사를 놀리면서 제석을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녀. 그것도 그때 내 다 만들었을 텐데. 그다음에는 이제 도사하고 산신하고, 다음에는 장군하고 거기서 삼신에서 성향으로도 놓고 해야 하고 용왕도 놀아야 해. 그 장군 놓고 그다음에는 신장을 놀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감 놀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주도 놀아야 되고, 성주 놓고 나서 이제 별상 놀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창부도 놀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신 놀아야 되고, 동자 놀아야 되고. 그걸 전수 이거 해서 보낸 거예요.⁷⁴⁾

- 아울러 200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된 <제22회 원주치악제> ‘치악산 산신제’를 알리는 팸플릿에 부정굿, 천존굿 등과 같이 ‘굿’이라 칭하여 20개 제차(祭次)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굿’은 ‘거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므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69) 모두 여성 무당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주지역에서 공동으로 굿을 할 때는 남성인 박수무당과 독경을 하는 복술도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복술이 박수무당은 아니다. 최○○의 경우 열두거리 가운데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춤을 추지만, 본인은 무당이 아니라 복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최○○, 남, 73세, 2022.06.29. 인터뷰)

70)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원주시사』, 민속·문화재단, 원주시, 2000, 153쪽.

71) 무속인 박○○(여, 66세, 2022.06.29. 인터뷰)

72) 무속인 박○○(여, 66세, 2022.06.29. 인터뷰)

73) 물론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동굿과 개인굿은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에 개인굿이 공동굿 제차(祭次) 수보다 적다.

74) 무속인 최○○(남, 73세, 2022.06.29. 인터뷰) 무속인 최○○은 1980년에 사우디로 돈벌러갔다가 신병을 앓아 1983년에 200여일을 산에 다니며 학습을 하여 스스로 무속인이 되었다고 한다. “저는 좌경을 많이 했어요.”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였는데, 옆에 있던 무속인 박○○은 “좌경도 많이 하시고, 선거리도 하시고. 귀신잡이도 하시고.”와 같이 설명하였다. 따라서 무속인 최○○은 복술과 박수를 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서	1) 원주시사 공동굿 열두거리	2) 원주시사 개인굿 열두거리	3) 최○○ 열두거리	4) 원주치약제 열두거리
1	부정거리	부정거리를 한 다음	부정거리	부정굿
2	감홍거리	감홍거리	칠성거리	천존굿
3	칠성거리	칠성거리	불사거리	칠성굿
4	불사거리	불사거리	제석거리	불사굿
5	도사거리	도사거리	선녀거리	제석굿
6	선녀거리	선녀거리	도사거리	선녀굿
7	산신거리	산신거리	산신거리	도사굿
8	신장거리	신장거리	장군거리	산신굿
9	장군거리	장군거리	삼신거리	장군굿
10	대감거리	대감거리	성황거리	신장굿
11	대신거리		용왕거리	대감굿
12	동자거리		신장거리	별상굿
13	조상거리		대감거리	삼신굿
14			성주거리	성황굿
15			별상거리	용왕굿
16			창부거리	성주굿
17			대신거리	창부굿
18			동자거리	대신굿
19				동자굿
20				조상굿

<표12> 원주지역 열두거리

○ <원주지역 열두거리>는 <부정거리>를 시작으로 굿이 진행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데, 이는 굿이 시작할 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굿의 시작에 부정굿이나 부정거리가 빠지면 굿의 의례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1)과 2)의 열두거리는 진행을 같이 하다가 2)에서는 <대신거리>, <동자거리>, <조상거리> 등 뒤의 3개 제차는 차이가 있다. 2)의 열두거리에 이들 3개 제차가 빠진 것은 개인굿이기에 줄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동굿은 개인굿보다 제차가 늘어난다. 그러나 3)에서는 18거리, 4)에서는 20거리

로 정리하고 있는데, 열두거리는 반드시 열두거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열두거리는 굿의 목적이나 굿의 규모에 따라 십여 거리에서 이십여 거리까지 구성된다. 따라서 1), 2), 3), 4)의 열두거리에서 제차(祭次) 차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 그리고 3)과 4)의 경우는 제차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제차는 순서가 바뀌고 있다. 3)에서는 용왕거리가 신장거리보다 앞서 진행하는데, 4)에서는 신장굿이 용왕굿보다 앞서서 진행하고, 3)에서는 별상거리가 성주거리 다음에 진행하는데, 4)에서는 별상굿이 성주굿에 앞서 진행한다. 이와 같이 제차의 진행 순서가 다른 것은 굿에서 거리는 비교적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중간의 거리를 생략하여도 굿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시 말하면, 거리는 독립된 신들을 모시는 형식으로 여러 신들을 불러서 굿이 진행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 물론 이렇듯 굿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여러 신들을 불러서 좌정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굿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무속인들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만 시작할 때 부정거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 열두거리 가운데 하나의 거리를 진행하면 거기에 모시는 신에 따르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무가와 무복(巫服)으로 나타나는데, 원주지역 또한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무속인의 무복을 보고 어떤 굿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으므로 무복이 달라졌으면 거리 또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⁷⁵⁾ 그리고 굿에서 한 거리가 끝나고 다음 거리로 넘어갈 때는 쉬는 시간이 있다. 무녀들도 옷을 갈아입는 등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때는 악사들도 연주하지 않아 한 거리가 끝났음을 뚜렷이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쉬지 않고 거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럴 때에도 무복은 바뀐다. 무복 갈아입는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으면 무복을 겹쳐 입고 거리에 따라 걸의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굿을 진행한다.⁷⁶⁾ 아니면 거리에 따라 무녀를 바꿔서 진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원주치약제> <무속제> 때에는 30여 명이 함께하여 열두거리를 진행했는지도 모른다.⁷⁷⁾
- 1998년 제17회 <원주치약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원주천 둔치에서 열렸는데, “여기에는 보살 26명, 법사라고 불리는 박수 7명이 굿에 참여했다. 풍물은 장구 1, 바라 1, 징 1, 북 1이었는데 재비는 따로 없이 무당과 박수가 번갈아 가면서 풍물을 잡았고 굿도 무당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도 굿을 함께

75) 아울러 거리 때마다 부르는 무가가 있으나 원주지역의 무가에 대한 문헌은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76) <원주치약제>의 <무속제>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열두거리마다 옷을 다 갈아입지만, 일반 굿에서는 시간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관련 의대를 여러 개 걸쳐 입어요. 무속인 노○○(남, 54세, 2022.11.18. 인터뷰)

77) 무속인 최○○(남, 73세, 2022.06.29. 인터뷰)

진행하는데, 박수는 도사거리·산신거리·장군거리 등에 주로 나섰다.”⁷⁸⁾

- 2003년 제22회 <원주치악제> ‘치악산 산신제’의 <무속제>는 ‘(사)한국무형무속인협회 강원도지회 원주지부’가 주최하여 진행하였는데, 원주지역 무속인들은 무속인 박○○이 꾸민 안무에 맞춰 한 달 또는 보름 정도 연습했다고 한다. 이때 신어머니와 신딸이 함께 연습을 하면서 제물 진설하는 것도 알려주기도 한다.
- (사)한국무형무속인협회에 앞서 ‘대한승공경신연합회(경신회)’가 있었는데, 이들 단체는 모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새로운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한국무형무속인협회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현재 원주지역에는 무속인들의 모임 단체는 없다. 이에 몇몇 무속인들은 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치악산 산신제> 자료는 위의 표 <원주지역 열두거리>에 정리한 ‘원주치악제 열두거리’가 그것인데, 당시 <원주치악제>를 홍보하고 <치악산 산신제> 행사를 알리기 위한 팸플릿에는 20개의 제차를 소개하고 이들 제차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다행인 것은 당시 팸플릿과 더불어 열두거리를 하는 모습을 담은 일부 사진이 남아있다.⁷⁹⁾

<부정굿>·<천존굿>·<칠성굿>·<불사굿>·<제석굿>·<선녀굿>·<도사굿>·<산신굿>·<장군굿>·<신장굿>·<대감굿>·<별상굿>·<삼신굿>·<성황굿>·<용왕굿>·<성주굿>·<창부굿>·<대신굿>·<동자굿>·<조상굿>⁸⁰⁾

- <부정굿>은 굿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굿청을 정화함으로써 신을 청할 준비를 하는 의례이다. 부정거리 또는 부정풀이라고도 하는데, 원주지역에서는 부정거리 또는 부정굿이라 표현한다.
- <천존굿>은 만물의 시작이며 인간의 삶, 수확을 비롯하여 우주를 지배하는 지고신(至高神)인 하늘님(하늘님)을 모시는 굿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은 기우제나 역병, 재앙, 병충해 따위가 전국에 돌 때 이를 막고 제거하기 위해 베풀어지는 굿이다.

78)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원주시사』, 민속·문화재편, 원주시, 2000, 151쪽.
 79) 팸플릿과 사진은 최명환 선생이 제공하였다. 기록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며 고마움을 표한다.
 80) 여기서 ‘굿’은 제차의 ‘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굿>은 <부정거리>를 의미한다. 이하 <천존굿>, <칠성굿> 등등은 <천존거리>, <칠성거리>와 같은 의미이다.



<사진29> 천존굿을 하는 장면

- <칠성굿>은 북두칠성·남해육성·동두사성·서해팔성을 모시는 굿으로 칠성은 출산·육아·수명을 맡아본다. 칠성굿은 전국적으로 전승 분포를 보이지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독립된 굿이 아니라 큰굿의 한 제차로 행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자 무당인 박수도 무녀들 사이에서 함께 굿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30> 칠성굿을 하는 장면

- <불사굿>은 <칠성굿>을 마친 후 진행되는데, 이는 불교적 색채를 띤 복신(福神)을 위한 굿이다. 이는 원래 다리굿에 앞서 행하는 열두거리 굿의 셋째 거리로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입고 흰 고깔을 쓴 채 연행한다.⁸¹⁾

- <제석굿>은 제석을 청배하여 복덕을 축원하는 곳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천존 곳>이라고도 한다. 제석은 세상의 중앙에 솟은 가장 높은 산인 수미산 꼭대기에 거주하며 풍농과 재운을 관장한다고 하는데, 가정의 번창과 자손의 수복(壽福)을 축원한다. 진도지역에서 제석굿은 무녀가 한복 위에 장삼을 걸치고, 목에 염주를 걸고, 머리에 고깔을 쓰고 진행한다.⁸²⁾ 제석굿은 중부지방에서 불사제석굿, 동해안에서는 시준굿, 함경도에서는 생굿 등으로 불린다. 특히 제석굿은 지역에 따라 성격이 다소 차이를 보이거나 불교적 색채가 가장 강한 곳거리라는 특징이 있다.
- <선녀굿>은 선녀를 청배하고 복덕을 축원하는 거리인데, 공과 덕을 많이 쌓으면 죽어서 선녀가 된다고 한다. 원주지역 열두거리에서 <선녀굿>이 하나의 제차로 자리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위의 <표 7> <원주지역 열두거리>를 참고하면 네 곳 모두에 ‘선녀거리’와 ‘선녀굿’가 정리되어있다. 선녀굿은 다른 지역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차이다. 따라서 <선녀거리>는 원주지역의 독특한 제차라고 이해할 수 있다.⁸³⁾ 2003년 배말 나루터에서 진행된 <치악산 산신제>의 선녀굿과 관련된 사진이 있는데, 살펴보면 옷은 물론 요즘 무용인들이 추는 선녀춤과 다르지 않다.



<사진31> 선녀굿을 하는 장면

- <도사굿>은 도사신을 청배하여 공부를 축원하는 곳이다. 도사신을 모시면 무학

81) 김현선, 「봉화산도당굿」,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346쪽.
 82) 이경엽, 「진도씻김굿」, 위의 책, 828쪽.
 83) 선녀거리와 관련하여 무속인 노○○(남, 54세, 2022.11.18. 인터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녀거리는 애동이가 주로 했어요. 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무속인을 애동이라고 하는데, 선녀거리는 그들이 주로 합니다. 나이 많은 무속인이 선녀거리를 하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애동이가 주로 하는 거예요. 다녀보면 선녀거리를 하는 무속인이 있어요. 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도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또한 다른 지역에는 정리가 되지 않는 제차인데, 원주지역에 <도사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없다.⁸⁴⁾ 원주지역에서 도사거리는 주로 남자 무당인 박수가 진행한다고 한다.⁸⁵⁾
- <산신굿>은 산신 신령을 불러 모실 때 하는 곳이다. 산을 지키는 산신(山神)은 흔히 신선이나 호랑이 상으로 나타나며, 산신은 특히 우마(牛馬)를 보호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말이나 소를 많이 기르는 집에서는 매년 정초에 산에 가서 마소의 번식을 기원하는 곳을 한다. 원주지역에서는 산신굿 또한 주로 남자 무당인 박수가 진행한다.⁸⁶⁾
- <장군굿>은 장군신 신령을 불러 모실 때 하는 곳으로, 장군신은 활을 쏘아서 외부로부터 오는 액을 막아준다고 한다. 장군굿은 일반적으로 별신굿에서 무녀가 놋동이를 입에 물고 장군신을 모시며, 국가를 수호하는 영웅들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무가를 연창한다.⁸⁷⁾ 원주지역에서는 주로 남자 무당인 박수가 진행한다.⁸⁸⁾
- <신장굿>은 액을 물리치기 위하여 신장신을 청배하는 것으로, 최고신인 하늘님 바로 아래 다섯 방위를 맡고 있는 신이 있는데 이들이 오방장군이다. 이들은 다섯 방위의 온갖 잡귀를 막아준다고 한다. 신장(神將)은 원래 도교의 신인데 이것이 무속과 민간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오방신장(五方神將)이라 하는데, 집이나 동네의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을 막아주는 수호신으로 모셔진다. 일반적으로 신장굿을 할 때 무복으로는 전립에 구군복을 착용하고 오방기를 들고, 현대의 무당들도 전립을 쓰고 남색이나 연두색 협수와 쾌자를 착용한다.⁸⁹⁾ 하지만 원주지역에서는 사진에서 보듯 양손에 칼을 쥐고 남녀 무당이 함께 굿을 진행한다.⁹⁰⁾

84) 도사거리와 관련하여 무속인 노○○(남, 54세, 2022.11.18. 인터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사거리는, 우리가 큰 굿을 공동행사든 개인행사든 할 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은연중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잠깐 ‘이렇게 잠깐 놓고 갑시다.’ 그래서 잠깐 노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경기도 안양 쪽에 가시면, 거기서 무슨 산에 무슨 이런 산신제를 지내는데, 거기선 선녀를 잘 노는 분이 있어. 그 선녀를 잘 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선녀를 멋있게 놀지. 그런데 원주권에서는 선녀를 잘 노는 선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85)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원주시사』, 민속·문화재단, 원주시, 2000, 151쪽. 이렇듯 ‘도사거리’를 박수가 진행할 수 있는 까닭은 원주지역에 박수는 물론 좌경을 하는 복술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1977년에 발행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 편에 원주지역에는 박수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장주근, 「무속」,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 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173쪽.)
 86) 위의 책, 151쪽.
 87) 조정현, 「영해별신굿놀이」,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695쪽.
 88)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원주시사』, 민속·문화재단, 원주시, 2000, 151쪽. 이렇듯 원주지역에서 <도사굿>, <산신굿>, <장군굿>에서 남자무당인 박수가 진행하는 것은 원주지역의 열두거리의 한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렇듯 도사, 산신, 장군은 남성을 상징하기에 박수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장군거리에서는 임진왜란이나 한말 의병을 일으켰을 때 원주지역에서 전사한 장군의 한풀이 굿을 곁들여 열두거리의 굿을 치렀다.”는 설명을 참고하면 원주지역의 열두거리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것이라 하겠다.
 89) 유효순, 「서울굿 무복」,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449쪽



<사진32> 신장굿을 하는 장면

- <대감굿>은 재수를 청하기 위해 대감신을 청배하는 것인데, 아흔 아홉 대감이 있다고 한다. 대감굿은 서울·중부지역에서 집터를 관장하고 집안의 재운(財運)을 가져다주는 신을 모시는 성격이지만, 함경도굿에서는 터주신이나 재물신의 성격보다 대감신의 무장(武將) 성격이 두드러진다. 특히 무가의 말미에 “아버지는 장군받기로 법을 내고, 어머니는 서낭받기로 법을 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장군신과 마을 수호신의 권능도 지닌 신격으로 파악된다.⁹¹⁾
- <별상굿>은 손님이라 불리는 마마를 곱게 나가게 해달라고 별상 곧 천연두신을 청배하는 곳이다. 안성무가에서 별상굿은 재수굿을 할 때 부정굿·조왕굿·산신굿·제석굿·조상굿·성주굿·대감굿·터주굿·선황거리·창부거리·걸립굿·뒗전풀이 등과 함께 거행된다.⁹²⁾ 별상신은 18세기말에 서울·경기 지역에서 형성되어 주로 이 지역에서 숭배된 것으로 여겨지며, 별상신은 무당의 신당에서 무신도(巫神圖)의 형태로 모셔진다.⁹³⁾
- <삼신굿>은 아기를 점지해주는 삼신을 청배하는 곳이다. 아기의 점지뿐만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를 수호하며 어린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 돌보는 삼신을 말한다. 삼신은 가신(家神)의 하나로 지역에 따라 ‘산신(産神)’, ‘삼신할머니’, ‘삼승할망’ 등으로 부른다. 특히 독경(讀經)에서 삼신굿은 자손이 귀한 가정에서 행하는 임시적인 곳이다. 제일은 출산 후 초이레·두이레, 세이레 중에서 택일하며, 제물은 메·청수·미역국·백설기 등이다. 기원의 내용은 산모와 유아의 건강,

90) 물론 <원주치약제> <무속제>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지만, 의대(衣禱)는 실제 굿할 때와 다르지 않다.

91) 권태효, 「대감굿무가」,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194쪽.

92) 이수자, 「불도맞이」, 위의 책, 356쪽.

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별상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3030

산모의 풍족한 모유 등이다. 굿은 태을보신경, 부정경, 축원문, 삼신경 등의 구송과 삼신받이 순으로 진행된다.⁹⁴⁾

- <성황굿>은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을 경배하는 곳이다. 성황을 일반적으로 서낭이라 부르며 그에 따른 굿의 이름도 ‘서낭굿’이라 표현한다. 성황(城隍)이라 한 것은 한자식 표기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서낭신을 모시는 서낭굿을 ‘별신굿’이라 하는 곳도 있다. 이 마을굿은 마을 공동의 제의처(祭儀處)인 서낭당에서 주민들이 제의를 올린 다음 진행되는 곳이다. 제의의 목적은 주민의 안과태평(安過太平) 및 풍농, 풍어, 치병 등을 기원하는 것이다.
- 서낭굿은 일반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음력 정초에 택일하여 시행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매년 음력 10월에 하는 곳도 있다. 서낭굿이 없는 해에도 음력 정월 혹은 10월에 택일하여 간단한 공동제의를 올리기도 한다. 서낭굿은 서낭당에서 서낭제가 끝난 후 주민들이 서낭당에 모인 상태에서 무(巫)가 굿을 주관하는데 그 제차(祭次)는 부정굿·서낭굿·조상굿·성주굿·지신굿·시준굿·산신굿·용왕굿·축원굿·거리풀이 순으로 진행된다.⁹⁵⁾



<사진33> 성황굿을 하는 장면

- <용왕굿>은 용신을 청배하여 뱃길의 안전과 풍어 그리고 가뭄을 해소하기를 바라며 하는 곳이다. 용왕은 물과 관련된 신이기에 농사와도 밀접하여 기우제를 지낼 때는 용신을 그려놓고 지낸다. 그리고 우물이나 샘이 용신의 거처로 인식하여 그곳에서 용왕제를 지내기도 한다.
- <성주굿>은 집안의 최고신인 성주에게 집안의 평안과 재운을 기원하는 곳이다.

94) 양종승, 「독경」, 위의 책, 222쪽.

95) 류종목, 「서낭」, 위의 책, 444쪽.

성주는 천신(天神)을 의미하는 상주(上主)로부터 비롯된 말로 추측된다.

- <창부굿>은 광대신인 창부씨를 청배하여 열두 달의 액을 막아주기를 바라며 하는 굿이다. 창부 또는 창부대신(倡夫大神)이라고도 불리는 창부씨는 예능 혹은 풍류를 담당하는 신이지만, 창부거리에서의 창부씨는 일 년 열두 달의 횡액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창부거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굿거리로 열두 거리굿에서 11번째에 행해진다.⁹⁶⁾
- <대신굿>은 무당과 남자 무당인 양중을 가르친 선생님을 위한 굿이다. 현대 서울곳에서 문(文)관계의 신을 모시는 대신거리는 지체 높은 영을 신으로 모시는 특성을 지닌다.⁹⁷⁾
- <동자굿>은 동자신을 모시고 굿을 하는 것인데, 동자는 옥황상제를 비롯한 높은 신령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무당에게 영력을 주는 어린아이로 형성화된 신이라 한다. 불교와 도교에서 신을 보필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는 동자는 수명장수 기원의 상징인 남극노인을 받드는 대상이다. 동자가 들이 앉아 있는 경우에는 밀동자라 이르는데, 우측의 동자는 선을, 좌측의 동자는 악을 상징한다.⁹⁸⁾
- <조상굿>은 조상을 모셔서 대접하고, 조상의 영생극락과 자손의 부귀영화를 기원한다. 조상굿은 조상신의 신격을 위한 것으로, 조상과 망자의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의 위계와 질서를 찾는 것이 중요한 절차다.⁹⁹⁾

5

원주지역 무속의 자료 정리 및 연구 과제

- 무속신앙은 무당을 주축으로 민간에 전승되는 신앙형태인데, 무속제의를 주관하는 무속인들은 무업(巫業)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강신무(降神巫)·세습무(世襲巫)·학습무(學習巫)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신무는 선배 무속인의 도움으로 신내림을 받아 무업에 종사하는 무속인이고, 세습무는 부모 또는 시부모로부터 무당의 신분이나 무직(巫職)을 물려받은 무속인이며, 학습무는 경문을 외어서 읊는 복술을 지칭할 수 있다.¹⁰⁰⁾
- 우리는 원주지역의 무속 관련 자료가 정리된 문헌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살폈다. 물론 무속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리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존의 문헌에는 원주지역 무속인들의 굿과 관련된 사항이 풍부하지

96) 허용호, 「창부씨」, 위의 책, 845쪽.

97) 유효순, 「서울굿 무복」, 위의 책, 448쪽.

98) 최진아, 「수풀련[水波蓮]」, 위의 책, 512쪽.

99) 김현선, 「새남굿」, 위의 책, 436쪽.

100) 이영식, 「민간신앙」, 『홍천군지』 중권, 홍천군청, 2018, 416쪽.

않았다. 몇 가지만 요약하면, 그동안 정리된 원주지역 무속은 점은 어떻게 치는지, 축원은 어떻게 하는지 등 무당의 공수 및 점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고, 복술은 귀신 퇴치와 관련하여 독경을 읽어 귀신을 잡아 가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 물론 독경의 경우는 박관수가 『강원도 송경 연구2』에서 태장동 청량사 주지 허남축의 생애사와 경문을 소개하였고, 박혜정이 「강원 영서(嶺西) 지역의 안택경(安宅經) 음악연구」에서 원주지역 복술의 송경을 음악적으로 분석한 후에 횡성지역의 그것과 비교하여 원주지역 복술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원주지역에는 법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여럿인데 특정한 몇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 굿을 하는 무당들의 의례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적으로 빈약하다. 다행인 것은 원주에서 2000년에 편찬한 『원주시사』에는 원주굿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는 먼저 굿당의 진설 그리고 공동굿의 열두거리와 개인굿의 제차(祭次)가 정리되어 있다. 아울러 간단하게 내림굿 사례를 소개하고 한두 명의 무속인의 가계(家系)인 무계(巫系)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굿을 할 때 무당들이 입는 무복이나 악사들의 장단 그리고 무가 및 사설 등은 정리되지 않았다.¹⁰¹⁾
- 원주지역 열두거리에 대해서는 제차만 정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항만 살폈다. “영서지역은 다 열두거리 복색을 갖추며, 신어머니를 찾아서 강신무들이 배우고, 그렇게 사계계승으로 무풍(巫風)을 계승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무속도 기본적으로는 서울지방의 그것과 같다.”¹⁰²⁾는 장주근의 설명처럼 원주지역에서 진행한 열두거리 또한 이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위의 <원주지역 열두거리>의 표에 정리된 <선녀거리>는 서울을 비롯한 여타 지역의 굿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차이다. 물론 무속인 노○○의 설명에 따르면 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동이가 주로 했다고 한다. 선녀는 젊음과 관계되는데, 나이가 많은 무속인이 하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 이란다. 그럼에도 어떻게 <선녀거리>가 원주지역 열두거리 굿에 속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열두거리에 포함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다 원주에 이주한 무속인들도 이와 같이 열두거리 굿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원주지역 열두거리에서 <도사거리>·<산신거리>·<장군거리>는 대체적으로 남자무당인 박수가 진행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흔치 않는 일이므로 원주지역 무속의 특성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¹⁰³⁾

101) 물론 원주지역 무속인들은 강신무가 중심을 이루기에 그들이 구연하는 사실은 공수된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강릉지역의 세습무 무가처럼 사실이 풍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신무의 구연 사실 또한 무속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102) 장주근,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173쪽.

- 한편 원주지역은 치악산 신이 여신이라 공수를 잘 주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무속인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원주에서 활동하는 무속은 700여 명인 것으로 추정한다.¹⁰⁴⁾ 이를 달리 해석하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른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원주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무속인을 찾는 횟수가 많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 무속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얘기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지나온 오랜 세월만큼이나 무속 또한 변화하였다. ‘영서지역의 열두거리가 서울 그것과 같다’는 설명에서 과연 영서지역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 특정 지역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원주가 그곳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원주지역의 열두거리가 서울 것과 닮았다면, <선녀거리>·<도사거리>는 서울의 열두거리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제차이다. 이러한 차이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앞으로 많은 조사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 문화는 사람을 따라 전파되어 해당지역에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원주지역에 이주한 많은 무속인 또한 자신이 배우고 익힌 무속을 가지고 원주에 내려와 활동하여 뿌리를 내리면 그것도 원주곳이 된다. 현대사회는 기성종교가 튼튼하게 자리하고 있어 무속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원주지역에서 활동하는 700여 명의 무속인이 1년 동안 만나는 주민은 몇 명이나 될까? 모르긴 해도 현재 원주인구의 1/10인 수 만여 명이 되지 않을까? 이는 원주지역의 교회와 사찰 수보다 많을 수 있다.

서울곳에서 접신하는 신이 절대적인 신이긴 하나 우리처럼 인격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곳에서 착용하는 신복은 인간이 착용하는 의복과 조형적 특성이나 착용방법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서울곳 무복은 기본 형태나 착용 방법 등이 당시 착용된 의복들과 동일하였다.¹⁰⁵⁾

- 원주는 강원감영이 있던 곳이다. 위의 설명을 참고하면 과거 원주지역 무속인들이 열두거리의 <장군거리>를 진행할 때 강원감영에 근무하던 장군의 옷을 모방하여 입었을 것이다. 우리가 원주지역의 무속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려는 목적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이 무속인 옷을 시작으로 곳의 사회사적인 부분과 문화예술적인 사항들을 두루 살피고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¹⁰⁶⁾ 이는 곧

103) 이들 제차를 반드시 박수무당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원주지역에서는 이들 제차를 대체적으로 박수무당이 진행하는 것을 강조함이다.

104) 무속인 노○○(남, 54세, 2022.11.18. 인터뷰)은 자신도 들은 얘기인데, 1,000명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 무당집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간판을 걸지 않고 활동하는 무속인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105) 유효순, 「서울곳 무복」,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448쪽.

원주지역 정체성을 살피는 것과 다르지 않다.

10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강릉단오굿’의 키워드를 넣으니 학위논문 30건, 학술논문 52건, 단행본 159건, 연구보고서 3건, 공개강의 1건 등 모두 245건이 검색되었다.

제Ⅳ장 지전살풀이의 전개

1. 지전
 2. 지전살풀이
 3. 지전살풀이의 지속
-

1

지전

1.1 기원과 형태

- 지전(紙錢)¹⁾은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는 종지로 만든 돈으로, 의례적·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인 화폐이다. 문헌상에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저전(楮錢), 예전(瘞錢), 우전(寓錢), 명전(冥錢), 육도전(六道錢), 매로전(買路錢), 노자전(路資錢), 명지(冥紙) 등으로도 나타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지전이다. 지전의 기원은 고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자료에 언급되어 있다. 이규보가 편찬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冥資인 지전의 유래는 옛 사람들이 구슬과 비단을 함께 매장하였다가 후세에 錢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이것이 鬼事に 자주 사용되자 국가에서 통화의 매물을 금지하였으므로, 唐玄宗 때 王璵에 의해 祭祀에 사용하기 시작되었다”²⁾라고 기록되어 있다.
- 그리고 김장생의 『사계전서(沙溪全書)』 중 「가례의절(家禮儀節)」에서 조씨(晁氏)의 주장을 인용한 내용에 의하면, “지전은 銀長史에서 시작되어, 漢 이후에 점차 종지로 瘞錢을 만들어 묻었다가, 唐의 王璵가 제사에 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것은 무덤에 함께 매장하는 명기(明器)로 폐백을 대신한 것이었다.”³⁾라고 한다. 8세기 중엽에 발간된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에 의하면, “중국 고대부터 장사를 지내거나 귀신에게 제사할 때는 반드시 錢을 사용했고, 魏·晉부터 비로서 紙錢을 쓰기 시작했다.”⁴⁾라고 한다. 또한 불교백과사전인 『법원주림(法苑珠林)』에 의하면, “지전은 銀長史에서 일어났는데, 洪慶善의 杜詩辨證에 이르기를 濟의 東昏侯가 귀신의 술을 좋아하여 종이를 가위질해서 돈을 만들어 束帛을 대신했으며, 唐에 와서 이 일이 성행했다.”⁵⁾라고 한다.
- 이와 같이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지전의 기원을 종합해보면, 은(殷)나라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거나, 혹은 막연하게 고대로 표현하고 한(漢: B.C.221~A.D.220) 전후에 와서 전(錢)을 사용하다가 종이가 개발된 이후인 위(魏), 진(晉) 이래로 지전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거나, 혹은 당나라 왕여(王璵)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설이 전해진다. 요컨대 지전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1) 지전의 기원이나 사용 영역 등의 내용 서술은 최진아의 「지전의 유래와 의미의 다양성」(『역사민속학』 제 45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참고.

2)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 상례, 권42하.

3) 『사계전서』, 「묘제」, 권30.

4) 『봉씨문견기』, 「지전」.

5) 『법원주림』, 「지전기우은장사」.

은(殷)은 상징적인 시기로 보이며, 보다 정확하게 지전과 유사한 의미의 의물(儀物)로 사용된 시기는 한(漢) 전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 지전은 그 사용 초기에는 실물 화폐를 사용하다가 후대에 국가의 제재로 종이로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한(漢)나라 전후로 사용했던 것은 지전이 아니라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인 금속류로 만들어진 전(錢)이라는 점에서 지전의 기원이 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漢) 이전의 고대에는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슬이나 비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실제 통용되던 화폐가 여전(瘞錢)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매장용으로 사용된 예전이 그 용도나 의미면에서는 지전의 기원에 가깝다.
- 실제로 종이는 후한(後漢) 때 채륜(蔡倫: 50~121)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후 지전은 위(魏: 220~265), 진(晉: 265~420) 이래부터 혹은 당(唐)의 왕여(王璵)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이를 통해 추정해보건대, 종이로 지전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 시기는 대략 3~4세기 무렵이고, 이것을 제사의식에 사용하게 되면서 성행하게 된 시기가 대략 7~8세기 무렵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지전의 여러 기원설 중에 공통적으로 지전이 성행한 시기를 당(唐)현종(玄宗) 때부터로 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 중국에 지전은 불교의식에 수용되어 그 종교적인 관념이 투영되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근거로,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지전이 불교의식에 편입되기도 해서 『법원주림(法苑珠林)』과 같은 불교서에 실렸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선종(禪宗)에서는 지전을 많이 이용하고 기도하고 우란분회(盂蘭盆會) 때에 반야심경과 말을 그린 경마(經馬)와 함께 지전을 법당에 걸고, 법요(法要)가 끝난 뒤에 귀신을 위해 이를 동발(銅鉢) 안에 담아서 태웠다고 한다.⁶⁾
- 우리에게 지전이 언제 수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삼국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삼국시대에 지전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전은 천도제와 같은 종교의식이 함께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보급 시기는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통일신라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월명사(月明師)의 향가에서 찾을 수 있다. 대략 8세기의 작품인 월명사의 제망매가(祭亡妹歌: 760년 작)에서 '지전을 태워 보냈다'⁷⁾는 구절이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에서 지전이 성행한 것이 당 현종 때라는 설에 근거한다면, 8세기 무렵 혹은 그 이전에 지전이 수용되어 중국에서 성행하던 시기에 우리도 불교제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 그러나 종이를 구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을 당시 상황에서 지전은 서민층에게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류층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의하면, '고려시대 재상이 설날이나 한식에 보제를 지냈던 무덤가로 사람을 보내, 지전을 주워오게 하여 이것을 다시 종이로 썼다.'⁸⁾는 기록이 있다. 이는 당대의 제상까지 지냈던 이의 검소한 성격이 그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종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당시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지전은 유고의 상장례와 조상제의를 지내게 되면서 보다 활발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전이 무속의례에 수용된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신령의 신체로 상징되어 부군당과 같이 마을제당과 무가(巫家)에 장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군당은 상고시대 광명승배 기원설과 성기승배 등의 기원설을 지니며, 정치와 종교가 미분화되었던 시기의 유제로서 조선시대 이전부터 관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한 제정일치의 시기에 존재했을 부군당에 지전이 장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이후 불교가 수용되면서 이것이 신을 모셔놓고 성소(聖所)에 신체(神體)로 상징되어 장식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천도제에 영향을 받아 이미 무속제 의에도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지전의 형태는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왔던 이들의 기록을 통해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지전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636년 금육(金育)이 명나라 사행(使行)으로 갔다가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조경일록(朝京日錄)』에 의하면, "지전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을 녹여 종이에 칠하고 그것을 이용해 잔이나 사발 모양으로 만든 뒤에 그 윗면을 막으면 그 속이 빈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금전지, 은전지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⁹⁾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789년 청나라에 다녀온 서유문(徐有聞)의 한글기행문인 『오연행록(午燕行錄)』에 의하면, "지폐는 흰 종이를 오려 등발과 같이 하여 제사 지낼 때에 놓았다가 제를 다 지내면 불사르고, 또 다른 지전이 있으니 종이를 등글게 돈같이 새겨 나무에 꿰어 발인할 때와 묘에 제사 지낼 때에 길에서 날리는데 이것은 예부터 있는 법이더라"¹⁰⁾고 전해진다. 이 기록들을 통해 보면, 지전의 형태는 중국 고대 화폐인 금전과 은전형, 등발형, 동전모양 형이 널리 사용되었고, 그 외에 지폐 형태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의 지전 형태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전승되고 있는 형태를 통해 보면, 금전형과 은전형은 수용되지 않았거나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6) 『법학대사전』, 「지전」, 진언중제공성천, 전용지전.

7) 『삼국유사』, 「월명사 두술가조 찬시」.

8) 『용재총화』, 「고려재신지배」.

9) 『삼국유고』, 「조경일록」.

10) 『무오연행록』 권1, 3일.

1.2 사용 영역

1) 국가와 관청 제의

① 국가 제의

- 조선시대에 지전은 국가가 관여하거나 왕실에서 주관하는 사제례(賜祭禮), 불공의식(佛供儀式), 산신제(山神祭), 혼궁설치(魂宮設置) 등에 사용되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례로는 1423년(세종 5) 사제례를 행하기 위한 준비물 중에 의물(儀物)로서 지전이 포함되었는데, 그 기사에는 의물의 양이 많았음을 언급되어 있다.¹¹⁾ 이 사제례는 선왕(先王)을 위한 제의로서 임금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큰 규모의 대사(大祀)였을 것이라 짐작되기에 많은 양의 지전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왕실제의의 사례로서, 1787(정조 10)에 정조가 혼궁도감당상(魂宮都監堂上)을 만나 혼궁을 설치하는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내용 중에 오색지전(五色紙錢)은 봉상시가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각별히 지전 및 제품(祭品)을 정성들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전해진다.¹²⁾ 이를 통해 짐작하건대, 국가와 왕실의례에서도 지전은 다른 의물에 비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 준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국가가 관여한 사례로, 1431년(세종 13) 불공에 쓸 지전으로 창성이 황색과 백색 각 5백장을 청구하였다는 기사¹³⁾와 1431년(세종 13)에 산신제에 쓸려고 윤봉과 장정안이 지전을 3백장을 요구하였다는 기사가 있다.¹⁴⁾ 이 두 제의는 그 지전의 청구 양을 기준으로 볼 때 규모가 큰 제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적인 제의가 아닌 국가가 관여하는 제의라는 점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산신제와 불교제의는 민속종교와 불교의례지만, 국가가 주관하여 제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지전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또한 혼궁 설치 준비과정에서 지전을 각별히 정성스럽게 준비하라는 점 등을 통해 보건대, 국가가 관여하는 제의에 지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제의용품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 등의 이를 맡았던 봉상시(奉常寺)에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관청 제의

- 조선시대에는 무속과 마을제당의 성소(聖所) 외에도 사헌부와 같은 중앙의 기관과 지방의 관청 내에 위치한 일부 부군당에 지전이 장식되었던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1430년(세종 12)에 안주(安州) 청천강(淸川江)의 신을 모신 사당 안에 지전을 사용하여 제사하고 있으니 철거하기를 바라는 보고를 그 지역 별감이 올렸다는 기사¹⁵⁾와 1517년(중종 12)에는 헌부(憲府)에서 각사(各司)의 부근(付根)을 혁파하면서 먼저 지전을 불사르고 제사를 금지하라는 관문(關文)을 보냈다는 기사가 전해진다.¹⁶⁾ 또 다른 일화로 어효첨이 사헌부의 전례대로 제사 지냈던 관습을 이름 없는 귀신에 제사지내는 것을 음사라 근절시키고 지전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전해진다.¹⁷⁾ 이와 같이 부군당에 장식된 지전에 제사지내는 것을 음사로 규정하고 정책적으로 금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에 지전이 중요한 종교적 상징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 위의 사례에서 어효첨이 부군당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름 없는 귀신에 제사지내는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여기에서 모신 신은 '부군(府君)'이다. 지전이 곧 부군의 신체를 상징하는 점은 어효첨(1405~1475)이 세종에게 올린 상소가 기록된 『동각잡기(東閣雜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어효첨은 '서울의 관청에는 작은 집을 따로 설치하여 지전을 걸어놓고 '부군'이라 부르며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 이것을 태워 버리고 그가 지나온 전후로 관청의 부군의 사당을 불태우고 헐어버렸다.¹⁸⁾ 고 한다. 여기에서 지전을 부군이라 불렀다는 것은 곧 지전과 부군을 동일시 여겨, 그것을 부군의 신체(神體)라 인식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부군신앙의 상징물이며 신체로 인식되던 지전이 부군당에서 가장 먼저 제거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 그러나 과연, 지전이 언제까지 부군신으로 모셔졌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어효첨이 지전을 불태웠던 시기가 15세기였으며, 이후 1517(중종 12)에 정책적으로 없애려고 하였으나, 조선왕조를 통하여 부군당을 공식적으로 철폐한 적은 없었다. 폐지는커녕 낡았을 경우에는 중건을 하기도 하였다. 사역원의 부군당처럼 1707(숙종 33)에 중건하면서 원래보다 규모를 더 늘릴 예도 있다. 부군당은 조선왕조 말기까지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1898년(광무 2) 무렵 모두 철폐되었다고 하나 소속 관원들이 신벌을 두려워하여 감히 철폐하는 데 나서지 못했던 것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 부군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부군당에 장식된 지전 또한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11) 『세종실록』 권2, 세종 5년 4월 13일 계해

12) 『일성록』, 정조 10년 6월 10일 임오.

13) 『세종실록』 권3, 세종 13년 8월 23일 을묘.

14) 『세종실록』 권3, 세종 13년 8월 24일 병진.

15) 『세종실록』 권4, 세종 12년 8월 6일 갑술.

16)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13일 병진.

17) 『해동잡록』 권3, 「본조어효첨」.

18) 『동각잡기』, 「동각잡기상」.

2) 상장례와 조상제의

① 상장례

- 조선시대 민간의 상장례에서 지전은 혼(魂)을 초대하거나 부르는 의물(儀物)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는 1425년(세종 7)과 1436년(세종 18)에 두 차례에 걸쳐 기록된 충청도 은율현(恩律縣)에서 사는 이사경(李思敬)의 딸 이덕(李德)과 그의 남편 문성기(文成奇)와 관련된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1425년(세종 7) 이사경의 딸 이덕은 선군(船軍)이었던 자신의 남편 문성기가 기해년에 자인포(庇仁蒲)에 왜적이 침입했을 때 전투 중 전사하였으나 시체를 찾을 수 없어 지전(紙錢)으로 혼을 불러서 집으로 돌아와 위패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¹⁹⁾ 이때 초혼 의식의 주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무녀가 주재한 의식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무녀의 주재로 혼을 맞이해왔다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소문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사례에서 지전은 폐백(幣帛)으로 사용되었는데, 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이 1490년(성종 21)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가 적장자로서 아들이 없이 죽어 본인이 삼년상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렸는데, 그때 전물(奠物)을 준비하여 신주를 세우고 지전을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고는 기록이 있다.²⁰⁾ 이때 신주는 신체로, 지전은 폐백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② 조상제의

- 조선시대에는 조상제의를 지낼 때 간혹 지전이 신주(神主)를 대신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경우, 사대부가 반드시 세워야 할 가묘도 세우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1472년(성종 3) 예조와 사헌부에 전지할 때,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따라서 사대부로 하여금 가묘(家廟)를 세워 4월 중의 초하룻날 제사를 모시게 하였는데, 가묘를 세우지 않거나 혹은 신주도 만들지 아니하고 지전으로 대신한다."²¹⁾라는 기록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점필재집(佔畢齋集)』에 의하면, 제사를 지내 줄 사람이 없는 외조모를 위해 정침에서 지전을 사용하여 그 끝에 위호(位號)를 표식해 정성스

럽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²²⁾ 여기에서 지전에 위호를 표식해 놓은 것인지, 위호를 따로 표시하였는지에 대한 점이 의문이 든다. 만약 지전에 위호를 표식해 놓았다면 지전이 곧 신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또 다른 조상제의를 하나인 묘제에서도 지전이 반드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묘제는 정기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정기적인 묘제로는 원일(元日), 청명(淸明)과 한식(寒食), 시제(時祭) 등이 있으며 특히 그 중에 한식에는 반드시 무덤을 찾아 조상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식에 대나무 가지 곳곳에 지전이 걸려 있다거나 혹은 들판에서 지전을 태우는 내용²³⁾과 한식에 신에게 제사한 후 고목에 걸어 놓은 지전을 까마귀들이 물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내용²⁴⁾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서거정(徐居正)이 한식에 성묘를 한 후 지전을 불태웠다는 것²⁵⁾과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五代 後周에서는 한식에 野祭에서 지전을 살랐다."²⁶⁾라는 내용, 그리고 1625년(인조 3)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송영망(宋英望)은 한식에 성묘하러 간 사람들이 지전을 뿌리면 슬픈 마음이 든다는 사례를 들며, 고향에 가 성묘할 수 있게 해 달라'²⁷⁾는 상소를 올린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조선 초기에는 영남의 한 지역인 황보천의 청명과 한식날의 풍경을 묘사한 시 중에 지전을 날렸다는 내용이 있다.²⁸⁾ 한식에 지전을 사용했던 전통은 조선시대 이전인 고려시대에도 이미 보편적인 풍속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시제에 지전을 사용한 사례로는 김종직이 서모의 시제에 지전을 보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²⁹⁾ 이를 통해 묘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전을 태웠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 또한 부정기적으로 조상의 무덤을 찾아 묘제를 지내면서 지전을 태웠던 사례로는 1468년(세조 14) 정현(鄭賢), 정해(鄭海)가 광주(廣州)에 있는 정선(鄭善)의 묘에 가서 황백지전(黃白紙錢)을 소각하였다는 기사가 있다.³⁰⁾ 이는 노자돈이라 보기보다는 신과 조상에게 바치는 폐백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은 조상을 위해 바치는 경우는 명전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즉 저성에서 화폐로 사용하게끔 일종의 저축의 의미로서 후손들이 태운다는 점에서 기고전(寄庫錢)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9) 『세종실록』 권8, 세종 7년 4월 26일 을묘.

20) 『성종실록』 권248, 성종 21년 12월 10일 정사.

21) 『성종실록』 권19, 성종 3년 6월 13일 무인.

22) 『점필재집』, 선공제의 권5.

23) 『점필재집』 시집, 권2, 동도한식.

24) 『석주집』 권7, 한식.

25) 『서거집』 권51, 시류.

26) 『동국세시기』, 한식조.

27) 『승정원일기』, 인조 3년 2월 3일 을축.

28) 『용재총화』 권6, 용재총화권지유.

29) 『점필재집』 문집 권2, 김처사효문명.

30) 『세종실록』 권8, 세종 14년 4월 18일 정말.

3) 종교제의

① 불교제의

- 불교제의에서 지전은 사자(사자)를 저승으로 인도해주는 천도재(遷度齋)에 주로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기신재(忌晨齋)와 같은 기일에 사자를 추모하는 의례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도재에 사용된 지전의 사례로는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월명사의 향가가 좋은 예가 된다. 일연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두고, "지전이 바람에 서쪽 방향으로 날아가 사라졌다"³¹⁾라는 내용을 "바람이 지전을 날려 죽은 누이의 저승길 노자돈을 하게 했다."라고 해석했다. 월명사의 제망매가 원문 중에서 서쪽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인 서역정도가 있는 곳이다. 서역정도는 정확하게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방향이기는 하지만, 지전이 서쪽 방향으로 날아가감으로써 죽은 누이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이 월명사의 제망매가 안에 함축된 것으로 이해된다.
- 조선시대 불교의례에서는 기신재(忌晨齋)와 같은 제의에서 신주와 함께 지전을 걸어 놓고 의례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16년(중종 11) 영사 김응기(金應箕)가 기신재 때 왕후의 신주를 불교식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불교의례에서는 판자로 신주를 만들어 백평상(白平床)이나 백의자(白椅子) 위에다 놓고 그 사방에 지전을 걸어 놓고 중들이 징과 북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의례를 행하는데, 제단 위에는 불상이, 그 아래에는 신주가 있는 광경을 부정적으로 설명한 기록에서 알 수 있다.³²⁾ 여기서는 신주가 존재하고 그 주변으로 지전을 걸어 놓았다는 점에서 감로탱화에서 묘사된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감로탱화에서는 제단 위에 지전을 걸어 놓고 그 아래에 제물을 올려놓는다. 여기에서는 제물이 올려지는 제단 위에 신주를 진설해 놓고 그 제단 바로 위에 지전을 걸어 놓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 지전은 기신재의 대상인 황후를 위한 폐백으로서 그 의미는 명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현세인들은 이미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사자도 이승과 똑같이 저승에서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인 수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고가 지전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무속제의

- 무속제의에서 지전은 신령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무가(巫家)의 신당이나 의례가 행해가 행해지는 제장(祭場)에 장식되거나 혹은 무녀가 지물(持物)처럼 직접 손에 들고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무속제의를 행하기 위해 무가의 신당에 지전이 장식된 사례를 살펴 보면, 1478년(성종 9) 사헌부 전지(傳旨) 중 여러 음사로 규정하여 금지한 내용에 조부모와 부모의 영혼을 무가로 불러올 때 지전이나 그림 형상을 만들어 걸어 놓고 그곳에 맞이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³³⁾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무속을 음사로 규정한 당시의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든 사례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사례가 그 만큼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무가(巫家)는 말 그대로 무당의 집으로, 대개 무당들은 자신의 집 안에 신당을 마련해 둔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무가로 직접 찾아와 조상제사를 행하는 사례가 빈번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은 지전에 사자(사자)의 혼이 내리면 그곳에 조정하여 제사를 받을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를 조상신(祖上神)의 신체(神體) 혹은 신주(神主)와 동일시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 또 다른 지전의 신해 장식 사례로, 개인의 집 안에 무속의 신당과 유사한 사당을 만들어 지전을 걸어 놓고 섬겼었던 다소 특이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아계유고(鵝溪遺稿)』에 의하면, 영남의 기성지역은 집마다 작은 사당을 만들어 그 안에 지전과 삼베를 걸어 두고 드나들 때마다 혹은 천재지변이나 우환이 생기면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귀신을 숭배하는 풍속 때문이며, 그 중에 특히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가진 자는 대개 무당이라는 내용이 전해진다.³⁴⁾ 이 사례 또한 지전이 무신도(巫神圖)나 입체형의 신상을 대신한 신체(神體)의 상징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마을 제당이나 사당 그리고 무당의 신당에 장식된 지전은 무속의 신령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무속의례를 위해 지전이 곳곳에 진설된 사례도 찾을 수 있다. 1488년(성종 19) 장령(掌令) 김미(金樞)가 왕에게 이원의 복직을 건의하면서, '호남지역 무풍(巫風) 중에 귀신을 숭상함에 있어 언덕과 숲이 모두 귀신 이름이 붙어 있으며, 제장에 혹 목인(木人)을 설치하거나 혹 지전을 장식해 놓고 생황을 불고 북을 치며 굿을 하였다'³⁵⁾는 기사가 전해진다. 이 기사에서 목인이나 지전 둘 중에 하나를 장식해 놓고 굿을 하였다는 점에서, 둘 다 신체를 상징하는 무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에 둘 다 장식해 놓았다면 지전은 예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무당이 주재하는 곳에서 지전은 사자(死者)와 무속신을 초대하고 보낼 때 하나

31) 『삼국유사』, 「월명사 두술가조 찬사」.

32)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3월 9일 경인.

33) 『성종실록』 권88, 성종 9년 1월 27일 경인.

34) 『아계유고』 권3, 「기성풍토기」.

35) 『성종실록』 권24, 성종 19년 3월 2일 병인.

의 매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물(持物)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례로, 『성소복부고(惝所覆瓿稟)』에 '관왕묘와 숲속의 낡은 당집의 내부의 신상을 보고 한 많은 혼을 부르지 말아 달라'는 내용과, 『난중잡록(亂中雜錄)』에 '쓰러져가는 건물 내부에서 종이돈에 혼을 부른다'³⁶⁾는 내용으로 보아 지전을 이용해 혼과 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 당시에는 하나의 종교현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 또한 임억령(林億齡)의 송대장군가(宋大將軍歌)에 의하면, "때를 맞춰 북날과 선달에 마을에 북소리 울리고 … 무당이 종이 잘라 혼을 부름은 예부터 있어 온 일 때때로 수풀 속에 신이 내린다."³⁷⁾라는 내용에서 유추해본건대, 그 종이는 지전 혹은 뉘트로 추정된다. 임억령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자신의 고향인 해남에서 여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그가 본 곳은 호남곳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맥락에서, 호남곳에서도 지전으로 혼을 맞이하는 의식이 '혼맞이'에 행해지기에 전지(剪紙)에 혼을 붙였다면 이것은 지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③ 마을제의

- 조선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을 위한 당집이 존재했다. 『점필재집(佔畢齋集)』의 마천(馬川)에서 본 바를 시로 기록한 「마천기소견(馬川記所見)」에 의하면, 마을 제당에 해당하는 신모묘(神母廟)의 사당에 지전이 그물처럼 걸려 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³⁸⁾ 또한 숲속 사당에 지전이 날리는 것을 보고 신령이 있는 것 같다는 사례가 전해진다.³⁹⁾ 또 다른 사례로서, 『읍취현유고(攄翠軒遺稿)』에 멀리 숲속 제당에 지전이 날리는 것을 보고 신령이 있는 듯하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⁴⁰⁾ 대체로 마을 제당의 내부에 장식되는 지전은 마을수호신을 상징하는 신체로서 이것은 신상(신상)을 대체한 것으로 이해된다.
- 또한 마을제당 주변 서낭나무에 지전을 매달았을 경우, 이것은 신에게 바치는 폐백 혹은 예단으로 상징된다. 『석주집(石洲集)』에는 '숲속에 신령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당 주변의 나무에 지전을 걸고 신령에게 복을 기원하였다.'⁴¹⁾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당 주변의 나무는 서낭을 상징하는 신체인 서낭나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서낭 그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에 걸어놓은 지전은 그 지역의

수호신에게 봉헌하는 예단으로 상징된다. 또 『고산유고(孤山遺稿)』에는 미륵 석상 옆 초가집 모양의 당집에 드리워진 지전을 묘사한 기록이 전해지는데⁴²⁾, 이 또한 신을 위한 폐백이라 할 수 있다.

- 마을제당은 대개가 집의 형태와 서낭나무가 함께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 돌탑, 나무, 당집 등이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교차하여 함께 구성되기도 한다. 『계곡집(谿谷集)』의 「노방총사(路傍叢祀)」에 의하면, 성황의 신체에 해당하는 돌탑과 서낭나무가 무용지물인데, 나무에 가득 걸어 놓은 종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⁴³⁾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도 돌탑과 서낭나무가 신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걸어놓은 종이 조각이 정확하게 지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개 지전이 지역의 수호신인 서낭에게 바치는 헌물(獻物)로 상징되었다는 점에서, 그 종이조각 또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지전풀이

2.1 개관

1) 정의

- 지전(紙錢)은 종이를 돈 모양으로 재단한 것으로, 현물 화폐가 아닌 저승에서 망자가 사용할 저승 화폐를 상징화한 무구(巫具)이다. 또 한지나 창호지를 가늘게 접어 엽전의 원형이 길게 이어지도록 오린 것을 여러 가닥 모아 만든 조형물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음전(陰錢)”, “우전(寓錢)”이라고도 한다. 한편 황해도, 서울 경기, 동해안에서는 “금전”, “은전”으로, 호남 지역에서는 “뉘전”, “돈전”으로, 제주도에서는 그 형태에 따라 “지전”, “밭지전”, “통지전”이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는 호남 지역의 씻김굿에서 전승되고 있다. 흰 창호지로 만든 수십 장의 지전을 80cm 가량 내려뜨린 것을 양손에 쥐고 사방으로 휘저으며 춤을 춘다.⁴⁴⁾

36) 『성소복부고』 권1, 장진보지개왕조.

37) 『석천집』 권5, 기서십월.

38) 『점필재집』 시집 권11, 「마천기소견」.

39) 『아계유고』 권3, 「기성풍토기」.

40) 『읍취현유고』 권1.

41) 『석주집』 권2, 「총사행」.

42) 『고산유고』 권21, 「제어산미륵당」.

43) 『계곡집』 권31, 「노방총사」.

44) 「지전춤」, 『민속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1995.

2) 형태

- 지전(紙錢)은 그 기능이 다양한 만큼 주요 재료가 되는 종이의 종류도 한지, 창호지, 전지 등이 사용된다. 재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면, 굵기에 장식되는 것은 주로 한지를, 지물(持物)은 주로 창호지와 전지로 만들어진다. 지전은 주로 한 쌍으로 구성된다. 무당과 악사가 공동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황해도,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이것의 제작기법을 익히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 장인에게 의뢰한다. 호남, 동해안, 제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례 주재자와 악사가 제작하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신도들이 만들어오기도 한다.
- 지전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커다란 돈 췌의 모양으로, 이것은 가까이서 보면 종이 가닥을 모아서 만든 모습이며, 그 하단은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은 형태이다.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민속놀이에서 사용되는 ‘재기’를 크게 확대해 매달아 놓은 듯한 모습으로, 황해도, 서울·경기, 동해안 지역에서 제작되는 금전과 은전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금전은 노란색으로, 은전은 흰색의 종이를 만들어진다. 둘째는 긴 종이 가닥을 여러 겹으로 모아서 한데 묶은 형태로서 엽전을 형상화하기 위해 종이 가닥에 구멍을 오려 마치 엽전 다발을 길게 늘어뜨린 모양이다. 이 형태 중에는 엽전을 상징한 구멍을 꿰지 않아 마치 미역 줄기 모양을 연상시키는 것도 있다. 완성된 지전 위에는 고깔 모양이나 그물 문양의 덮개를 씌운다. 호남의 지전과 돈전, 제주도의 발지전이 이 형태에 해당된다. 그 크기는 작은 것은 50~60cm 내외, 큰 것은 120cm 내외까지 다양하다. 셋째는 직사각형의 종이에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구멍을 오리는 형태로, 제주도의 통지전이 이에 해당된다. 직사각형의 백지를 여러 겹 접은 후 가위로 구멍을 만들고 나서 펼치면 둥그런 모양이 줄지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돈을 상징한다.⁴⁵⁾

3) 의미

- 굵에서 씻김의식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이원적 결합체로 보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내세에서 영생한다는 민간신앙에서 나타났다. 씻김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씻어 저승으로 보내주는 망자를 위한 제의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진도 씻김굿에서 추는 춤은 신이 노는 신유무(神遊舞), 부정을 씻기 위하여 잡신을 몰아내는 축귀무(逐鬼舞), 신을 청하는 청신무(請神舞), 신을 보내는 송신무(送神舞),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무(娛神舞), 씻겨서 위로하는 세령무(洗靈舞), 한스럽게 죽은 혼을 달래는 진혼무(鎮魂

舞) 등이 있지만, 특히 진혼무와 세령무를 위주로 한 지전풀이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 즉 지전풀이는 진도 씻김굿의 의례 과정 가운데 무녀가 망자의 혼을 씻기면서 지전을 가지고 추는 춤으로 세령무의 대표적인 춤이다. 지전풀이는 굵의 여러 대목에서 보여진다. 특히 혼을 씻기는 영돈말이 대목에서 지전풀이가 사용된다. 제석자리에 씻김하는 분의 의복 일체와 사람 형태의 냇을 놓은 다음 자리를 맡아 묶어 세우고, 유가족이 잡고 곡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 무녀가 지전을 들고 노래한 후 씻김의식의 춤을 춘다. 망자의 영혼에 부정을 씻겨주기 위해 기다란 하얀색 지전을 양손에 쥐고 이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추는 지전풀이는 모든 액을 막고 살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신과 죽은 이의 영혼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 지전풀이의 춤사위 특징은 대칭미, 대비미, 조화미, 점층미, 곡선미 등 다양한 형식미를 들 수 있다. 지전풀이는 기다란 지전을 활용하기 때문에 움직임의 방향성과 상하좌우의 상체놀림이 주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춤사위는 바람막이사위, 외바람막이사위, 태극무늬사위, 가위질사위, 좌우에기, 회오리바람사위, 꽃봉오리사위, 다듬이질사위, 쳐올리기사위, 상모놀음사위, 곡선 형태와 직선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움직임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무법의 기본인 막고 여는 바람막이춤을 기본으로, 여러 형태(아주 느리게, 조금 느리게, 느리게, 아주 빠르게, 조금 빠르게, 빠르게) 로 나뉘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손에 든 지전으로 인해 다양한 선이 나오면서 죽음에 대한 슬픔을 우아하고 무게 있는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 지전풀이는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닦아 준다는 세령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식 행위는 우주만물을 원의 형태로 보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액을 지전이라는 상징 도구를 통해 직선과 곡선 형태로 ‘액을 막고 살을 푼다’는 무속의 상징체계를 갖고 있다. 지전풀이의 무구, 무복, 무악은 춤 수행을 뒷받침하는 보조수단으로, 무구인 지전은 돈을 상징한다. 이들 보조수단은 신과 망자의 사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상징적 부호로 작용한다. 무복은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흰색 치마와 저고리를 입기도 하고, 그 위에 장삼, 고깔, 주홍당사를 착용하여 불교적 색채를 내포하기도 한다. 무악은 시나위 무속음악의 독특한 장단과 당골의 소리 및 악사들에 의한 연주되는 무악은 지전풀이를 하나의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고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따라서 세령무는 무녀가 망자, 특히 조상이나 한스럽게 죽은 사람들의 혼을 씻겨서 달래 주고 혼기를 풀어주기 위해 추는 춤으로 지전을 사용한다. 이러한 지전풀이는 춤과 노래로 신에게 빌며 후손으로 하여금 죽은 자와 접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짐과 동시에 영혼을 씻겨서 위로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에 주

45) 「무구」,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9.

요 목적이 있다. 이는 살아 있는 자에게 액을 면하게 하고 복을 기원하는 무속적 축원 성격을 담고 있으며,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보내려는 살아 있는 자의 인간적인 정성 및 무속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⁶⁾

2.2 전승 사례

1) 진도

- 진도는 전형적인 축원무의 고장이다. 이 지방에서는 오구굿을 ‘씻김굿’이라 한다. 씻김굿은 망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하고 맺혀 있는 원한을 풀어 주고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굿이기 때문에 춤은 진혼무(鎭魂舞)와 세령무(洗靈舞)를 위주로 한 지전풀이가 많다. 씻김굿의 종류는 괘머리 씻김굿, 소상 씻김굿, 날받이 씻김굿, 초분이장(草墳移葬) 때의 씻김굿, 영화 씻김굿, 낚건지기 씻김굿, 저승 혼사굿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날받이 씻김굿’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진도의 무무(巫舞)는 박병천, 채주만, 김귀봉, 김대례, 정숙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춤의 시범은 김대례, 정숙자 무녀가 담당하였다.

① 복식

- 무녀는 정복(正服)으로 머리에 백색 고깔을 쓰고 백색 버선을 신는다. 속옷으로 백색 저고리와 백색 치마를 입으며, 그 위에 백색 장삼을 입고 다홍띠(적색)를 사선으로 걸친다. 즉 백색 복장에 적색선을 조화시킨 무복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진도 무당의 무복은 소박하고 단순한 데 아름다움이 있으며, 특히 승복과 유사한 점에 대하여는 무복 변천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② 장단

- 악기 편성은 장구, 징, 북, 피리, 젓대, 해금, 아쟁, 가야금 등으로 되어 있다. 춤 장단은 주로 엇중모리, 흘림, 굿거리, 살풀이, 동살풀이, 부장구, 자진모리, 자진 굿거리, 선부리, 중중모리 등이며 악사들은 합창을 하여 흥을 돋운다.

③ 종류

□ 지전 들고 추는 춤

- 청신, 오신(娛神), 송신(送神), 진혼(鎭魂), 세령(洗靈) 등의 제의적 기능과 축귀, 의료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진도 지역 무무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손대 들고 추는 춤

- 청신(請神), 오신(娛神), 송신(送神) 등의 제의적 기능과 축귀, 의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 춤은 보통 지전을 같이 가지고 추는 수가 많다.

□ 고개 들고 추는 춤

- 바라 대신 두 개의 보개를 들고 추는 춤이다. 이 춤은 복을 맞이하는 것과 제주(祭主) 가족에게 노적을 주는 등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 정주 들고 추는 춤

- 제석의 신악기인 정주를 들고 그것을 연주하면서 추는 춤으로 청신과 오신적 기능을 갖고 있다.

□ 신칼 들고 추는 춤

- 잡귀를 축귀하는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 액그릇 들고 추는 춤

- 산 사람의 액막이를 위한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 돛자리 들고 추는 춤

46) 「무무」,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9.

- 양손으로 뒗자리를 들고 추는데, 망자를 오신(娛神)하는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 뉘 들고 추는 춤

- 흰 종이로 만든 뉘을 들고 추는 춤인데, 액막이와 겁(劫)풀이를 위한 제의적 기능과 점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 고평이베를 들고 추는 춤

- 겁을 푸는 이른바 고평이에서 액막이로 추는 것으로 진혼(鎮魂)과 오신적(娛神的) 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물그릇과 빗자루 들고 추는 춤

- 죽은 망자의 뉘를 목욕시키는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 길베 들고 추는 춤

- 길뒹음을 하고 그 천을 거두면서 추는 춤으로, 송신(送神)하는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 영복(靈服) 들고 추는 춤

- 옷을 들고 추는 춤으로, 망자를 진혼(鎮魂), 오신(娛神)하거나 송신(送神)하는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 명태 들고 추는 춤

- 마른 명태를 들고 추는 춤으로, 군웅(軍雄)님을 오신(娛神)하는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 뉘당석 들고 추는 춤

- 송신(送神)시키지 위한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 허새비 들고 추는 춤

- 성주굿할 때 오방(五方)을 돌면서 집터를 울리고 사물(四物)에 맞춰 추는데, 축귀적 기능을 갖고 있다.

□ 장구에 손대 꽃고 추는 춤

- 마마신을 위로하기 위한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다.

④ 특징

- 진도 씻김굿의 무당춤은 망자를 달래고 씻겨 주는 지전풀이가 주축이 되어 있다. 이러한 춤은 불교나 유교와도 유사성이 많은 씻김굿의 의식 절차에 따라 춘다. 씻김굿에서의 춤은 망자 특히 조상이나 한스럽게 죽어간 사람들의 혼을 달래는 진혼무(鎮魂舞), 혼의 기를 풀어주는 춤과 씻겨서 위로하며(洗靈舞)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 있다. 또한 축원적이면서도 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춤은 잡술적인 것과 주술적인 것과는 달리 신앙적 목적을 위한 축원적인 춤이거나 신의에 따라 모의적인 의식무라고 할 수 있다. 춤사위의 특징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무법(舞法)의 기본인 바람막이(점춤)를 모체로 하여 여러 가지의 꼬깸춤(아주 느리게, 좀 느리게, 아주 빠르게, 좀 빠르게)으로 변화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에 쥔 지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선이 나와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예술적이다. 진도 지역의 무무는 다른 지방에 비하여 발을 올리거나 뛰는 동작이 없으며 제자리의 정지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 굿거리춤이라 하여 굿 사이에 추는 긴 춤이 돋보인다. 특히 죽음에 대한 슬픔을 예술적으로 통과하는 의례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 진도 무속무용의 특징이다.⁴⁷⁾

2) 동해안

- 동해안 지역 김진홍의 지전풀이는 김계향으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김계

47) 정병호, 「진도굿」,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1999.

향은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 동해안 별신굿의 예능보유자인 김석출의 사촌여동생으로서 1970년대 김진홍이 ‘한량춤’을 추러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 출입할 당시, 동래학춤의 구음을 담당하였다. 1976년 무렵 김계향이 김진홍의 학원에서 ‘승무’를 배우게 되자 김진홍도 김계향으로부터 지전풀이를 배우게 되었다. 3년 뒤인 1979년 대한민국무용제 때 지전풀이를 추었으며, 이후 무대 구성과 춤사위를 정리하여 오늘날 김진홍류 지전풀이가 완성되었다. 여기서는 김진홍의 지전풀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① 복식

- 여자는 흰색 명주 치마저고리를 입고 치맛자락을 들려서 허리에 띠를 매며, 그 위에 흰색 도는 검정색 쾌자(안감은 빨간 색)를 입고 춤을 춘다. 때로는 흰색 치마저고리만 입고 춤을 추기도 한다. 머리는 쪽을 지르고 흰색 꽃모양의 띠를 두른다. 남자는 흰색 바지저고리에 흰색 쾌자를 입고 머리는 상투를 틀고 흰색 명주수건을 이마 뒤로 묶어 춤을 춘다.

② 장단

- 음악 편성은 박병천(1933~2007: 1980년 진도씻김굿 중요무형문화제 지정)의 구음 살풀이로서 굿거리와 자진모리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종류

- 춤사위는 일자사위, 청배사위, 갈매기 사위, 용트림, 아래위 지전 돌리기 사위, 잔걸음, 깨금발, 망자를 어깨 위로 들러 매고 어르는 사위, 왼발 들었다 차고 오른발 들었다 차는 사위, 신달램 사위, 송신사위 등이 있다.

□ 청배사위

- 지전을 잡은 두 손을 모아서 기원하듯 신을 모시는 동작을 말한다.

□ 갈매기 사위

- 지전을 잡은 양손을 갈매기가 날개를 퍼듯이 펼친 사위를 말한다. 이러한 갈매

기 사위는 김진홍의 ‘승무’에서도 나타나며, 동래학춤에서는 활개치기로 표현되는 등 동해안 지역의 특징적인 춤사위라고 할 수 있다.

□ 용트림

-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지전을 흔들거나 한손을 앞으로 전진하며 지전을 흔드는 사위이다. 용트림은 유일하게 동해안 별신굿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위이며, 악귀를 쫓기 위한 위협의 동작이기도 하다. 두 팔을 머리 위에서 빠르게 비비는 동작은 다른 지역의 굿춤에서 볼 수 없는 동해안 별신굿에 나타난 춤의 특징이며, 굿판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지전풀이는 용트림 동작에 이르러 춤이 절정에 이른다.

□ 아래 위 지전 돌리기 사위

- 지전이 돌아가는 모양이 태극무늬를 형상하는 동작으로서 이는 태극사상이 내포하는 음양의 원리를 담아 맺힌 것이 풀리고 순환되면서 힘찬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는 동작이다.

□ 망자를 어깨 위로 들러 매고 어르는 사위

- 천신, 지신, 오방신장, 용신과 조상신 같은 여러 신들 중에서 나쁜 신은 겁을 주고 좋은 신은 어깨 위에 올려 어르는 사위를 말한다.

□ 신달램 사위

- 앞으로 용트림사위를 하며 나쁜 신을 겁준 뒤 합장하듯 절을 하며 신을 달래주는 모습을 말한다.

□ 송신사위

- 즐겁게 신을 보내주는 사위로서 양쪽 어깨에 지전을 둘러매었다가 던지며 뒷발질을 했다가 앞으로 차는 동작을 말한다.

④ 특징

- 동해안 별신굿은 동해안의 어촌 마을에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 풍요와 다산, 배를 타는 선원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 무당들을 청해다가 벌이는 대규모 굿이다. 풍어제, 풍어굿, 골매기당제라고도 하며 1년 또는 2~3년마다 열린다. 여기서 파생된 지전풀이는 모진 기운을 막고 이것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신과 망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에게 빌고 망자와 후손들을 접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고, 영혼을 깨끗이 씻겨서 극락왕생을 하게 해주는 것이 주목적인 춤이다. 김진홍류의 지전풀이는 동해안 무속의 특징인 소박함과 세련미 없는 담백한 멋을 그대로 살려낸 춤이다. 화려한 장식이나 군더더기를 완전히 배제한 의상을 입는 것이 별신굿의 특징이라면, 그 멋을 춤으로 잘 표현해냈다고 볼 수 있다.⁴⁸⁾

3) 제주도

- 제주도의 무속무(巫俗舞)는 심방의 재차에 따라 춤을 통하여 신령과 융합하는 체험을 하고 심방과 회중이 즐겁게 춤을 춤으로써 신을 놀리어 신을 뜻을 움직인다. 심방의 굿을 관찰함으로써 춤의 의미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문헌적 자료로서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제주도 무속 연구』 및 제주 한라문화제(2001년 11월 8일)와 제주 사라봉 공원에서 시연(2002년 3월 14일)한 칠머리당굿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① 종류

□ 신맞이 춤사위

- 제4박에 왼 손목을 돌려 지전을 왼팔 위에 얹는다. 양팔을 든 자세로 4호간을 서 있는 후 천천히 왼발부터 2박 1걸음씩 옮긴다. 왼발부터 앞으로 8박자 간 후, 제자리에서 4호간 어깨짓을 한다. 오른 쪽으로 제13박에 왼발, 오른발 가고 제14박에 왼발을, 제15, 16박에 오른발을 놓으며, 몸의 방향을 왼쪽으로 옮긴다. 같은 방법으로 제17박에 왼발, 오른발, 제18박에 왼발, 제19, 20박에 오른발을 놓으며 몸의 방향을 왼쪽으로 돌려 뒤를 향한다. 다시 제21박에 왼발, 오른발, 제22박에 왼발, 제23, 24박에 오른발을 놓으며 정면을 보고 선다.

□ 손가락 춤사위

- 제1박에 제자리에서 오른손의 지전을 옆으로 뿌린다. 제2박에 오른손목을 돌려 지전을 오른팔 위에 얹는다. 제3박에 왼손의 지전을 옆으로 뿌린다.

□ 감장 도는 춤사위

- 제1박에 오른손의 지전을 옆으로 뿌린다. 제2박에 오른손목을 돌려 지전을 오른팔 위에 얹는다. 제3박에 왼손의 지전을 옆으로 뿌린다. 제4박에 왼손의 지전을 오른팔 위에 얹는다.

□ 앞 춤사위

- 먼저 길 열기를 4호간 한 후 지전을 제1박에 오른손 밑으로, 왼손 위로 하여 힘차게 뿌린다. 제2박에 다시 왼손 밑으로, 오른손을 위로 하여 지전을 힘차게 뿌린다. 제3박에 위의 두 동작을 연속으로 재빠르게 교차한다. 제4박에 양손의 지전을 위로 뿌린다.

□ 윗 춤사위

- 제1박에 왼손 위, 오른 손 밑으로 지전을 손목을 사용하여 안으로 뿌린다. 제2박에 오른손 위, 왼손 밑으로 제1박과 같은 방법으로 지전을 뿌린다. 제3박에 위의 두 동작을 두 번 뿌린다. 제4박에 위의 세 동작을 빠르게 하여 지전을 뿌린다.

□ 팔에 걸치기 춤사위

- 제1박에 양손을 함께 오른쪽으로 돌면서 지전을 뿌린다. 제2박에 양손을 함께 왼쪽으로 돌면서 지전을 뿌린다. 제3박에 오른쪽, 왼쪽으로 빠르게 지전을 뿌린다. 제4박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빠르게 지전을 뿌린다. 위의 같은 동작을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반복한다.

□ 윗 춤사위

48) 김해성, 「부산춤의 명인 김진홍 전통춤 연구」, 『한국무용연구』 제32집, 한국무용연구학회, 2014.

- 제1박에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밖에서 안으로 원을 그리듯 휘돌린다. 제2박에 왼손을 위의 동작과 같이 한다. 제3박에 위의 두 동작을 한 번씩 한다. 제4박에 위의 세 동작을 순차적으로 빠르게 휘돌리면서 오른쪽으로부터 몸의 중심을 옮긴다.

□ 원 그리기 춤사위

- 제1박에 양팔을 둥글게 위로 올리며 지전을 바깥으로 뿌린 후 둥글게 내린다. 제2, 3, 4박을 위의 동작과 같이 한다. 이 동작은 언뜻 보기에는 쳐 올리기 춤사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위로 올렸을 때 여러 개의 원이 보이는 형상이다.

□ 김상기 앞 춤사위

- 제1박에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오른손을 위로 들어 지전을 뿌린다. 제2박에 오른손을 내민다. 제3박에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왼손을 위로 들어 지전을 뿌린다. 제4박에 왼손을 내린다. 제5박에 오른발을 옆에 놓아 제자리에서 제8박까지 몸 앞으로 빠르게 다듬이질을 하듯이 지전을 던진다.

□ 모듬 춤사위

- 제1박에 양손을 위로 들어 지전을 뿌린 후 내린다. 제2박은 위의 동작과 같다. 제3박에 양손을 빠르게 두 번 위로 뿌렸다 내린다. 제4박은 제3박의 동작과 같다.

□ 도량 춤사위

- 아름다운 꽃의 형태를 그리는 춤사위로서 양 팔을 둥글게 위로 올려서 양 손목을 밖에서 안으로 꺾어 지전을 옮겨주며 춘다. 토끼뽕을 뺏듯 뛰면서 하기도 하고 두 발이 착지하듯 몸의 왼쪽으로 동시에 내리고 착지하면 두 팔도 동시에 내린다.

② 특징

□ 신맞이 춤사위

- 초감제 중 베포도엄침 부분에서 신맞이 춤사위를 볼 수 있는데, 신을 맞이하고 청하는 청신의 감정으로 추어지는 춤사위이다. 또한 이 춤사위는 군문열림 부분에서 도량춤에서도 나오는데 격렬한 춤사위에서도 이 춤사위는 행해지며 굿의 대목에 따라 천천히 추어지기도 하며 도량춤처럼 격렬한 춤이 있는 부분에서는 빠른 춤사위로 진행된다.

□ 손가락 춤사위

- 감장 도는 춤사위와 흡사한데, 정면으로 서서 팔을 구부려 앞으로 하고 하나에 호흡을 들면서 발굽을 들었다 굽힐 때 앞으로 들고 있던 팔도 같이 들었다 놓는다.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서 제를 행할 때 조용히 행해지는데, 청신무 도입 부분이나 송신무 도입 부분에서 심방이 제단을 향해 앉거나 서서 추어지는 동작이다. 정지된 동작이기 때문에 발동작은 없으며 오로지 손동작만으로 동작이 표현된다.

□ 감장 도는 춤사위3. 19쪽. 열는-여는

- 단 쌓기 춤사위와 같은 동작이며 도량춤에 들어가기 전에 추는 사위이기도 하며 옆으로 뿌려 어깨 매기 춤사위도 이 춤사위에 포함된다. 신을 모셔서 즐겁게 하는 오신문에도 추어지는데 격렬하게 뛰면서 들고 장단이 빠르게 진행된다. 초감제 중 군무 열림 부분의 감장도는 춤사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동작은 용왕신을 불러 들여서 신을 맞이하는 청신무로 추어진다.

□ 앞 춤사위

- 군문 열림 부분에서 추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추어지는 춤을 도량춤이라고 하며, 굿당을 긴장시키면서 흥분 속으로 몰아넣은 후 심방이 요란스럽게 춤을 춘다. 도량춤은 빠른 동작으로 굿을 흥분으로 몰아넣는 춤으로 단 쌓기 춤사위 다음으로 다른 사위를 연결해서 빠르게 진행된다.

□ 윗 춤사위

- 양팔을 몸 앞으로 따로 흔들면서 원을 그리듯이 돌려 태극무늬처럼 나타내는

동작이다. 감장 도는 춤사위가 추어지는 부분에서 이 동작이 추어지는데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춤을 춘다. 상하로 움직이기도 하며 단 쌓기 춤사위와 도량춤에서 많이 추어진다. 심방이 흥이 날 때 주로 뛰면서 행해진다.

□ 팔에 걸치기 춤사위

- 왼손에 주발 물을 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춘다. 곳의 모든 부분에서 활용되며, 도량춤과 곳의 격렬한 다른 부분에서도 추어진다. 동작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주로 도는 부분에서 행해진다. 초감제와 군문 열림, 새를 다리고 부분에서 추어지는데 신들이 문을 여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면서 격렬하게 추어진다.

□ 윗 춤사위

- 지진을 든 양팔이나 한 팔을 머리 위에서 상모를 돌리듯 원을 그리듯이 휘둘린다. 정해진 동작이라기보다 즉흥적인 춤사위라고 할 수 있다.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느낌으로 추어지는데, 심방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많이 돌거나 도무한다.

□ 원 그리기 춤사위

- 가장 격렬한 춤직입과 격하 감정으로 추어진다. 양팔을 들고 지진을 위에서부터 떠는 듯이 흔들며 앞을 향해 경쾌한 동작으로 차차 아래로 내리는데, 맴돌면서 추는 춤사위와 모듬 춤사위가 이와 흡사하다. 단쌓기 춤사위와 도량춤 부분에서 격하게 추어진다. 특히 망인의 혼령을 전송할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회오리바람을 막으려는 감정으로 추어진다. 곳을 더욱 더 고조시키면서 망인이나 신을 모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김상기 앞 춤사위

- 양손을 교대하면서 다듬이질하듯 상하로 흔드는 동작이다. 한곳에서 한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돌면서 이 동작을 추는데, 이 춤사위는 뿌려 어깨 매고 뿌려 내리기 춤사위와 비슷하다. 도량춤에서 빠르게 진행되는데 곳의 중반과 빠른 장단 부분에서 일정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추어진다.

□ 모듬 춤사위

- 이 가락에서 저 가락으로 넘어갈 때 엄을 주면서 추는 동작으로, 양팔을 아래에서 위로 뿌려 올리는 동작으로 때로는 한 팔만 쳐 올리는 수도 있다. 신령을 접대하는 마음과 망인이 혼령을 위로하는 감정으로 추어진다. 김상기 들고 추는 춤에서 청신 행위와 심방이 축원 할 때 추어진다. 감장 도는 춤사위의 정면 부분에서도 이 같은 동작이 행해진다. 이 춤사위는 모든 춤사위에 다 연결되며 곳의 각 부분에서 볼 때 쉬어가기도 하면서 이 춤사위로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특히 청신무에서 많이 보여진다.

□ 도량 춤사위

- 아름다운 꽃의 형태를 그리는 춤사위로서 양팔을 둥글게 위로 올려서 양 손목을 밖에서 안으로 꺾어 지진을 옮겨주며 추어진다. 맴돌면서 동작이 행해지는데, 토끼뿔을 뿜듯 뛰면서 하기도 하고 두 발이 착지하듯 몸의 왼쪽으로 동시에 내리고 착지하면 두 팔도 동시에 내린다. 단 쌓기 춤사위와 비슷하며 신을 청하여 어를 때 추어진다.⁴⁹⁾

3

지전살풀이의 지속

3.1 원주 지전살풀이의 전개

- 앞의 이러한 지전춤의 양상을 지역 정체성 차원에서 전승한 것이 원주 지전춤이다. 임은숙(원주에서 성장)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 의해 전통춤에 입문하였다. 아버지에게 배웠던 지전춤은 임은숙 춤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경기무용 김복련에게 살풀이춤을 사사 받으면서 아버지의 지전춤을 더욱 풍성하게 확장하였다. 임은숙은 특유의 지전살풀이로 정착하였다.
- 지속적으로 공연과 전승활동을 해온 임은숙은 자신의 삶과 춤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후 자신의 춤에 근원인 아버지의 춤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의지는 지금까지 쌓아 온 자신의 춤 인생에 전환점이 됨과 동

49) 권범순·임상용, 「제주도 칠머리 당굿과 진도 셋김곳의 춤사위 비교 연구: 지전춤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제9집, 제주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2003.

시에 자신의 춤을 정립해 가는 과정으로 드러나며,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생성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보존회도 마련하였다.

-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춤사위들은 대체로 음양사위, 액막이사위, 바티사위, 바람사위, 달래사위 등으로 구성된다. 음악은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해 자진모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뚜렷하게 적용 음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격적인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보존과 확립을 위해서는 임은숙류 지전살풀이만의 독자적인 음악-강원 영서지역류-이 필요하다. 민속담론에서 볼 때 복식은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춤사위와 잘 어우러지면서 소박하고 담백한 멋을 더욱 살려주는 일면이 있다.
- 무구는 주로 지전을 사용한다. 다른 지역의 지전 제작방법의 차별점은 종이를 끼워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종이를 꼬아서 제작한다는 점이다. 또 지전에 상평통보라고 친필로 기록한 점도 특이점이다.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춤의 특징은 투박하면서도 단순한 디딤새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낸다. 더욱이 담백하며 깊은 순박함이 춤사위를 표현되면서 강원도 영서지역 춤의 보편적인 정서인 한과 멋을 한층 돋보이고 있다.
- 춤 자체가 은은하게 풍기는 편안함과 소박함은 오래된 한옥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더욱 발전해야 한다. 임은숙 춤 기반에 대한 민속신앙 요소도 탐색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지역의 무속적 예인들과 체계적으로 맥락화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의 가치도 확인할 수 있다. 임은숙을 포함한 지전살풀이보존회의 노력은 값지다. 전통공연예술로 창조된 춤사위는 한국 전통무용의 진수를 보이고 무용콘텐츠로써 독자성과 활용성은 매우 크다.

3.2 지전살풀이의 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 전승양상

- 지전살풀이의 의의는 강원도 전통민속춤의 전승에 있다. 강원도 영서지역 무속계통의 춤을 통합적으로 맥락화한 것이라 파악된다.⁵⁰⁾ ‘지전’라는 이름에 전통춤으로 확장된 것이다. 지전이 만들어내는 곡선의 유장함과 선율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지전을 양손에 쥐고서 보여주는 다양한 팔 움직임 춤은 기본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지전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 영서문화권 대표 전통춤이다.

- 강원도 민속신앙 범주에서 굿은 세 단위로 이루어진다. 신을 청하는 과정인 청신(請神), 맞이한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 그리고 신을 다시 돌려보내는 송신(送神)의 구조로 되어 있듯이 임은숙 지전살풀이 역시 춤 안에서 청신·오신·송신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춤사위를 볼 수 있다. 무구의 지전춤과 같이 지전살풀이도 지전을 휘두르며 살을 풀어내고 액을 막는 의미의 춤사위를 연출한다. 여러 동작의 순환 춤사위로 행하지는 않지만, 지전이 갖는 상징성에 맞게 절제되고 경건한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1) 역사적 가치

- 지전은 현실에 존재하는 돈이 아닌 노자돈의 범주에 든다. 곧 저승에서 망자가 사용하는 저승 화폐를 상징화한 무구로, 현재 굿을 기반으로 창조된 현재 연행되는 굿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지전의 유래는 중국의 장례문화에서 시원하여 삼국시대에 불교장례의 유입과 함께 들어왔다. 현재 지전은 장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굿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승되는 굿에서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의 무가가 사용되며, 지전은 호남, 강원도 동해안, 제주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임은숙은 아버지에 의해 춤에 입문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웠던 지전춤은 임은숙 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김복련⁵¹⁾에게 살풀이춤을 사사받으면서 아버지의 지전춤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체기에서 있었던 임은숙은 자신의 삶과 춤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후 자신의 춤에 근원인 아버지의 춤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이러한 의지는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춤 인생에 전환점이 됨과 동시에 자신의 춤을 정립해 가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생성적 역사성과 생활 속 민속예술의 온축성이 내재되어 있다.

2) 예술성

- 임은숙 지전살풀이춤의 저변에는 아버지인 임성도의 춤사위는 지전을 아래로 뿌리는 ‘하향춤’이 많았지만, 임은숙 본인은 위로 뿌리는 ‘상향뿌림춤’이 많다고 구술하였다. 이렇게 지전살풀이는 상·하향 사위춤이 복합된 직곡선적이고, 상하로 진폭이 ‘날개사위춤’의 특징을 보인다. 춤놀이 전형(典型)⁵²⁾인 것이다. 하늘을 향해 내던지듯 지전을 뿌리는 것은 양이요, 땅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은 음이다. 하늘로 뿌리는 지전의 움직임은 내면의 맺힘을 먼 공간으로 확산시키는 양

50) 원주 지전살풀이보존회 자료, 이창식, 「원주지역의 동계와 성신앙」, 『강원민속학』 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51)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살풀이) 이수자.

52) 이창식, 「월정사 탑돌이의 전형과 공연문화」, 『공연문화연구』 3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18, 759-762쪽.

의 기운이며 빛과 자유를 의미한다. 또 아래로 내려뜨리는 동작은 음의 기운으로서 의식을 정화하고 악을 추방한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또한 살풀이춤의 죽은 후 생명의 모태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한국의 삼재(三才)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 지전살풀이의 춤사위들은 음양사위, 액막이사위, 바티사위, 바람사위, 달래사위 등으로 구성된다. 음악은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해 자진모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보존에는 지전살풀이만의 독창적인 음악 추가가 필요하다. 복식은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춤사위와 잘 어우러지면서 소박하고 담백한 멋을 더욱 살려주고 있다. 무구는 지전을 사용한다. 다른 지역의 지전 제작방법의 차별점은 종이를 끼워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종이를 꼬아서 제작한다는 점이다. 지전에 상평통보라고 친필로 디자인한 국면도 특이한 점이다.

3) 학술성

- 아버지인 임성도의 춤사위는 지전을 아래로 뿌리는 ‘하향춤’이 많았지만, 임은숙 자신은 위로 뿌리는 ‘상향뿌림춤’이 많다고 구술하였다. 이 지전살풀이는 상·하향 사위춤이 복합된 직곡선적이고, 상하로 진폭이 ‘날개사위춤’의 특징을 보인다. 하늘을 향해 내던지듯 지전을 뿌리는 것은 양이요, 땅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은 음이다. 하늘로 뿌리는 지전의 움직임은 내면의 맺힘을 먼 공간으로 확산시키는 양의 기운이며 빛과 자유를 의미한다. 또 아래로 내려뜨리는 동작은 음의 기운으로서 의식을 정화하고 악을 추방한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또한 살풀이춤의 죽은 후 생명의 모태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한국의 고유사상과 합치된다. 민속무용인 지전춤 학술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으며, 원주 지역 정체성 연구-원주학-에도 기여성 정도가 크다.
- 지전춤은 체계적인 학습의 계승보다는 자연스럽고 즉흥적이며, 일정한 순서와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즉흥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체계적인 학습은 아닐지라도 아버지와 일부 지역 무용인에게서 보고 배운 것들이 김은숙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재능적인 기량을 보인 춤사위이다. 지전살풀이는 상황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나 형식화된 작품 안에서 약간의 즉흥성을 가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순서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지전살풀이춤의 고유성이 보인다. 이는 향후 타지역 민속춤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4) 공동체 전승단체 의지-정체성

- 굿을 모태로 창안된 예술작품 가운데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재창조된 임은숙 지전살풀이의 예술적 정체성이 있다. 지전춤의 형성과 의미에는 원주지역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임은숙 지전살풀이의 전승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은숙 지전살풀이의 춤사위, 음악, 음식 등에는 민속 공동체 사유와 민속신앙에 보이는 투박하면서도 단순한 디딤새로 인간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다. 더욱이 담백하며 깊은 순박함이 춤사위를 표현되면서 우리춤의 보편적인 정서인 한과 멋을 한층 돋보이고 있다. 무심한 듯 은은하게 풍기는 편안함과 소박함은 오래된 한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여 놀이판, 의례장에 보존회 중심으로 공연하고 있다.
- 지전풀이보존회의 전승 능력은 탁월하다. 구성원 역할에 충실하고 실행 능력에 열정적인 일면이 보인다. 보존회에 대한 역사적 흐름으로 보아 지역 호응과 활동적 역량을 갖추었다. 전승단체 조직이 운영의 묘-교육과 공연-를 살려 잘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춤공연 활동을 통해 활성화되어 있다. 다만 기존 무형유산 단체와의 연대 제한, 전승 공간 확보(현재 체육관) 어려움과 김은숙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일찍 김은숙 춤 공연의 전통이 일찍부터 아리랑축제, 치악문화제 등 지역축제에 수용되고 있다.

제 V 장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형성 배경과 특징**

1. 굿에서의 지전살풀이
2. 지전춤의 형성 배경
3.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생성배경
4.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구성
5.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특징
6.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가치

1

곳에서의 지전살풀이

- 한국의 곳은 종합예술로서 무용을 비롯해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여러 예술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곳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서도 전통문화로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도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¹⁾ 그리하여 지금의 예술 영역에서 곳에 관한 연구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 곳의 연행 과정에서 무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무당은 곳을 통해 신과 인간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소통 과정에서 무악(巫樂), 무무(巫舞), 무경(巫經), 무구(巫具) 등이 나타난다. 특히 무당의 본래 소명은 신의 생각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또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 있다. 즉 무당은 신관(神官)이 되거나 신과 인간과의 교량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진다. 무당은 가무(歌舞)를 통해 신의 생각을 알고 신의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고한다. 그리고 신의 뜻을 예지하여 이를 인간에게 말하고, 기원의 달성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 또한 무의식(巫儀式)에서는 반드시 가무를 수반한다. 귀신은 가무에 의해 만족하고 인간의 기원을 잘 들어준다는 믿음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주술로서, 무당은 가무에 능한 주술자였던 것이다.²⁾ 그러므로 곳이 현재 전승되고 있는 민속 예술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며, 오히려 민속예술의 근간이 바로 곳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곳은 다듬어지지 않은 민중예술이고, 민속예술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민속예술은 민속문화의 범주에 귀속된 예술이다. 민속문화의 자리매김 속에 예술을 구체화 시키면 민속예술의 모습이 드러난다. 민속예술은 민중의 풍속에 속하는 예술로 ‘피지배 집단의 일상화된 전통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³⁾ 즉 민속예술은 민중에 의해 생산되고 전승하는 ‘일상화된 예술’인 것이다.
- 근래에 들어 민중에 의해 일상처럼 나타나던 민속예술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전문화되고, 전문가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곳 역시 그러하다. 전문가에 의해 다듬어진 민속예술이 민속적인 관점을 벗어나 예술적인 관점에서 곳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창작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현재에 들어 곳의 큰 의미는 그대로 둔 채 표현방법을 달리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곳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작된 작품들은 ‘일상화된 예술’로서 곳의 의미와 상징에서

1) 양종승, 홍태한, 『한국의 곳 : 한국 곳 개관』, 민속원, 2003, 11쪽.

2) 서희경, 「진도 씻김굿의 상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지전춤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3, 8쪽.

3) 임재해, 『민속과 예술』, 민속원, 2002, 13~17쪽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자신만의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다.

- 곳에 파생되어 나온 춤에는 본 논문에서 다룬 ‘지전춤’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춤이 있다. 본래 곳에서 연행되던 춤은 공연장에서 시연되는 춤처럼 형식화된 춤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연장에서 시연되는 대다수 춤은 곳의 예술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재구성된 춤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임은숙 역시 그러한 전문가 가운데 하나이다. 임은숙은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로 지전살풀이의 전통을 잇고 있다. 임은숙류 지전살풀이는 무당의 곳에서 파생되어 나온 춤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무당의 곳이 아닌 공연화 된 지전춤과 살풀이춤에서 파생된 춤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전춤의 형성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임은숙의 삶과 춤을 연계하여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생성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구성과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기존에 공연되는 ‘지전춤’, ‘살풀이춤’과는 다른 임은숙류 지전살풀이가 갖는 가치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2

지전춤의 형성 배경

2.1 지전의 의미와 유래

1) 지전의 의미

- 지전(紙錢)은 종이를 돈 모양으로 재단한 것으로 무의식에서 쓰이는 도구이며, 돈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존재하는 화폐의 개념이 아닌 저승에서 망자가 사용하는 저승 화폐로 상징화된 무구이다. 이러한 무구는 현재 연행되는 곳과 곳에서 기원한 다양한 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무구는 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곧 신구(神具)이기도 하다.⁴⁾ 이 종이돈은 망자가 죽고 나서 저승 가는 길에 사용하는 돈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저승에서 사용하는 화폐로서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곳에서 사용되는 지전은 보통 창호지, 한지, 전지 등의 종으로 만들어진다.
- 무당들이 곳에서 사용하는 무구들은 사용과 의미에 따라 그 명칭 또한 달라지는데, 지전도 그렇다. 곳에서 사용되는 지전은 지역별·형태별로 다르고, 용도

에 따라 한 번 더 분류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곳에서 장식되는 지전은 ‘장엄구’라 하고, 무당이 손에 쥐고 있는 지전은 ‘지물’,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의 지전은 ‘예단’이라 부른다.⁵⁾

- 지역에 따라 지전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다. 먼저 경상도에서는 ‘금전’, ‘은전’으로 불리며, 종이를 길게 잘라 미역 줄기처럼 늘어뜨려 놓은 모양이 아닌 둥글고 긴 원통에 종이를 오려 붙인 모양이다. 금전은 노란 색지를 붙이고, 은전은 흰 색지를 붙이며, 장엄구의 용도로 사용된다.
- 전라도 지역에서는 ‘돈전’, ‘지전’, ‘겉연’, ‘넛칼’ 등으로 부르는데, 순천과 진도 일부 지역에서는 돈전과 지전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돈전은 길게 오려진 종이에 동전 모양을 구멍을 낸 모양이고 의례용으로 사용된다. 반면 지전은 구멍을 내지 않은 형태이며 행사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겉연과 넛칼은 군산과 고창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 제주도에서는 ‘기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기메는 동전 형태의 ‘지전’, 원통 형태의 ‘통지전’, 여러 가닥의 지전을 이어 놓은 ‘발지전’ 등으로 구분되며, 창호지나 백지, 흰 천 등을 가지고 신을 형상화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 이처럼 지전의 명칭은 다양하고 모양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종이류를 길게 잘라 하나로 묶은 형태이거나 종이 가닥에 상평통보 모양으로 구멍을 낸 형태이다. 곳에서 사용된 지전은 곳이 끝남과 동시에 태움으로써 그것이 망자의 혼에 전해진다고 믿었다.

2) 지전의 유래

- 지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기록으로 먼저 중국의 문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서(唐書)』 「왕여전(王珣傳)」에 따르면 “한나라부터 장례를 치를 때 모두 관에 돈을 넣는 습관이 있었는데, 저승에 갈 때 또는 육도(六道)를 윤회할 적에 쓸 노갯돈을 넣은 것에 대해 국가에서 통화의 매몰을 금지하였으므로 종이돈으로 사당에 제사 지냈다.”⁶⁾라고 하였다. 즉 한나라 때 돈을 묻는 풍습이 있었으나, 돈을 땅에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돈이 유통되지 않아 국가에서 금지하였고, 지전을 대신해서 묻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은 망자가 죽고 나서 저승 가는 길에 사용하는 돈이 현재 지전의 시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 당 고종 연간(666~668경) 승려 도세에 의해 편찬된 『법원주림(法苑珠林)』에

4) 정병호, 『한국전통예술의 미의식 : 민속 무용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정신문화문고 14, 1985, 187쪽.

5) 최진아, 「지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10.

6) 박한제, 『이십이사차기』 4권, 소명출판, 2009, 132쪽.

따르면 “종이돈은 왕여가 제사에 사용한 것에 유래하였다.”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지전은 은(殷) 장사(長史)에서 일어났는데, 홍경선의 두시변증에 이르기를 제의 동혼후가 귀신의 술을 좋아하여 종이를 가위질해서 돈을 만들어 속백⁸⁾을 대신했으며, 당에 와서 이 일이 성했다.”⁹⁾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지전이 중국 불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지전이 화폐의 개념을 대신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 한편 한국의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 「월명사 도솔가조(月明寺兜率歌條)」이다. 기록에 따르면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종이돈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했다.”¹⁰⁾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현재 한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지전에 관한 기록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다. 일연은 월명사의 제망매가 배경설화 중에서 “嘗爲亡妹營齋作鄉歌祭之 忽有驚飈吹紙錢舉行西而沒”의 내용에 대해 “바람이 지전을 날려 죽은 누이의 저승길 노잣돈을 하게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김종직의 『점필재집(佔畢齋集)』 「복룡도중(伏龍途中)」라는 시에는 “마을개는 사람보고 짓고, 울타리에 구멍이 뚫렸네. 촌 무당은 귀신 맞으려 종이로 돈(紙錢) 만들었네.”¹¹⁾라고 기록되어 있어 지전이 신을 불러오는 청신(請神)으로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 조재삼의 『송남잡지(松男雜識)』에는 “대개 남방 오랑캐들은 아버지가 갓 사망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병이나 항아리를 들고서 물가에서 통곡하고 동전(銅錢)과 지전(紙錢)을 물에 던지고 그 물을 길어다 시신을 목욕시키니, 이것을 ‘매수(買水)’라고 한다.”¹²⁾라고 하였다. 당시 부모가 사망하면 매수라는 장례의식을 치르고, 지전을 노잣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그전 5대 때 후주(後周)에서는 한식에 길가나 들에서 잡신에게 지내던 야제(野祭)에서 단지 종이돈을 불살랐을 뿐이다.”¹³⁾라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한식 때 제사를 지낸 후 종이를 불태웠고, 이때 지전이 신을 보내는 송신(送神)으로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 끝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지전에 관련한 글이 여러 편 보인다. 특히 성종 9년(1478년) 1월 27일 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음사(陰祀)를 금하는 법은 《대전(大典)》에 살려 있어 자세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도성 안에서 야제(野祭)를 행하는 자,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친히 야제(野祭) 및 산천(山川)·성황사(城隍祠)의 제사를 하는 자, 사노비(私奴婢)로서 사사(寺社)와 무격(巫覡)에게 시납(施納)하는 자, 거동하실 때에 노변에서 신에게 제사하는 자, 조부모·부모의 영혼을 무당의 집에 맞이하여 혹은 지전을 쓰거나 혹은 형상을 그리어 향사(享祀)를 배설하는 자, 상인이 무격에게 가서 음사를 행하는 자 공창·무격을 믿는 자 같은 것은 이미 금단하게 하였는데, 유사가 받들어 행하는 것이 점점 해이하여지니, 금후로는 한결같이 《대전(大典)》에 의하여 엄하게 규찰(糾察)을 가하라.¹⁴⁾

- 위에 글을 보면 당시 조정에서 개인이 신을 모시는 제사를 엄하게 단속하였으나 민간에서는 제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 제사에서 지전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중종 12년(1517년) 8월 13일 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각사 안에 다들 신을 설치하여 제사하는 것이 있는데, ‘부근(付根)’이라 한다. 행해온 지 이미 오래므로 능히 혁파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때 이르러 사헌부가 먼저 지전을 불사르고 각사에 관자를 보내 불사르게 하여 그 제사를 금지하니, 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였다.
-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중국에서 지전은 사람이 죽은 후 제의 의식에 두루 사용되었고, 제의 의식 속에 그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지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며, 그 의미 역시 중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도 지전은 다양한 곳에서 죽은 망자를 위해 쓰이는 도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3) 지전의 형태

- 지전은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그 기능이 다양한 만큼 주요 재료가 되는 종이의 종류도, 한지, 창호지, 전지 등이 사용된다. 재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궁청에 장식되는 것은 주로 한지를 사용하고, 지물(持物)은 창호지와 전지로 만들어진다. 지전은 주로 한 쌍으로 구성된다. 대다수의 지전춤에서 사용하는 지전은 보통 창호지로 만들며, 춤추는 사람의 체형에 맞게끔 길이를 조정한다.
- 지전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커다란 돈케의 모양으로, 가까이서 보면 종이 가닥을 모아서 만든 모습이다. 그 하단은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은 형태로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민속놀이에 사용되는 ‘제기’를 크게 확대하여 뒤집어 놓은 모습과 닮아있다. 황해도·서울·경기·동해안 지역에서 제작되는 금전은 전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금전은 노란색 종이로, 은전은 흰색 종이로 만들어진다.

7) 강민구, 『교감국역 송남잡지』 6권, 소명출판, 2008, 209쪽.

8) 속백은 방문할 때 주고받는 예물로 줄로 비단이 사용되었다.

9) 나경수, 『향가문학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323쪽.

10) 유중, 『하룻밤에 읽는 삼국유사』, 사군자, 2010, 309~310쪽.

11) 임정기, 『점필재집2』, 민족문화추진회, 1996, 342쪽.

12) 강민구, 『교감국역 송남잡지』, 위의 책, 327~328쪽.

13) 최대림, 『동국세시기』, 흥신문화사, 1989, 68~69쪽.

14) 『조선왕조실록』 29권, 국편영인본 15책, 313쪽.

- 둘째는 긴 종이 가닥을 여러 겹으로 모은 후 한데 묶은 형태이다. 엽전을 형상화하기 위해 종이 가닥에 구멍을 내서 마치 엽전 다발을 길게 늘어뜨린 모양이다. 이 형태 중에는 엽전을 상징한 구멍을 뚫지 않아, 마치 미역 줄기 모양을 연상시키는 것도 있다. 완성된 지전 위에는 고깔 모양이나 그물문양의 덮개를 씌우기도 하는데, 전라남도의 지전과 돈전, 제주도의 발지전이 이에 해당한다. 그 크기는 작은 것은 50~60cm 내외, 큰 것은 120cm 내외까지 다양하다.
- 셋째는 직사각형의 종이에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구멍을 오리는 형태로, 제주도의 통지전이 이에 해당한다. 직사각형의 백지를 여러 겹 접은 후 가위로 구멍을 만들고 나서 펼치면 둥그런 모양이 줄지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돈을 의미한다.¹⁵⁾
- 이러한 지전은 망자에게 저승에서의 삶이 안녕하도록 기원하는 의미의 무구로서 우리 조상의 내세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죽음으로써 생이 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여김으로써 이생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슬픔과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도록 하는 철학이 담긴 것이다.
- 무당의 의례도구인 지전은 ‘종이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고서의 기록에 따르면 지전은 노жат돈, 영신(迎新)과 송신(送神), 벽사(辟邪), 신상(神像)등의 성격 등이 있다. 또한 지전이 쓰일 때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격 중에 하나의 성격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2.2 지전춤의 발생

- 세계 공통으로 춤의 발생은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포를 대처하기 위해 종교나 신앙적인 무의식(巫儀式), 관혼상제(冠婚喪祭) 등의 생활사에서 비롯되었다. 무의식적으로 추는 원시 무용이 종교와 융화되고 예술로 승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신을 갈망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인간의 운명에 관여하려는 범위까지 넓혀간 것이다.¹⁶⁾
- 춤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면서 일상생활과 결부되어 오직 생활 자체를 위하여 존속하였다. 원시인들이 자연의 힘을 신으로부터 받아 모시는 무속적인 종교의식에서 비롯한 집단 가무가 무용의 기원이 된 것이다. 민간신앙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무속(巫俗)은 원시시대 즉 BC 3~4세기경부터 자연히 발생하여 독특한 종합예술의 형태를 지켜왔다. 이 무속적인 종교의식은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발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무의 기능이 미술, 음악, 문학, 무용

- 등으로 분화되었다. 즉 종교적인 의식춤이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춘 예술적인 춤으로 발전하고, 민간으로 퍼져나가 민중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로도 발전한 것이다.
- 굿춤이 연행되는 공간은 바로 굿판이다. 이 공간에서 무당이 추는 춤 외에 다른 춤은 굿춤을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당춤이란 무엇일까? 무당이 굿판에서 추는 춤뿐만 아니라 무용가들이 굿판에서 작표화하여 추는 춤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무용가들의 무당춤은 신격과는 전혀 무관하며, 무당의 굿판과는 다른 공간을 형성한다.
- 굿춤은 의식무의 형태로 손에 무엇을 들고 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징성을 나타내며, 여러 형태의 다양한 상징성을 갖는 무구 중에서 지전을 들고 추는 춤을 지전춤이라고 한다. 굿춤에는 망자의 혼을 달래준다는 뜻의 진혼무와 망자의 혼을 씻겨서 위로해준다는 뜻의 세령무가 있다. 진혼무와 세령무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둘 다 망자의 혼을 달래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혼을 씻겨서 극락왕생하길 바라며, 저승으로 잘 보내준다는 적극적인 성향이 강한 세령무가 지전춤의 성격과 더 부합된다.
-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굿에서 사용되는 무구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	무구
호남	지전, 신칼, 매듭띠, 넝, 망자옷, 정주, 손대 등
동해안	지전, 신칼, 신밥, 꽃, 바라, 부채, 방울 등
서울 및 이북	명종(名鐘)의 신기(神旗), 대소신칼, 부채, 방울, 영복(靈腹)
경기	신칼, 부채, 방울, 팽과리, 활, 철릭소매, 채금 등
제주	지전, 신칼, 부채, 요령, 감상기(산대), 산판 등

<표13> 굿에서 사용되는 지역별 무구

- 위의 표처럼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의 무구가 사용되며, 지전은 호남, 동해안, 제주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당춤은 무구의 영향으로 춤사위가 자생적으로 파생되고, 그 춤사위가 보편성을 띠면서 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전춤도 무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춤이지만, 생성 당시의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중국에서 기원한 지전이 삼국시대 때 유입되었고,

1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편』, 2009, 817~818쪽.
 16) 김매자, 『한국 무용사』, 삼신각, 1995, 14~15쪽.

이후 곳에서 지전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지물의 하나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재까지 지전춤이 가장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곳은 전라도 지역으로, 전라도 씻김굿에서 지전의 사용이 가장 빈번하다. 씻김굿의 ‘씻김’이란 말은 원래 ‘세탁’한다는 뜻과 같다. 씻김굿이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 씻겨줌으로써 저승으로 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무속적 제의이다. 그래서 곧 씻김굿은 망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하고 맺혀 있는 원한을 풀어주고 닳을 씻겨 저승에 천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뜻을 담은 굿이다.
- 씻김굿의 거리별 무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서	굿의 거리	무구
1	안당	없음
2	혼맞이	없음
3	초가망석	지전, 신대
4	손님굿	지전, 신대
5	제석굿	복개, 지전, 해물고기, 액그릇
6	조상굿	지전
7	고풀이	고풀이베
8	영돈말이	지전, 망자옷, 누룩, 행기, 닳전, 솔뚜껍(바가지), 돛자, 빗자루, 썩물, 향물, 청계수, 행기
9	이슬털기	지전, 망자옷, 누룩, 행기, 닳전, 솔뚜껍(바가지), 돛자, 빗자루, 썩물, 향물, 청계수, 행기
10	닳올리기	지전, 닳전
11	희설	없음
12	길뒹음	길베, 닳당석, 망자옷, 닳전, 지전
13	중천	무구를 모두 태운다.

<표14> 씻김굿 각 거리에서 사용하는 무구¹⁷⁾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씻김굿에서는 초가망석, 손님굿, 제석굿, 조상굿, 영돈말이, 이슬털기, 닳올리기, 길뒹음의 거리에서 지전을 사용된다. 이 거리에서

지전춤은 바람막이, 외바람막이, 가위질, 태극무늬, 좌우치기, 상모놀음, 회오리바람, 쳐올리기, 꽃봉오리 등과 같은 춤사위가 나타난다. 이러한 춤사위는 굿의 내용을 설명하고 심화시키며, 굿의 시작과 종결을 짓고, 굿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동해안 지역에서는 지전을 밝이춤에서 사용하고 있다. 밝이춤은 동해안 지역 중 경상도 지역에만 나타나며, 다른 지역의 춤사위보다 그 형태가 다양하다. 춤사위는 갈매무관, 돌몰이무관, 손신무관, 비빔무관, 등맞추기, 배맞추기, 좌우치기, 겨드랑문관, 양사위치기, 까치던기, 뒤로돌려 뿌리기, 밀치기, 안유짜기, 얽은사위, 느름손치기 등이다. 끝으로 제주 지역에는 주로 신칼을 들고 춤을 추는데, 춤사위는 도랑춤, 신맞이, 진쌍기, 팔에 걸치기, 뿌려 어깨에 메고 뿌려 내리기, 옆으로 뿌려 어깨에 메기 등이다.
- 한편 지전춤의 지전이 살풀이춤에 쓰이는 수건의 상징적인 의미와 같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전춤과 살풀이춤은 액을 막고 살을 푼다는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춤사위 형태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때방의 말에 따르면 남도 굿에서의 돈전이 기방에서 무용화됨에 따라 수건으로 대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건의 길이와 소재는 때와 장소, 즉 춤을 추는 공간과 의미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질적으로 지전춤과 살풀이춤은 닳을 ‘풀고’, ‘맺고’, ‘승화’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이 지전과 수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전춤의 지전과 마찬가지로 살풀이춤의 수건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다만 무속이 국가적 차원에서 배척되자 무당들은 특수예인집단에 가담하여 민중이 생활에 깊이 파고들면서 무용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때 무속의 변화 과정에서 무당들이 추던 춤, 즉 한을 풀어주기 위해 지전과 신칼을 들고 추었던 춤이 신분의 변화로 수건의 형태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다.¹⁸⁾
- 지전은 씻김굿의 중요한 춤의 도구이기도 하고 돈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저승 가는 길에 넉넉하게 노잣돈을 하고, 또 이승에서 못다 누린 부(富)를 저승에 서라도 누리고 환생 시에는 부자로 태어나라는 기원에서 행해진다. 지전춤은 ‘종이돈을 들고 추는 춤’이란 말로, 춤의 형태나 기능에 의한 이름이 아니라 부채춤처럼 춤을 출 때 손에 든 소품에 의한 이름이다. 그러나 씻김굿에서의 지전이 비록 의례도구의 일종에 불과할지라도 씻김굿의 주목적인 망자(亡子)를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써의 도구가 된 것이다.
- 이러한 상징성을 전달하기 위해 무당들은 지전을 들고 춤을 추었다. 이후 무용가들이 굿판에서 추는 춤을 모태로 하여 무대화한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고, 그 가운데 지전을 사용하는 춤도 함께 발생하였다. 공연물로서의 지전춤은 양식화

17) 서희경, 위의 논문, 29쪽.

18) 장희선, 「살풀이 구조분석 한영숙 기본 살풀이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2, 62쪽.

된 하나의 작품으로서 ‘미(美)’를 보여주는 춤이 된다. 그 과정에서 춤의 형식이나 동작은 변모하고, 무엇보다도 춤의 의미가 달라졌다. 즉 지전춤의 원래의 역할로서 영혼을 씻기거나 신에게 땅자의 안녕을 비는 상징성은 약화하고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형상화되었다.

3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생성 배경

- 지전춤과 지전살풀이는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전춤은 진도씻김굿에서 지전을 사용해서 추는 춤을 말하며, 다수 논문과 서적에서는 지전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은숙은 자신의 춤을 ‘지전살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종전의 지전춤이 아니라 지전춤과 살풀이춤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임은숙의 삶과 연계하여 지전살풀이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3.1 임은숙의 삶과 춤

1) 임은숙과 아버지

- 임은숙은 1959년 4월 1일 원주시 학성동에서 태어났다. 부친 김성도와 모친 박분필이¹⁹⁾ 사이에서 6남매 중 셋째였다. 임은숙은 원주 태생이나 부친의 고향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천(현재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이다. 현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소도 석천에 있다. 임은숙의 춤 인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임은숙의 아버지이다. 임은숙의 언니 임연화는 아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석천에서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춤을 잘 추고, 장구도 잘 치고, 상모 돌리는 것으로 유명했죠. 동네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였죠. 아버지가 특별히 일한 것은 아니고 한량으로 지냈어요. 원주 봉산동에서 와서 유기 공장을 운영했지만,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굿판에는 다 가신 것 같아요.²⁰⁾

19) 임은숙의 언니인 임연화는 “어머니는 이름이 박분필이. 박자 문자 필자 이자. 그 사람들이 이거 기록을 못하고 이리 뭐냐? 박분필이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장까지 가서 고쳐 가지고 우리 엄마가 박분필이가 돼버린 거예요.”라고 하였다. 임은숙과의 2차 면담(2022년 9월 26일)

20) 임은숙과의 1차 면담(2022년 7월 5일)

- 임은숙 또한 아버지가 춤에 능하고, 악기 다루는 데 있어 남다른 능력을 소유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임은숙의 할아버지는 말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여 돈을 벌었고, 집안의 농사는 큰아버지가 도맡아 했다. 집안 살림살이는 넉넉한 편이어서 임은숙의 아버지는 봉화에서 한량으로 지냈다고 하였다. 임은숙의 아버지는 봉화를 비롯해 인근에서 굿판이 열리면 모두 찾아갔고, 특히 춤에 관심도 많아 기생집을 드나들며 기생들에게 다양한 춤을 배웠다고 하였다. 현재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뿌리가 되는 아버지의 지전춤도 이때 기생에게 배운 것이라고 하였다.



<사진34> 임은숙 아버지 임성도

- 임은숙의 아버지는 결혼 후 자식 교육을 위해 원주로 이주하였다. 당시 고모부가 원주 봉산동(현재 태장 1동)에 유기 공장을 차리면서 아버지에게 유기 공장을 맡겼다. 그러나 임은숙의 아버지는 유기 공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봉화에 살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날 때마다 무당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다. 특히 봉산동은 원주에서도 무당들이 많기로 소문난 동네였는데, 굿판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송보살이라는 무당이 아버지를 데리러 왔다. 임은숙의 아버지는 송보살이 주재하는 굿판에서 장구도 쳐주고 북도 쳐주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 모습을 본 임은숙은 “그때 아버지를 무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다니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어요.”²¹⁾라고 말한다.

2) 춤 입문과 성장기

21) 임은숙과의 2차 면담(2022년 9월 26일)

- 임은숙이 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시기는 4살 때 봉산동으로 이사하면서부터였다. 임은숙의 집은 산 1번지로 군부대 위에 있었고, 집 뒤로 무진고개 성황당, 무진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임은숙은 봉산동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유년기를 보냈다.

내 나이 6살이 되던 해부터는 몸이 많이 쇠약해 시남이 앓기 시작하여 원주시에 좋다는 병원과 좋다는 약은 다 먹어도 병에 차도가 없자 아버지께서는 무당을 불러서 큰 곳을 하게 되었다. 곳판에서 무당들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딸을 업고 치악산을 올라가면 발을 멈추는 곳에서 땅을 파보면 무언가 나올 것이라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발을 멈춘 곳에서 땅을 파니 향아리가 나왔다. 아버지는 그 향아리를 가지고 나를 업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내려오셨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 이후 아프지 않았다.²²⁾

-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임은숙은 6살이 되던 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았다. 아버지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아버지는 무당을 불러 큰 곳을 하였다. 무당은 아버지에게 딸을 업고 치악산을 오르며 발이 멈춘 곳을 파고, 그곳에 있는 것을 갖고 오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무당을 말대로 행하자 발을 멈춘 곳에서 향아리가 나왔고, 향아리를 가져오자 임은숙의 병은 씻은 듯이 나왔다.
- 이후 임은숙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춤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다.²³⁾ 아버지는 봉화군에서 유명한 기생을 원주로 불러와 임은숙에게 춤을 가르치게 하였다. 임은숙의 첫 번째 스승으로 볼 수 있는 김씨 성의 기생은 아버지가 봉화 때부터 알고 지냈던 인물로, 경상도 권번에서 춤과 장구를 배웠다고 하였다. 당시 기생에게서는 지전춤이 아닌 기방에서 추는 기방무(妓房舞)를 배웠다.

이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좋아하는 옛날 기생이었던 분에게 장구 춤 노래를 가르쳐 줄 것을 권유하였고 아줌마와 아버지는 나를 핑계로 매일 우리 집에서 만나신 것 같다.

- 중략 -

기생 아줌마는 반나절은 나를 장구춤을 가리키고 오후에는 아버지와 나가셨다. 아버지는 늦게야 집에 오셨다. 저녁에는 아버지께서 지전춤을 조금씩 가르쳤고 지전 접는 것도 가르치셨다.²⁴⁾

- 임은숙의 아버지는 기생이 다녀간 저녁이면 임은숙에게 지전춤을 가르쳤고, 틈

틈이 지전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당시 6살에 어린 나이였던 임은숙은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배우기 싫었다고 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와 손위 언니였던 임연화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춤을 배우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족들은 생각은 무시한 채 임은숙에게 지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항상 효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춤을 출 때도 효를 생각하고 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아버지는 임은숙 춤 인생의 시작이며, 이후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3) 발전기와 정체기

- 임은숙이 자신의 의지로 춤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아버지의 선소리와 지전춤을 피해 당시 원주에 있던 국제 무용소를 2년간 다니며, 기본춤과 창작춤을 배웠다. 이후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제일 무용학원에서 3년을 배웠다. 한편 아버지는 틈틈이 성인이 된 임은숙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지전춤을 가르쳤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난 임은숙은 오랜 공백기를 맞았다. 더욱이 42세에 임은숙 춤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이자 후원자였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더는 춤을 출 이유가 없었다.
- 임은숙이 다시 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48세였다. 이에 손위 언니인 임연화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 예능 보유자인 김복련²⁵⁾을 소개하였다. 임연화는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임은숙의 춤을 인정했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동생의 재능을 아까워했던 임연화는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에서 임은숙 춤 인생에 제2의 스승인 김복련을 만나게 하였다.

저는 춤을 출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김복련 선생, 내 친구한테 해줄까 하다가 김복련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집이 수원이니까. 그럼 여기 가서 다듬어라.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듬으라고 그랬어요.²⁶⁾

- 임은숙은 4~5년간 원주에서 수원을 오가며, 김복련에게 살풀이춤을 비롯해 승무, 기방무, 한량무, 칼춤 등을 배웠다. 특히 살풀이춤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지전춤과는 달리 지전 대신 수건을 무구로 사용하였고, 아버지의 춤에서 벗어나

22) 임은숙과의 2차 면담(2022년 9월 26일)

23) 임은숙과 언니 임연화에 따르면 아버지는 유독 임은숙을 이뻐했다고 하며, 춤 또한 세 딸 가운데 임은숙에게만 가르쳤다고 한다. 그 까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위의 일화가 계기 된 것으로 보인다.

24) 임은숙과의 2차 면담(2022년 9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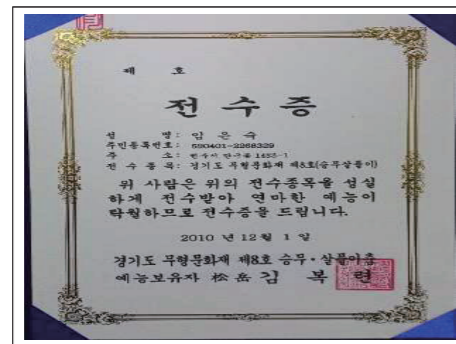
25) 김복련의 살풀이춤은 민속 음악 가운데 살풀이라는 남도 음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본래 무당들이 신을 접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었던 춤이었다. 살풀이춤은 훗날 광대나 기생들에 의해 교방예술로 발전되어 춤의 내용이 한층 예술적으로 다듬어지면서 아름다운 기법과 형식으로 갖춘 춤으로 발전하였고, 그 중심에 김복련이 있었다.

26) 임은숙과의 2차 면담(2022년 9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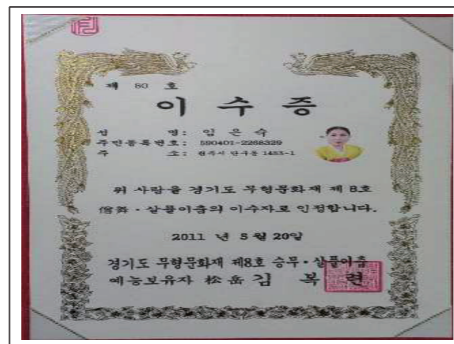
서 또 다른 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임은숙은 아버지의 지전춤과 김복련의 살풀이춤이 갖는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히 살풀이춤의 경우 김복련 선생님께 배운 살풀이춤과 아버지에게 배운 지전춤과는 차이를 보여요. 김복련 선생님의 살풀이춤은 처 내는 방식, 발의 덧음새, 손동작이 다르죠. 경기 살풀이춤은 지전이 아니라 수건 두 개로 했어요. 가장 큰 차이라면 수건으로 했다는 점이고, 춤사위에서도 아버지의 지전춤과는 발의 덧음새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²⁷⁾

-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임은숙은 김복련에게 살풀이춤을 이수 받은 후 아버지의 지전춤과 김복련의 살풀이춤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였다. 이는 훗날 아버지가 뿌리를 내린 지전춤의 바탕에 살풀이춤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덧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35>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 전수증



<사진36>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 이수증

- 임은숙은 김복련에게 살풀이춤을 사사 받은 후, 2010년부터 원주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원주시지부 전수소'를 건립하고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춤을 가르쳤다. 본인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 9년 동안 진도를 오가며 전남무형문화재 제18호 박관용에게 진도복놀이를 사사 받았다. 이후 '전국 전통춤·연희경연대회'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상을 받으며 정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진37> 제2회 전국 전통춤·연희경연대회 대상 상장



<사진38> 제2회 전국 전통춤·연희경연대회 공연 장면

27) 임은숙과의 2차 면담(2022년 9월 26일)

년도	공연 및 활동경력
2010년(52세)	- 황충로 헌다래 공연 - 원주 풋살연합회 공연 - 동해안 무릉재 공연 - 원주 문화의 거리 공연 - 원주 문화원 공연 - 동해 재래시장 공연 - 지부설립 허가
2011년(53세)	- 진도 노인복지관 공연 - 아시아 예술협회 공연 - 한마음 음악회 공연 - 한반도 문화예술협회 공연 - 원주 열린음악회 공연 - 필리핀 마닐라 공연
2012년(54세)	- 보경사 공연 - 원주 체육대회 공연 - 원주 복지관 공연 - 한마음 체육대회 공연 - 제1회 전통춤 발표회 공연
2013년(55세)	- 원주 백운아트홀 공연 - 용화사 49제 공연 - 세계 조정선수권대회 공연 - 충주 사과축제 공연
2014년(56세)	- 충주세계무술축제 식전공연 - 상주 아리랑축제 공연 - 안중근, 우덕순 의사 유묵전 공연 - 한국공연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식전공연

<표15> 임은숙의 공연 및 활동경력

- 임은숙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주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하였다. 이때가 임은숙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시기였다. 특히 2011년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은숙 춤 인생의 전성기는 그리 오랫동안 가지 않았다. 임은숙은 이후 침체기를 겪었고, 생업과 병행하며 공연하다 보니 2014년 이후 공연 및 활동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 끝으로 2014년도 ‘한국공연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연하였는데, 이때 민

속 학자 심우성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주었다.

「넋전 아리랑」

1945년 ‘해방의 해’ 까지만 해도, 조국이 둘로 갈라지질 않았었다.

3천리에 세워졌던 법당(法堂)과 「굿청」에서는 ‘종이’를 올려 「넋전」을 접어 양손에 들고 「아리랑」을 부르며, 「넋전 춤」을 추는 곳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넋전 아리랑」, 그것은 우리 겨레가 읊조린 애환(哀歡)의 노래요, 의례(儀禮)스러운 춤이기도 했었는데, 어이하여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날, 불가에서는 「넋전 춤」을 전무(奠舞), 또는 지전(紙錢)이라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무가(巫歌)에서는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넋전 춤」이 이어지고 있는 「굿판」이 간혹 남아 있다.

아시다시피 「넋전」이란 ‘넋’을 모양내어 종이를 올려 꾸민 「종이 사람」임은 물론이다. 「종이 인형」을 들고 「아리랑」을 부르며 춤추는 「넋전 아리랑」 아름다운 유희로서 「공연문화」의 한 줄기를 이어질만 한 것이다.

또 한가지,

「굿청」을 장식하며 경(經)을 읊었던 「설위설경(設位說經)」, 역시 뛰어난 ‘장식’이요, ‘외침’이라 하겠다.

『얼싸안음의 겨레 사랑!』
함께 노래하며, 춤 추었던 「넋전 아리랑」 소중한 자랑거리라 하겠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진 오늘에는 어찌다 「넋전 아리랑」을 놓고 「넋전」은 모두 떼어 아낌없이 태워 버리고 만다.

왜 이럴까?

오늘의 「넋전 아리랑」에는 날아온 「잡귀·잡신」이 묻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허 허

이 고약한 「잡귀·잡신」
우리 힘을 다하여 깨끗이 없애 버려야 하질 않을까.
나라를 어서 고쳐
바로 세우질 않고서는
난리는 계속될 것이로다.

삼가
아뢰입니다.

「단군왕검」 이시어
부디 보살피
주옵소서

만만세 하여 주옵소서! 글,	2014년 5월 5일 ‘어린이 날’ 쓴 시시하지 않은 시라도 되었으면, 심우성.
---------------------------	--

3.2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생성

- 임은숙의 삶과 춤에서도 다뤘듯이 임은숙은 아버지에 의해 춤에 입문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웠던 지전춤은 임은숙 춤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임은숙은 김복련에게 살풀이춤을 사사 받으면서 아버지의 지전춤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하지만 임은숙은 아버지의 지전춤과 김복련의 살풀이춤을 한층 예술적으로 다듬고, 아름다운 기법과 형식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 당시 담보상태에 있던 김은숙이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여기저기 옛날 고전 무용을 배우러 다녔건만, 아버지의 구음 소리에 맞춰 지전 춤을 추는 것만 못했다. 다 그만두고 다시 아버지의 구음에 맞춰 지전춤을 배우고 지전을 만드는 방식도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장소리 구음>

합 따닥 쿵 따다닥 쿵쿵합 쿵 따다닥
 쿵 따다닥 쿵 따다닥 쿵따닥 쿠궁 합

-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임은숙은 자신의 삶과 춤을 되돌아보고 깊은 회한 느꼈다. 그러나 자신의 춤에 근원인 아버지의 춤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이러한 의지는 지금까지 쌓아 온 자신의 춤 인생에 전환점이 될 과 동시에 자신의 춤을 정립해 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찰은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생성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 전통이란 형상화된 유물(遺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상으로 존재하는 집단문화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모태며, 가치 기준이다. 그러나 전통은 반드시 창조를 바탕으로 계승되어야 하며 전통의 계승과 재현(再現)의 개념은 혼동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즉 선인들의 모방은 창조의 선행전범으로서만 그 가치를 가질 뿐,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전통을 찾고 이어

갈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전통의 계승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해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적이면서 인류 공동의 문화관을 갖는 것이다.²⁸⁾

- 결과적으로 임은숙류 지전살풀이는 과거의 거칠고 투박했던 춤사위에서 벗어나 우아하고 멋스러운 동작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새하얀 지전을 뿌리고, 흔들고, 휘젓는 동작들에서 나타나는 곡선들은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우아함을 한층 더 가미시킨다. 백색의 무복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숭고함과 단정함을 느끼게 해주며, 이런 백색 의상과 같은 색의 지전은 지전살풀이의 예술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4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구성

- 주지하다시피 임은숙류 지전살풀이는 아버지에게 배운 지전춤과 김복련에게 배운 살풀이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든 춤이다. 그 춤사위들은 음양사위, 액막이사위, 바티사위, 바람사위, 달래사위 등으로 구성된다.

4.1 춤사위

1) 음양사위

- 양손을 들고 돌면서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한국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음양(陰陽)사상을 바탕으로 생성된 동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조화로운 중용을 추구하는 춤사위이다. 음양사상은 춤의 공간에서 상·하, 좌·우, 내·외, 전·후의 동작으로 안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액막이사위

- 양손을 감아서 두 손 모아 뿌리는 동작으로, 호남 지역 의례에서 의례의 시작을 알리는 안당²⁹⁾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액막이 고사가 행해진다. 이때 각각

28) 송수남, 「한국무용사」, 도서출판 금광, 23~24쪽

29) 전남 진도의 씻김굿의 한 무가로 안당은 성주께 굿을 알리는 세 번째 거리에서 불리는 무가이다.

의 거리가 끝날 때마다 쌀을 뿌리면서 액이나 살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의식이 행해진다. 지전살풀이에서 지전을 뿌리는 동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액을 막고 살을 푸는 춤사위로 지전살풀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춤사위의 하나이다.

3) 바티사위

- 지전을 모은 채 공중으로 올려 받드는 동작으로 지전살풀이의 춤 철학에서 가장 강조되는 효(孝)사상을 내포한 춤사위이다. ‘바티’는 ‘받치다’의 옛말로 ‘받들고 섬기다’는 의미이다. 임은숙의 아버지는 춤을 출 때 항상 효를 생각하고 취야 한다고 임은숙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이 춤사위는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뉘을 기리는 의미의 상징성을 내포한 춤사위이다.

4) 바람사위

- 오른손을 들고 휘몰아치는 동작으로 회전을 하며 생기는 원심력이 돋보이는 춤사위로 빠른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흔들리는 지전의 모양이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을 형상화한 춤사위이다. 바람을 일으켜 망자의 넋을 극락세계로 올라갈 수 있게 도우려는 의미가 담긴 춤사위이다.

5) 달래사위

- 지전을 어깨에 메고 가는 동작으로 지전살풀이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요 동작이다. 망자의 저승길에 가장 중요한 수단인 지전을 소중히 어깨에 짊어지고 망자의 혼을 어르고 달래서 고이 보내드리는 송신(送神)의 의미를 춤에 담고 있다.

4.2 음악

- 일반적으로 셋김굿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시나위라고 한다. 시나위를 연주하는 악기의 구성으로는 피리, 해금, 장구, 북, 징으로 편성된다. 음악의 전반부는 굿거리장단으로 후반부는 자진모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임은숙의 증언에 의하면 어릴 적 아버지에게 지전살풀이를 배울 시기에는 아버지의 구음과 장구 장단에 의존하여 춤을 추었다고 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전살풀이를 연구·정립하는 시기에는 전용 음악이 없었고, 과거 자신이 전라도 지역의 대회에서 살풀이로 대상을 수상한 라이브 음악을 녹음하여 사용하고 있다.
- 향후 본격적인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확립과 보존을 위해서는 임은숙류 지전살풀이만의 독창적인 음악이 필요하다. 현재 공연과 강습용으로 사용되는 음악은 구음이 배제된 굿거리 87장단과 자진모리 47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4.3 복식

1) 복장

- 무복은 굿할 때 무당이 입는 옷으로 신복(神服)이라고도 하는데, 굿에 있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신의 성격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무복은 굿의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공연화 된 춤에서도 동일하다. 임은숙의 아버지는 명주와 모시로 된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착용하였으나, 임은숙은 흰색 저고리와 치마, 쾌자를 착용하였다. 사진에서 보듯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복식은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러한 복식은 춤사위와 잘 어우러지면서 소박하고 담백한 멋을 더욱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39> 지전살풀이 복장

- 임은숙은 아버지가 입었던 복장에서 착안하여 장식이나 무늬 없이 새하얀색의 복장을 하였다. 전통춤의 경우 간혹 무대화되면서 복식이 화려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임은숙류 지전살풀이는 원형에서 큰 변화 없이 단순한 무복을 추구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임은숙류 지전살풀이는 백색이 갖는 미학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통적으로 백색은 장례의 복색이다. 장례의식에서 굿은 죽은 자의 인생에서의 한을 풀어주고, 씻겨주기 위한 것이다. 살풀이춤 역시 하얀 복색을 하고, 흰 수건을 들고 춤을 추기 때문에 다른 전통춤에 비해 애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임은숙류 지전살풀이도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무구

① 지전

-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무구는 지전을 사용한다. 지전은 한 쌍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지전의 총 길이는 90cm이고, 폭은 약 45cm이다. 손대의 길이는 10cm, 수술의 길이는 15cm이다. 지전의 길이는 70cm이다. 지전은 아버지가 전수한 방법에서 변형 없이 임은숙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양손에 각각 하나씩 들고 춤을 추기 때문에 2개의 지전이 필요하며, 한쪽에 1월부터 12월을 상징하는 12개를 제작하고 보통 500개씩 묶는다.



<사진40>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지전

② 지전 만드는 방법

- 다른 지역의 지전 제작방법의 차별점은 종이를 끼워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종이를 꼬아서 제작한다는 점이다. 또 지전에 상평통보라고 친필로 기록한 점도 특이점이다.
- 지전 제작방법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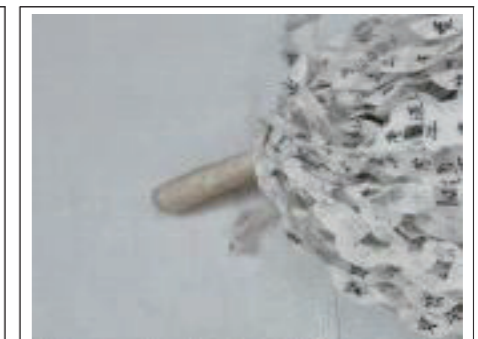
<사진41> ㉠ 종이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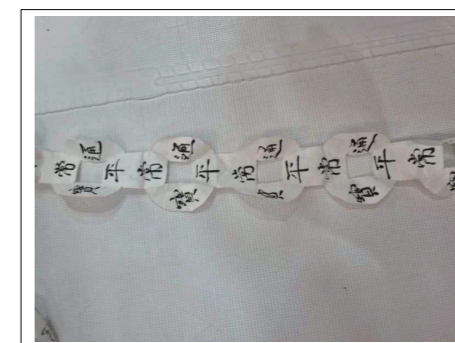
<사진42> ㉡ 종이 오리기



<사진43> ㉢ 수술 만들기



<사진44> ㉣ 손대 만들기



<사진45> ㉤ 상평통보 쓰기

5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특징

- 신체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예술 형식으로서의 무용은 잘 다듬어진 무용적 기초 위에 무용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예술로서 승화된 다. 무용은 인간의 육체를 매개체로 표현하는 예술이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동작들은 조형예술, 음악, 문학, 역사 등의 혼합체로서 하나의 종합예술 작품이 된다. 즉 하나의 작품에는 다양한 미적 성질들이 나타날 수 있다.
- 임은숙류 지전살풀이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미적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춤은 신체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감정과 사상을 표출하며, 또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임은숙류 지전살풀이는 하얀 지전을 무구로 사용하고 있다. 즉 지전이 만들어내는 곡선이 선의 유려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지전을 양손에 쥐고서 보여주는 다양한 팔 움직임들은 기본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지전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모든 굿은 신을 청하는 과정인 청신(請神), 맞이한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 그리고 신을 다시 돌려보내는 송신(送神)의 구조로 되어있듯 임은숙류 지전살풀이 역시 춤 안에서 청신·오신·송신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춤사위를 볼 수 있다. 무구의 지전춤과 같이 지전살풀이도 지전을 휘두르며 살을 풀어내고 액을 막는 의미의 춤사위를 연출한다. 다양한 동작의 춤사위로 행하지는 않지만, 지전이 갖는 상징성에 맞게 절제되고 경건한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춤사위는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전승되어 오긴 했다. 그러나 체계적인 학습의 계승보다는 자연스럽고 즉흥적이며, 일정한 순서와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즉흥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체계적인 학습은 아닐지라도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체습(體習)되어 나온 춤사위이다. 지전살풀이는 상황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나 형식화된 작품 안에서 약간의 즉흥성을 가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순서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지전살풀이춤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난다.
- 임은숙류의 지전살풀이춤의 특징은 아버지인 임성도씨의 춤사위는 지전을 아래로 뿌리는 ‘하향춤’이 많았지만, 임은숙 본인은 위로 뿌리는 ‘상향뿌림춤’이 많다고 구술하였다. 이렇게 지전살풀이는 상·하향 사위춤이 복합된 직곡선적이고, 상하로 진폭이 ‘날개사위춤’의 특징을 보인다. 하늘을 향해 내던지듯 지전을 뿌리는 것은 양이요, 땅으로 떨어뜨리는 동작은 음이다. 하늘로 뿌리는 지전의 움

직임은 내면의 맺힘을 먼 공간으로 확산시키는 양의 기운이며 빛과 자유를 의미한다. 또 아래로 내려뜨리는 동작은 음의 기운으로서 의식을 정화하고 악을 추방한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또한 살풀이춤의 죽은 후 생명의 모태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한국의 토속사상과 합치된다.

- 이처럼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춤은 투박하면서도 단순한 디딤새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며 담백하며 깊은 순박함이 춤사위를 묻어 있어 우리 춤의 보편적인 정서인 한과 멋이 돋보인다. 무심한 듯 그러나 은근하게 풍기는 편안함과 소박함은 오래된 한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6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가치

- 본 연구는 굿을 모태로 창안된 예술작품 가운데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재창조된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예술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전춤의 형성과 의미를 알아보고, 임은숙의 삶을 통해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생성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춤사위, 음악, 음식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 지전은 현실에 존재하는 화폐가 아닌 저승에서 망자가 사용하는 저승 화폐를 상징화한 무구로, 현재 굿을 기반으로 창조된 현재 진행되는 굿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지전의 유래는 중국의 장례문화에서 시원하여 삼국시대 때 장례문화의 유입과 함께 들었다. 현재 지전은 장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굿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승되는 굿에서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의 무가가 사용되며, 지전은 호남, 동해안, 제주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임은숙은 아버지에 의해 춤에 입문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웠던 지전춤은 임은숙 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김복련에게 살풀이춤을 사사 받으면서 아버지의 지전춤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체기에서 있었던 임은숙은 자신의 삶과 춤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후 자신의 춤에 근원인 아버지의 춤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이러한 의지는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춤 인생에 전환점이 됨과 동시에 자신의 춤을 정립해 가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생성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춤사위들은 음악사위, 액막이사위, 바티사위, 바람사위, 달래사위 등으로 구성된다. 음악은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해 자진모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적용 음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격적인 임은숙류 지

전살풀이의 보존과 확립을 위해서는 임은숙류 지전살풀이만의 독창적인 음악이 필요하다. 복식은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춤사위와 잘 어우러지면서 소박하고 담백한 멋을 더욱 살려주고 있다. 무구는 지전을 사용한다. 다른 지역의 지전 제작방법의 차별점은 종이를 끼워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종이를 꼬아서 제작한다는 점이다. 또 지전에 상평통보라고 친필로 기록한 점도 특이점이다.

-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춤의 특징은 투박하면서도 단순한 디딤새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낸다. 더욱이 담백하며 깊은 순박함이 춤사위를 표현되면서 우리춤의 보편적인 정서인 한과 멋을 한층 돋보이고 있다. 무심한 듯, 그러나 은은하게 풍기는 편안함과 소박함은 오래된 한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 끝으로 본 연구가 임은숙류 지전살풀이의 발전과 함께 임은숙 춤 연구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의 좋은 예인들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그들의 노력으로 창조된 작품들이 한국의 전통을 멋을 알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써도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계곡집』 .
 『고산유고』 .
 『동국세시기』 .
 『무오연행록』 .
 『범원주립』 .
 『봉씨문건기』 .
 『불학대사전』 .
 『사계전서』 .
 『삼국유사』 .
 『삼국사기』 .
 『서가집』 .
 『석주집』 .
 『성소부부고』 .
 『승정원일기』 .
 『아계유고』 .
 『오주연문장전산고』 .
 『용재총화』 .
 『읍취현유고』 .
 『일성록』 .
 『잠곡유고』 .
 『점필재집』 .
 『조선왕조실록』 .
 『동해집록』 .

강민구, 『교감국역 송남잡지』 6권, 소명출판, 2008.

강소진, 「제주도 굿의 무구(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제13집, 한국무속학회,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무·굿과 음식』 1권,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 2005.

국립민속박물관, 『진도무속 현지조사: 채씨 자매를 중심으로』, 198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200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권범순·임상용, 「제주도 칠머리 당굿과 진도 셋김굿의 춤사위 비교 연구:

- 지전춤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제9집, 제주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2003.
- 금나연, 「공연예술적 측면에서 본 진도 씻김굿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매자, 『한국 무용사』, 삼신각, 1995.
- 김의숙, 「원주지역의 민속문화」, 『강원도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 _____, 「원주의 민속」,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원주시·사단법인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 김혜성, 「부산춤의 명인 김진홍 전통춤 연구」, 『한국무용연구』 제32집, 한국무용연구학회, 2014.
-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 무라야마 지준 지음, 최길성·박호원 옮김, 『조선의 무격』, 민속원, 2014.
- 무라야마 지준 편, 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 문화재관리국,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29: 진도씻김굿』, 1979.
- 박관수, 『강원도 송경 연구2』, 민속원, 2006.
- 박한제, 『이십이사차기』 4권, 소명출판, 2009.
- 박혜정, 「강원 영서(嶺西) 지역의 안택경(安宅經)음악연구」 -원주 횡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48집, 한국국악학회, 2010.
- 서희경, 「진도 씻김굿의 상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지전춤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3.
- 송수남, 「한국무용사」, 도서출판 금광, 1988.
- 양종승, 홍태한, 『한국의 굿 : 한국 굿 개관』, 민속원, 2003.
- 염현주·서숙희, 「박병천류 지전춤의 특성 고찰: 박병천과의 면담 논취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사학』 제13집, 한국무용사학회, 2012.
- 원주문화원 향토지편찬위원회, 『원주·원성 향토지』, 원주문화원, 1976.
- 원주시사 편찬위원회, 『원주시사』, 민속·문화재편, 원주시, 2000.
- 원주문화원, 『강원도 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 유 중, 『하룻밤에 읽는 삼국유사』, 사군자, 2010.
- 이동희, 「진도 시김굿의 지전춤」,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5집, 대한무용학회, 1983.
- 이명실, 「진도 씻김굿의 무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 이병옥, 「한국 무용민속학 개론」, 도서출판 노리, 2005.
- 이병옥,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국립문화연구소, 2018.

- 이영식, 「민간신앙」, 『홍천군지』 중권, 홍천군청, 2018, 416쪽.
- 이창식, 「월정사 탐돌이의 전형과 공연문화」, 『공연문화연구』 36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18.
- 임재해, 『민속과 예술』, 민속원, 2002.
- 임정기, 『점필재집2』, 민족문화추진회, 1996.
- 장주근, 「무속」,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 장희선, 「살풀이 구조분석 - 한영숙 기본 살풀이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논문, 1992.
- 정병호, 『무의 예술적 구조』,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80.
- _____, 『한국전통예술의 미의식 : 민속 무용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정신문화문고 14, 1985.
- 정병호, 「진도굿」,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1999.
- 최대림, 『동국세시기』, 흥신문화사, 1989.
- 최진아, 「진도 씻김굿의 물질문화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최진아, 「지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10.
- 최진아, 「지전의 유래와 의미의 다양성」, 『역사민속학』 제45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1995.
- 황루시, 『진도씻김굿』, 화산문화, 2001.
- 임은숙과의 1차 면담(2022년 7월 5일)
- 임은숙과의 2차 면담(2022년 9월 26일)
- 무속인 박○○(여, 66세. 2022.06.29. 인터뷰)
- 무속인 최○○(남, 73세. 2022.06.29. 인터뷰)
- 무속인 노○○(남, 53세. 2022.11.18. 인터뷰)

○ 부록 1 - 지전살풀이 조사 녹취록1

채록 내용	지전살풀이
채록일	2022년 08월 05일
채록장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234번지 1층(킹쿠마체육관)
채록자	이창식, 이영식, 최명환, 남종현
조사내용	<p>- 살풀이와 지전살풀이의 차이 지전살풀이와 살풀이는 정말 비슷해요. 춤의 형태는 조금 다른데,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아버지가 지전을 만들어서 춤을 췄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잘 몰라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어요.</p> <p>- 지전살풀이를 배운 시기 일곱 살, 여덟 살인가부터 배워서 40대까지 오랜 세월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그냥 집에서 우리 아버지는 사모도 잘 돌리시고 장구도 잘 치시고 그러니까 그때 장구도 치시니까 이게 아버지 그냥 구음에 맞춰서 그냥 뭐 춤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는 남자니깐 그냥 춤을 췄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려서 모르지만 그냥 제가 아니 40대까지 배웠죠.</p> <p>- 구술자의 아버지 아버지의 고향은 경북 봉화 석천이에요. 저는 원주 봉산동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결혼하고 나서 봉산동으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봉산동 사람에게 유명했죠. 봉산동 인근에서 행사란 행사는 다 다녔어요. 아버지 이름은 임성도이세요. 제가 41살인가 그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봉화에서 살 때 큰집에서 큰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농사는 큰아버지(임성달)가 다 했고, 아버지는 막내여서 농사는 짓지 않았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애들 공부시키라고 아버지를 원주로 보냈는데, 작은 부인이 생기면서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하는 춤이 우리 아버지는 말하자면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막 이제 저런 데 나와서 내 이름을 알려려고 가서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데는 안 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자유롭게 그냥 여기 가서도 춤을 추시고, 저기 가서 장구 치시고 그랬어요. 가정은 돌보지 않아요.</p> <p>- 아버지와 구술자 춤의 차이</p>

아버지는 봉화에 있을 때 기생들한테 다 배우신 거예요. 배우시고 또 할아버지 댁에도 그 무속적인 그런 내력이 있었다고 해요.

구술자 아들(김해규, 35세)

제가 중학교 때까지 할아버지 손에 컸거든요. 제가 할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깊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춤도 봤고, 어머니 춤하고 다른 거는 지전을 던지는 게 달라요. 할아버지는 지전을 아래 방향으로 세게 던지세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굿관에서 많이 갔어요. 가면 맛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어릴 때 항상 따라다녔는데,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젊었을 때 덩치가 저만하셨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러는데 옛날 씨름 선수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기억에 어머니는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좀 우아한 동작이 있다면 할아버지도 간간이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딱 바닥으로 또 대표적인 건 제가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은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살풀이라고 말 하시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효, 효를 엄청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망자는 망자인데 효가 엄청 중요시 돼요.

구술자의 손위 언니(임연화, 69세)

아버지 고향은 봉화 석천이에요. 거기에 할아버지 묘소랑 그쪽에 다 있어요. 석천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버지는 춤을 잘 추고, 장구도 잘 치고, 상모 돌리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동네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였죠. 근데 특별히 일한 것은 아니고 한량으로 지냈어요. 봉산동에 와서 유기공장을 했지만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봉화 때처럼 한량으로 지내셨죠.

- 아버지가 춤을 가르친 이유

저는 3남 3녀로 막내딸이에요. 다섯째죠. 어릴 때 유독 막내딸이었던 저를 이빠해주서 춤을 배우게 했어요. 저는 배우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시키니 어쩔 수 없이 배웠죠. 언니와 함께 둘이 노래도 배웠어요. 그때 지게 작대기에 수건으로 묶어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 지전 제작

어릴 때 아버지가 이거 나 가르쳐줘서 제가 이거 만들 줄 알아요. 지금 지전은 제가 접어가지고 이거 가위로 잘라서 묶은 거를 우리 아저씨가 묶어주고 이거는 내가 만든 거예요. 지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한 15일 20일 정도 걸려

요. 아버지는 지전을 만들면서 조상을 많이 위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효를 생각해라.” 춤을 춰도 효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효를 생각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춤을 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이런 걸 하면 조상이 좋은 곳으로 가고 또 내 일도 잘 풀린다고 가정 일도 잘 풀린다고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솥을 다 만들어 놓고 가위로 잘라요. 아버지는 가위로 했는데, 저는 힘들어서 가위랑 칼로 했어. 지전은 한쪽에 12개를 만들어야 해요. 1월부터 12개월로 만들었어요. 수술은 한쪽에 500개씩 묶는데, 두 쪽 합쳐서 1000개 정도 되요. 근데 지금은 만든 지 십여년이 돼서 수술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 본격적으로 춤을 배운 시기

어릴 때 국제 무용소에서 한 2년 정도 배웠어요. 거기서 그냥 기본 춤 배우고 창작 춤을 많이 배웠죠. 거기서 배우고 서울 흑석동 제일 무용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또 한 제가 2년 다녔어요.

- 김복련 선생과의 만남

경기 무용은 십몇 년 됐는데, 그 김복련 선생님한테 4~5년 정도 되었지. 여기 지구를 내주셨어요. 그때 경기 춤 전수증도 받고 이수도 했어요. 선생님한테 승무, 기방무, 한량무, 칼춤도 배웠어요. 살풀이도 배웠는데, 김복련 선생님이 나를 인정했어요. 근데 아니 저 그분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 거를 내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딘가 이렇게 조금은 다른 게 있어요. 아버지 스텝은 우리 아버지는 발을 좀 길게 띄어놓잖아요. 남자니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좁게 해가자고 하니까 내가 두 번 걸음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분은 춤이 발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술자의 손위 언니(임연화, 69세)

제가 수원에 사는데 거기 김복련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무형문화재한테 가서 하면 이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수원으로 제가 이제 불러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이제 제가 보는 눈에는 내 동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춤추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 눈에 내 동생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 춤보다 내 동생이 춘 춤하고, 얘는 너무 이빠요. 우리 친구가 한양대 교수예요. 원미자라고 저기 서울 어디서 건물을 해서 춤을 가르치는데요. 너무 친구래도 나하고 너무 격식이 떨어져서 내가 개가 놀러 오라고 해도 잘 안 가요. 그래서 친구 해 주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친구를 만약 해주면 만약에 애하고 거기서 좀 불편한 관계가 되면 내가 친구로서 불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김복련 선생한테 소개를 해 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 아버지와 무당의 관계
 구술자 아들(김해규, 35세) :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태장동에 있는 굿당에 간적이 있어요. 그때 마을에 원주에서 누가 굿을 한다면 저희 할아버지가 1순위였다고 해요. 그때 무진 고개 박보살, 송보살을 많이 만났는데, 무진 고개가 대한민국에서 무속인이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무당은 아니지만 약기도 하고, 춤도 추셨어요. 굿당에 가시면 항상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가셨는데, 25여 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아플 때면 할아버지가 그런 곳에 꼭 데려가셨어요.

고모님이 무당이셨다고 해요. 태장동에 사셨는데, 무당을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벌을 받았는지 앉아서 누워서 자지도 못해 그냥 앉아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관에다 넣으라니까 넣지를 못했어요. 이게 붙어가지고 이려고 앉아 있는 그게 붙어가지고요. 그래갖고 진짜 간신히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까지 굿을 했는데, 그거 굿하니까 그 우리 고모가 하는 행동이 그 똑같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똑같아요. 조상거리를 했는데, 그 노인들이 조상거리라고 했는데 우리 고모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앉아서 들어오잖아요. 이려고 앉아서 그래서 왜 그러고 들어오냐 오는지 내가 그러니까는 이 다리를 펴지 못하고 그런 거 앉아서 그러고 오는 거예요.

○ 부록2 - 지전살풀이 조사 녹취록

채록 내용	지전살풀이
채록일	2022년 09월 26일
채록장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234번지 1층(킹쿠마체육관)
채록자	이창식, 이영식, 최명환, 남종현, 김명규
조사내용	<p>- 제보자 정보</p> <p>나는 1959년 4월 1일 오후 4시경 원주시 학성동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4살 때 우리 가족은 태장 1동으로 이사하였다. 우리 집은 산 1번지 군부대 위에 있었고 집 뒤로 고개를 넘으면 무진 고개의 성황당과 조그마한 무진암 절을 지나면 아리랑 고개가 있었고 황골이라는 동네를 지나면 치악산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 옆 동네는 봉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나는 늘 봉산동 아이들과 어울리며 여름이면 앞 개울 봉천내라는 냇가에서 미역 감으며 재미나게 물놀이 하던 생각이 난다. 하지만 내 나이 6살이 되던 해 부터는 몸이 많이 쇠약해 시남이 앓기 시작하여 원주 시내 좋다는 병원과 좋다는 약은 다 먹어도 병에 차도가 없자, 아버지께서는 무당을 불러서 큰 굿을 하게 되었다. 굿판에서 무당들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딸을 업고 치악산을 올라가면 발을 멈추는 곳에서 땅을 파보면 무언가 나올 것이라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발을 멈춘 곳에서 땅을 파니 향아리가 나왔다. 아버지는 그 향아리를 가지고 나를 업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내려오셨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 이후 아프지 않았다. 이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좋아하는 옛날 기생이었던 분에게 장구, 춤, 노래를 가르쳐 줄 것을 권유하였고, 아줌마와 아버지는 나를 핑계로 매일 우리 집에서 만나신 것 같다.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유기 공장을 조그맣게 하고 계셔서 살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 고향 경북 봉화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곳에도 과수원과 농토가 아버지 몫으로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고생은 없이 살았던 것 같다. 기생 아줌마는 반나절은 나를 장구춤을 가리키고 오후에는 아버지와 나가셨다. 아버지는 늦게야 집에 오셨다. 저녁에는 아버지께서 지전춤을 조금씩 가르쳤고 지전 접는 것도 가르치셨다. 어린 나이 나는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배우기 싫었다. 춤과 아버지 구음 선소리는 마치 무당들이 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리고 봉산동이란 동네에는 무당들이 많기로 유명했다.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무당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으며 굿판이 벌어지면 송보살이라는 무당은 의례 아버지를 데리러 꼭 오셨다. 아버지는 굿판에 장구도 쳐주고 북도 쳐주신 것 같다. 어린 나</p>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이 왜 그렇게도 싫었던지 마치 아버지가 무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 아버지는 막내딸인 나를 조선에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 예뻐해 주셨다. 추운 겨울 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온 사방 시장을 돌아서 어떤 배라도 사서 가슴에 넣어서 오는 동안 녹여서 갖다 줄 정도로 나를 극진히 아끼셨다. 나의 형제가 아들 셋, 딸 셋 6남매가 있었지만 세 번째 딸인 나에게만 유난히 사랑을 주신 것 같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중학교 2학년 무렵 사춘기가 온 것 같았다.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선소리와 지전춤을 피해서 원주에 있는 국제 무용소에 다니기 시작했다. 한 1년쯤 기본만 배우다 보니 웬지 성에 차지 않고 실증이 나서 서울에서 일주일에 가야금 가르치러 오신 선생님께 졸라서 서울 흑석동에 있는 제일 무용학원에 다니기 시작, 3년간 다닌 것 같다. 여기저기 옛날 고전 무용을 배우러 다녔건만 아버지의 구음 소리에 맞춰 짚은 춤을 추는 것만 못했다. 다 그만두고 다시 아버지의 구음에 맞춰 지전춤을 배우고 지점을 만드는 식도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장구 소리 (구음)>
 합 따닥 ~ 쿵 따다닥 ~ 쿵쿵합 ~ 쿵 따다닥
 쿵 따다닥 ~ 쿵 따다닥 ~ 쿵따닥 ~ 쿵쿵 합

늘 아버지의 구음 소리는 내 귓전에 맴돌았다. 또한 아버지의 갯구풀이는 지금도 우리 언니와 나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 갯구풀이를 하면 언제 아팠느냐 할 정도로 별떡 일어났으니까.

<객귀풀이>
 객구야 들어봐라 니가 객구로구나
 오늘 밤에 니가 이것을 먹고 단꿈을 꾸고
 단잠을 자야만이 되지 아니 먹고 아니자이 이 칼로 배지를
 그어 청쇠가마에 두루말어 생전 못얻어 먹고 못얻어 입을 것이니
 이것을 먹고 썩 물러가거라 소리치면서
 머리카락을 세 번 잘라 바가지에 담고
 대문 밖에 칼을 꽂고 바가지를 얹어 놓았다.

이렇게 아버지는 양밥을 하셨다. 어린 시절 우리 형제는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아버지가 바가지와 칼을 가져와 양밥을 해주곤 했다. 지금도 언니와 나는 몸이 시원치 않으면 스스로 아버지가 했던 식으로 양밥을 하곤 한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어릴 때 아버지의 양밥 의식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 가족 관계
 우리 언니는 임연화, 언니하고 4살 차요. 69살이에요. 할아버지는 임무성이요. 그때 아버지 어려서 모르겠는데요. 할아버지 묘소는 거기 경상북도 거기 몰하면이예요. 아버지는 봉화군 내성면이고, 성함은 김성도에요. 몰하면 석천리. 석천정사도 있고, 그거는 우리 지금 옆이예요. 어머니는 이름이 박분필이, 박자, 문자, 필자, 이자. 그 사람들이 이거 기록을 못 하고 이리 뭐냐 박분필이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까지 가서 고쳐가지고 우리 엄마가 박분필 이가 왜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는 말장사, 말장사. 할아버지는 말이 많았어요. 아니 말 하나 갖고 타고 다니며 갖고 다니면서 뭘 돈 벌러 왔어요. 그걸로 자우지간 그냥 거기다 짐 실어서 돈 벌어 올 것 같은데. 큰아버지는 농사짓고 우리 다 같이 옛날에는 큰집이 작은 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걸 말을 갖고 나가서서 돈을 벌어 갖고 오셨어요. 우리 한 집에 그랬잖아요. 도대체 한량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고모부가 유기 공장 한다고 우리 아버지를 끌고 와갖고 그걸 차렸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또 그거 또 팔로라고 우리 아버지를 시켰어요. 고모부가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오셔 갖고 뭐야, 김서방, 김서방! 우리 아들 호강을 시켜준다면서 와보니까 일하다 힘들게 만하고, 내가 가만 안 둔다, 알았어. 우리 고모는 할머니가 겁이 나서 안 들어 왔는데, 할머니가 그 귀한 막내아들을 너한테 이런 거 시켰다고 뭐라고 했어요.

- 지전 제작
 지전 만들 때 저기 뭐야 내가 우리 아저씨 보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한문으로,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저기 엽전에 상평통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전부 다 그거 1천 개를 쓴 거예요. 상평통보만 있어요. 여기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남겨 놔야 돼요. 한 뺨 정도 동그랗게 나와서 다 했다 쓴 거예요. 이 지전을 만들 적에는 100일 기준으로 삼아서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100일 기준 삼아서 하루에 몇 개씩 하루에 몇 개씩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어려서 뭐. 10년 전에 지전을 만들고 그러고는 안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거 기억을 해서, 기억을 해서 어제 해보라 그러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제 이걸로 안 해보고 종이로요. 그러니까 또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지전을 만드시는 것을 내가 어려서 봤지요. 아버지께서는 지전을 지전풀이를 그 춤을 추려면은 이 지전을 만

들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12개를 만들어야 해요. 12개를 해야 되는데, 13개, 열두 달 해서 이게 이제 많이 해야 돼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펼치면은 이거 많이 해야죠. 이제 오늘은 요거만 보여드는 거고요. 아버지가 요 기품이 이거, 이거 할 때 잘해. 이렇게 잘 묶으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손잡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 이거는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300개도 만들고 100개도. 제가 뭘 일이 있으면 할 때마다 달라요. 300개도 만들고 100개도 만들고 500개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500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저기 뭐야 이제 풀이할 때, 굿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잘 사는 집하고 못 사는 집하고 이렇게 차이를 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또 옆으로 올려야 돼요. 여기 가닥가닥이 그리고 이제 이 손잡이 해놓은 거는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손집이를 하고, 수수 옆 밑에 이제 잘라가지고 다 손으로 비벼야 돼요. 한 가닥 한 가닥 요것도 열 가닥도, 열두 가닥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보니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써요. 그런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비벼, 비벼서 비벼보셔야 돼요. 정성이 진짜 들어서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갖고 진짜 정성 들여갖고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보여준 거라서 그냥 하는 거지. 이거 진짜 정성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그래서 이거를 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한 묶음이라 불러요. 다 묶으면 지전대라고 손대라고도 그랬죠.

- 복식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속 바지하고 저 바지저고리를 얇은 거 입으셨어요. 입으시고 거기다 위에 이런 거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디자인은 내가 새로 한 거예요. 내가, 내가 가서 보고 내가 이거는 내가 디자인을 했어요. 아버지가 입었던 옷은 오빠가 다 태워가지고요. 그 무서운 그거 했다고 오빠가 다 태웠어요. 아버지는 흰색이 아니라 이런 약간 누런색이더라고요. 옛날에 명주, 명주옷으로 했거든요. 여름에는 또 아버지가 모시를 많이 입었어요. 모시를 많이 입고 꼭 위에 이런 거를 입으셨어요. 지금 이 옷은 여자니까 아버지 거는 보기 싫으니까 내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거 옷집에서 이거 못 갖고 가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맞추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안된다고 또 갖고 왔어요.

- 기생에게 춤을 배운 아버지

아니 저기 우리 아버지가 기생한테도 많이 춤을 배웠어요. 경

상도,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가르쳤어요. 봉화 사람이죠. 그사람은 김씨더라고요. 김씨. 봉화군에서 유명한 기생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갔다가 오셔서 저를 가르친 거죠. 아버지보다는 나이가 적으셨어요. 몇 살 아래 한 4살 아래인가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정, 하여튼 옛날에 요정 같은데 그런 데 계신 분이세요. 그거 모르지만 그 관에서 배웠는지, 저는 그분이 어릴 때 거길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무슨 기방에 들어가, 권번이라고 그랬든가 보다. 거기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거기서 춤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그거 다 이렇게 배우셨다고 해요. 어디 권번에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경상북도 거기를 권번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저기 김복련 선생님한테도 배웠지만 뭐 이렇게 춤 기교란 이런 건 내가 어려서 그 기생한테 배운 게 더 많아요. 요 디딤발이 어려서 내가 그분이 이 디딤발 하는 거는 내가 많이 거기서 배웠어요. 옛날 기생들이 그 도듬새를 많이 했잖아요. 조금 내가 창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그분이 기생, 그분이 추는 춤이 더 예뻐요. 지금 내가 생각하면은 더 그게 춤이 더 기품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남자니까 좀 딱딱하고, 또 저기 나는 조금, 여자니까 좀 틀리고 그러니까 살풀이에는 거만 다 비슷하더라고요.

- 춤사위

중간에 오신이라는 거 그거는 놀아주고 또 불러주고 하는 거고. 그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고 이제 그 사람들 잘 가라고 이제 그거 해주는 거고. 마지막에는 저기 뭐야 송신이라고 이제 가라고 이제 해놓는 거예요. 지전을 이제 짚어지고 가라고 해놓은 거고. 지전을 중간에 내려놓는 것은 그거는 놀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는 이제 그 녀를 달래주고 놀아주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한 30분 35분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거는 이제 송신이라고 이제 갈 때 그때는 좀 이제 하는 거, 청신은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청신은 처음에서부터 불러주는 거죠. 이제 이걸 갖고 불러서 오게 하는 거죠. 공연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저 안중근 의사라던가 무슨 추모식 같은데, 가서 춤을 추면은 틀려져요. 어떻게 틀려지냐면 어떻게 들으면 마음이 슬퍼지고 이상하게 이 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안중근 의사 추모식에 가서 한번 춤을 추는데 진짜 춤이 진짜 절로 쳐지고, 그냥 가슴이 진짜 너무 몽클 해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이 슬픔이 이 춤으로 보여다고 해요. 나는, 나도 슬프더라고요. 그날 그 춤을 추는데 왜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지전을 아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데 이 돈을 가지고 아주 가서

거기 가서 잘 살라고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슬픈 거를 이제 달래주는 거죠. 달래서 좋은 데 가시고 또 이렇게 이제 놀아주는 거는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속으로 나 혼자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보낼 때, 보낼 대 아무 생각 마시고 가서 편히 계시라고. 그리고 노자가 없으면 이거라도 가져가셔가지고 노잣돈이라도 해서 풍족하게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내가.

- 지전과 수건과의 차이
 10년 전에는 지전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수건을 2개를 들고 춤을 추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더 그냥 더 잘 출수가 있죠. 그 춤은 살풀이춤이니까요. 살풀이춤이랑 발동작은 거의 조금 비슷한데요. 지전하고는 이제 수건하고는 차이점이 이거는 이렇게 흔들리지만, 이거 수건은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이 수건이 더 힘들어요, 지전보다.

- 음악
 음악은 내가 전라도 가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살풀이해서 이거 말고 살풀이를 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전라도 사람,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을 제가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분들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느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음악이 진짜 그거 할 때 공연할 때 제가 돈 받은 거, 거기다 다 주고 왔거든요. 내가 대상 받아갖고 그래서 그걸 다 주었던 말이죠. 그거 다 그 사람들 쓰게끔. 그런데 음악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제가 그 음악을 가져와서 대상 받은 음악이니까 내 음악이 지금 없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음악에다 제가 춤을 춘 거예요. 아니면 뭐 경기 살풀이 그 음악도 있어요. 그랬는데 국거리는 좀 느려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굉장히 느렸거든요. 근데 너무 빠른 거예요. 빠르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이 지금 저한테 없어요. 그 음악이, 지금 음악이 없어서. 그렇다고 살풀이 음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 건카이 음악을 그냥 한 거예요.

- 춤의 입문부터 수확기
 어릴 때 때부터 했어요. 여섯 살 때부터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하다가 또 이제 어릴 때는 또 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여기저기 난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내 거가 이게 있다는 걸 깨우칠 때까지는 그전에는 여기저기 사방에

다녔어요. 제가 저는 여기서 혼자 원주서 혼자서, 혼자서 가고 전라도도 혼자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형네들만 언니 둘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내가 테리고 진도춤 배우러 갈 때 3개월 아저씨, 삼일, 삼일 언니들 데려가서 있던 적도 있어요. 그러고는 나 혼자 다니지 뭐 이렇게 누구랑 같이 다녀본 적도... 그래서 전 수원에서 이 남한 일대에서 다 와요. 다 오기 때문에 누구 친구 거기서 친한 사람이 없었죠.

- 최고의 스승이었던 아버지
 아버지가 추던 춤 그대로 우리 아버지 80 몇 살에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마흔 몇 살 때까지는 아버지 계실 때까지는 내가 이거 아버지 할 때 같이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거를 했어요. 아버지가 힘들어 갖고 춤을 못 추시고 내가 이제 하면은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 춤은 밀으로 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밀으로 많이 치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위로하고 그러면 아버지 이제 많이 혼내시고 그랬죠.

- 수상 경력
 대상 받은 적이 있는데 광주, 전라도 광주. 10년 전에 2012년 정도예요. 또 그거는 고양시에서 제가 그때도 경기도 고양시 거기서 그 특상인가 하여튼 뭐 받았어요. 그때 저기 뭐야. 그 살풀이춤, 너무나 아주 너무 곱게 잘 춘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살풀이춤도 다 같은 살풀이춤이 아니라 어느 지금 그분 내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같은 살풀이라도 이 살풀이 추는 게 너무 아주 저기 옛날 전통식으로 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